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 呂 珠 教授指導

博士學位 請求論文

陶隱 李崇仁 詩 研究

2017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金 京 美

陶隱 李崇仁 詩 研究

金 呂 珠 教授指導

이 論文을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6년 10월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金 京 美

# 認 准 書

金京美의 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6년 10월

審査委員長 \_\_\_\_\_

審査委員 \_\_\_\_\_

審査委員 \_\_\_\_\_

審査委員 \_\_\_\_\_

審査委員 \_\_\_\_\_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論 文 概 要

陶隱 李崇仁(1347, 충목왕 3년~ 1392, 공양왕 4년)은 고려 말의 儒學者이며, 政治家, 詩人이다. 이송인은 어렸을 적부터 영민하여 글을 읽으면 모두 암기하였고, 강의를 들으면 두 번 다시 묻지 않으며 두각을 나타내었으나 고려 말이라는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 時流에 휩싸이면서 네 번의 유배와 복직을 반복하였다. 이송인은 李成桂가 정권을 장악한 뒤 그의 진영에 가담했던 친구 鄭道傳이 보낸 黃居正에 의해 46세에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남긴 시의 수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송인은 ‘당대 文은 목은 詩는 도은’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시에 능했다.

이송인의 문집인 『陶隱集』에는 卷 1~3에 337제 446수의 시, 卷4~5에 文 51편이 수록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송인의 생애를 다루면서 시세계를 성리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성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忠, 孝, 政治 現實에 대한 갈등이나 서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인으로서 이송인의 詩的 능력이나 순수한 면모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하겠다. 시로 당대 최고라는 평을 받은 만큼 그에 대한 연구는 詩文學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송인은 시 창작에 있어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은 『詩經』이며, ‘思無邪’에 이르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여겼다. 이에 따라 詞章보다는 經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인위적으로 문장을 조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겼다.

이송인은 고려 말에 유입된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성리학의 사유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 전 분야에 스며있는 불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그의 시에 성리학 뿐 아니라 불교와 노장의 철리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인은 시인이었다.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겠지만, 자신의 내면 정서를 다양한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불교적 성향이 드러난 작품을 살펴보았다.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으므로 사회의 전 분야에 불교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이런 까닭에 그의 작품의 기저에 불교 사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짙은 그의 시를 따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당대의 현실 속에서 그가 지향하고 추구하던 세계관과 삶의 방향성에 대해 밝히고자 했다. 이승인의 시에 나타난 불교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여 禪趣적 경향과 청정의 세계가 드러난 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승인은 불교를 통해 고통스런 현실을 벗어나는 삶을 살코자 했으며, 높은 정신 경계에 노니는 승려들과 교유하면서 자신도 그들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려 했다. 아울러 청정한 정신경계에 노니는 승려의 모습을 깨끗한 자연 풍광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사물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드러낸 詠物詩를 고찰해 보았다. 그의 시인으로서의 능력과 감성이 영물시에 잘 드러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통해 이승인의 내면정서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그의 영물시는 대략 현실 인식과 극복의 의지를 드러낸 시와 사물에 담은 시인의 정서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실에서의 갈등과 좌절 또는 은둔의 심경을 읊고 있는 여타의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담담한 어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현실의 이야기를 직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현실 극복의지를 우회적인 방식을 취해 피력하였다.

세 번째로 자신의 懷抱를 읊은 술회시를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자연인 이승인의 모습을 살피고자 했다. 작품 곳곳에 自我 省察의 흔적이 드러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성찰을 통한 肯定意識이 드러난 경우와 일상의 한정된 정서와 感興이 드러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승인은 술회시를 통해 자신을 反省하거나, 곤란한 현실에서도 安分知足을 추구했으며, 일상의 일들을 日記체

럼 그대로 읊어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이송인의 시는 성리학의 색이 짙은 가운데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성리학의 유입으로 변화되어가는 고려 말 사상사의 조류에 긴밀하게 반응하였음을 그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이른바 文以載道적인 관점을 문학작품에 엄밀하게 적용하는 데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다. 이송인은 자신의 비분한 감정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시를 썼고, 현실과의 갈등 또한 비교적 솔직하게 서술했다.

이송인은 성균관 學官으로 있으면서 성리학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불교 국가인 고려에 유입된 성리학을 정착 시키는데 주춧돌 역할을 한 뛰어난 학자였다. 한편으로 목은 이색 사후 외교 관계문서는 이송인이 맡을 정도로 문장력이 뛰어나 당대에 文名을 떨쳤다. 그의 문학관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文以載道的 관점에 편향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작가로서의 면모는 시에서 드러났는데, 제자들은 그의 시를 두고 淸新, 高古하다고 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송인의 시를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다. 다만 이송인이 동류와 교제하며 남긴 작품에 대해서 소략하게 서술한 감이 없지 않고, 漢詩를 중심으로 다룬 나머지 그가 남긴 散文을 통하여 시를 해석하는 시도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는 바이다.

# 目次

## 論文概要

I. 序論 .....	1
1. 研究 目的 .....	1
2. 研究史 檢討 .....	4
3. 研究 方法 .....	7
II. 陶隱의 時代的 背景과 生涯 및 交遊關係 .....	10
1. 時代的 背景 및 生涯 .....	10
2. 交遊關係 .....	17
III. 陶隱의 文學意識 .....	25
IV. 陶隱의 詩世界 .....	34
1. 佛教認識과 禪趣的  경향 .....	34
1) 佛教에 대한 認識 .....	34
2) 禪趣적  경향과 淸淨의  세계 .....	44
2. 詠物을 통한 內面 表現 .....	52
1) 現實 認識과 克服의 意志 .....	55
2) 事物에 담은 詩人의 情緒 .....	65
3. 省察과 述懷의 自己 表現 .....	77
1) 省察을 통한 肯定意識 表出 .....	78
2) 日常 속의 閑靜과 感興 .....	88
V. 文學史的 意義 .....	98
VI. 結論 .....	102

## 參 考 文 獻

## Abstract

# I. 序論

## 1. 研究 目的

도은 이송인이 살았던 시기, 중국은 元에서 明으로 교체되면서 고려는 親元派와 親明派로 나누어지는 혼란한 시기였다. 이송인은 元나라를 배척하고 明과 가까이하자는 개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왕조 건국 세력과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고려왕조를 부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1392년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같은 정몽주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게 제거 당한 후, 정적이자 친구였던 鄭道傳의 사주를 받은 黃居正에게 杖殺당하였다. 46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무엇보다 혼란한 정국의 중심에서 활동했으므로 이송인은 337제 446수의 많지 않은 양의 시를 남겨 놓았다. 이송인의 작품은 太宗이 1406년에 權近에게 명하여 간행한 『陶隱集』에 실려 있다. 총 5卷으로 구성되어있는데, 卷1~3에 詩가 있고 卷4~5에 文이 51편이 있다. 그 외 『東文選』, 『靑丘風雅』, 『箕雅』, 『大東詩選』 등에 일부가 실려 있다.

이송인은 ‘당대 文은 牧隱, 詩는 도은’이라는 평을<sup>1)</sup> 받을 정도로 시에 능했다. 徐居正(1420~1488)의 『東人詩話』에 “李陶隱과 鄭三峯은 동시대에 이름을 날렸는데, 이송인은 淸新하고 高古하였으나 雄渾이 부족하였고, 삼봉은 豪逸하고 奔放하였으나 鍛鍊됨이 적어 서로 長·短이 있었다. 그러나 목은이 매번 詩를 評함에 있어서는 이송인을 앞세우고 삼봉을 뒤로 하였다.”<sup>2)</sup>라 한 것으로 보아 당대의 석학들 중에 이송인이 詩로서 당연 으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

1) 崔岵, 『簡易集』 <新印陶隱詩集跋> “牧隱之文 陶隱之詩 吾東第一家數也.”, 1631.

2) 『東人詩話』 徐居正(1420~1488) 권 上 “李陶隱鄭三峯齊名一時 李淸新高古而乏雄渾 鄭豪逸奔放而少鍛鍊 互有上下 然牧老每當題評先李而後鄭.”

다. 이렇게 漢文學史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송인의 시를 보는 것은 고려 말의 詩世界의 格을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송인의 시세계 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고려 말 性理學이 들어왔으나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으므로 新進士類들은 성리학과 佛敎를 함께 수용하였다. 이송인도 불교 신자인 어머니의 영향아래 불교를 긍정적으로 인식 하였고, 佛僧과 교류하면서 佛敎의 다양한 모습을 詩 作品을 통해 드러내었다.

공민왕이 成均館을 再建하자 이송인은 21세에 성균관 學官이 되어 경전을 강의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이송인의 시에서는 성리학적 색채를 띤 작품이 다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송인에 대해서는 金台俊의 『朝鮮漢文學史』에서 그의 문학을 다루면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후 주로 이송인의 생애를 다루면서 시세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성리학을 중심으로 그의 시에 접근했다. 성리학 측면에서의 연구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이나 忠, 孝, 禮, 信義 등 유교적 덕목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고려 말 성리학 정착에 앞선 대표적 학자, 문인답게 그의 사상의 일면 내지 동시대 사대부들의 의식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인으로서 海東에서 第一이라는 評을 받은 이송인의 시적 감수성이나 시인으로서의 미적 감각, 서정성을 발견하는 데는 미흡함이 있다고 하겠다.

이송인의 시에 대한 제가의 評은 “淸新, 高古, 簡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風格은 儒敎的 德目을 주제로 삼은 시보다는 日常에서 읊은 서정시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불교적 경향이 드러난 시에서도 俗世와 동떨어진 山寺의 風光을 읊음으로써 이송인 시의 특징인 淸新과 高古한 風格이 드러나고 있다.

시인으로서 이송인의 역량을 알고 그의 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고

에서는 이송인의 詩를 불교적 성향이 짙은 시, 詠物을 통해 자신의 內面을 표현한 시, 자신의 회포를 풀어 쓴 詩를 중심으로 考察해 보고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송인은 性理學을 공부했고, 조예가 깊었다. 따라서 그가 남긴 상당수의 시에서 성리학적 색채를 드러내는 작품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런 사실은 그의 文學 研究가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성리학이 수입되었지만, 곧바로 사회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성리학을 국교로 삼은 조선이 여러 대를 걸쳐 억불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불교가 사회의 基底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준다. 이런 점은 이송인의 시에도 오롯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송인의 불교적 성향이 짙은 시 70여수를 고찰해 봄으로써 그의 사상과 시에 불교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사물을 통해 심사를 드러내는 창작 방식은 『詩經』의 시대에서부터 근원을 찾을 만큼 오래되었고,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영물시 분석을 통해서 그의 내면 정서와 아울러 이송인의 시인으로서의 능력, 작품의 美的 특징을 추출하고자한다.

끝으로 述懷를 통해 자신의 심사를 드러낸 작품을 살피려 한다.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 감정을 드러내는 지 살펴보겠다. 이송인은 한가로운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內面을 省察하였고, 시인의 감성을 드러내었는데, 이를 표현한 작품의 분석을 통해 이송인의 내면과 작품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이송인의 시세계를 考察하여 그의 삶과 문학의 전모를 온전히 드러내는데 일조하고자 하는데 서술의 목적을 둔다.

## 2. 研究史 檢討

도은 이송인에 대한 연구는 詩에 대한 연구와 生涯와 思想에 대한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李崇仁의 시문학은 金台俊의 『朝鮮漢文學史』와 李家源의 『韓國漢文學史』에서 처음으로 연구되었다. 李炳赫의 「陶隱 文學考」에서는 네 가지의 문학관을 제시하고, 詩文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했다.<sup>3)</sup> 朴天圭의 「三隱과 麗末의 漢文學」<sup>4)</sup>과 이병혁의 「麗末漢文學의 朱子學的인 경향에 대하여」에서<sup>5)</sup> 성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송인의 시를 보았는데, 특히 이병혁은 이송인의 <秋夜感懷>와 朱熹의 <齋居感興>을 비교하여 이송인의 문학관에 朱子學的인 경향이 농후함을 밝혔다.

고려 말의 상황은 국내외 모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으므로 당시 지식인이었던 이송인의 宦路도 그리 평탄치는 못했다. 따라서 그의 시는 現實 葛藤, 隱遁, 脫俗, 自然 歸依 등을 주제로 하여 창작된 작품이 많고, 이송인의 시를 현실갈등이나 은둔 등을 핵심어로 삼아 분류하고 연구를 전개한 논문에는 朴性奎의 「도은 이송인론」<sup>6)</sup>, 金聖基의 「李崇仁論」<sup>7)</sup>, 김동욱의 「도은 이송인의 생애와 문학세계」<sup>8)</sup>, 송재소의 「도은 이송인의 시」<sup>9)</sup>, 정종대의 「李崇仁의 漢詩에 대하여」<sup>10)</sup> 등이 있다.

이송인의 산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인데 元주용은 「이송인 산문의 文藝的 特征」에서 산문의 특징이 간결한미를 추구하였으며, 사대부가 지녀

3) 이병혁, 「도은 문학교」, 『한국 문학 총론』, 한국한문학회, 1978.

4) 朴天圭, 「三隱과 麗末 漢文學」, 『동양학 9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9.

5) 李炳赫, 「려말한문학의 주자학적인 경향에 대하여 -도은 이송인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제 10집』, 1985.

6) 朴性奎, 「陶隱 李崇仁論-그의 시세계를 중심으로-」, 『東洋學 제 2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1.

7) 金聖基, 「李崇仁論」, 『韓國漢詩作家研究 2』, 太學社, 1996.

8) 김동욱, 「도은 이송인의 생애와 문학세계」, 『어문학연구 제 8집』,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9.

9) 송재소, 「도은 이송인의 시」, 『한시한마당11』, 시와시학사, 2003 여름호.

10) 정종대, 「李崇仁의 漢詩에 대하여」, 『선청어문 36』, 서울대학교어교육과, 2009.

야할 의식들을 深遠한 命意 속에 담아내었다고 보았다.<sup>11)</sup>

한시의 내용을 爲國, 思鄉, 惜別, 交友, 山水, 感物, 人生, 懷抱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金正熙의 「이승인 시 문학 연구」<sup>12)</sup>, 한두 가지 주제로 이승인의 시를 분석한 林鍾旭의 「도은 이승인의 시문학 연구」<sup>13)</sup>, 趙載億의 「이승인의 시와 隱逸性」<sup>14)</sup>, 이정화의 「도은 이승인의 樓亭詩 연구」<sup>15)</sup>, 하정승의 「이승인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특질」<sup>16)</sup>, 김재욱·송혁기의 「도은 이승인의 佛敎詩 연구-승려와의 교유시를 중심으로-」<sup>17)</sup> 등이 있다. 이 중 하정승은 이승인의 挽詩 19제 20수를 도표로 정리하여 만시 대상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고 있는데, 만시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의 교유관계와 그들과의 관계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의 서정성에서는 이승인의 시적 재능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승인의 시적 美나 風格을 연구한 논문으로 鄭載喆의 「이승인 시의 사상적 지향과 風格 연구」<sup>18)</sup>, 柳浩珍의 「陶隱 詩에 나타난 人格美 및 生活理想」<sup>19)</sup>, 魚江石의 「도은 이승인의 삶과 시문학의 특징」<sup>20)</sup>, 하정승의 「도은 이승인의 시의 품격연구」<sup>21)</sup>, 최광범의 「도은 이승인의 시의 품격-淸新을 중심으로-」<sup>22)</sup>, 하정승의 「이승인 시에 나타난 唐詩風 경향과 미적특질」<sup>23)</sup> 등이 있는데, 어강적

11) 원주용, 「이승인 산문의 文藝的 특징」, 『한문학보 16집』, 우리한문학회, 2007.

12) 金正熙, 「陶隱 詩文學 研究」, 『복현한문학 2집』, 경북대, 1984.

13) 林鍾旭, 「도은 이승인의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 연구 11권』, 동국대 한문학 연구소, 1988.

14) 趙載億, 「이승인의 시와 隱逸性」, 『한문학논집』, 단국한문학회, 1988.

15) 이정화, 「도은 이승인의 누정시연구」, 『한국사상와 문화 제3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16) 하정승, 「이승인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특질」, 『한국한시연구 21집』, 한국한시학회, 2013.

17) 김재욱(제 1저자), 송혁기(교신저자), 「도은 이승인의 佛敎詩 연구-승려와의 교유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제 38집』, 근역한문학회 2014. 2.

18) 鄭載喆, 「이승인 시의 사상적 지향과 風格 연구」, 『태동고전연구15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88.

19) 柳浩珍, 「陶隱 詩에 나타난 人格美 및 生活理想」, 『국어국문학 125호』, 국어국문학회, 1999.

20) 魚江石, 「도은 이승인의 삶과 시문학의 특징」, 『청계논총 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21) 하정승, 「도은 이승인의 시의 품격연구」, 『한국한시연구8』, 태학사, 2001.

22) 최광범, 「도은 이승인의 시의 품격-淸新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4』, 민족어문학회, 2001.

23) 하정승, 「이승인 시에 나타난 唐詩風 경향과 미적특질」, 한문학논집39집, 근역한문학회, 2014.

은 시의 특징을 清新과 灑落의 시와 精鍊과 溫藉의 시로 나누었으며, 鄭載喆은 이송인의 시의 풍격을 淸閑(機心이 소진된 淸淨 境界)과 新奇(不義에 대응한 節義 精神)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도은에 관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梁鎭潮의 「陶隱 李崇仁의 詩世界 研究」<sup>24)</sup>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송인의 한시세계를 實踐躬行, 脫俗的 禪의 詩境, 現實 認識 등 세분화 하였고 시에 사용된 한자가 중복된 것을 제외한 2738자를 많이 사용한 순으로 정리하고 시의 風格을 淸新과 平淡으로 보고 조선 초 성리학적 시풍을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한 문인이라고 하였다.

이송인의 交遊關係를 엿볼 수 있는 교유시는 여러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가운데 강혜선의 「고려 말 사대부의 교유시 연구 -둔촌, 척약재, 포은, 도은, 삼봉, 양촌을 중심으로-」<sup>25)</sup>는 여말의 6인이 서로 주고받은 시를 통하여 인간적 유대와 우정의 정경을 포착하는데 주력한 점이 돋보인다.

이송인의 삶과 사상에 관한 연구로 李楠福의 「도은 이송인 연구」<sup>26)</sup>, 張在天의 「李崇仁 삶과 足跡에 대한 평가」<sup>27)</sup>, 엄연석의 「도은 이송인의 유학사상과 절의 실천」<sup>28)</sup>, 정성식의 「도은 이송인의 역사의식」<sup>29)</sup>, 하정승의 「도은 이송인 시에 나타난 절의정신과 충절의 형상화」<sup>30)</sup>, 김철웅의 「이송인의 생애 자료와 활동」<sup>31)</sup> 등이 있는데 이중 김철웅은 생애자료와 表箋文을 도표로 나타내어 살펴본 결과 그간의 연구에 나타난 연도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밝혀낸 성과가 있다.

『陶隱集』에 관한 연구로 장인진의 「<도은선생집>의 版本과 文獻的 특성」<sup>32)</sup>이 있는데, <도은선생집> 7종의 판본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기술하였다.

24) 梁鎭潮, 「陶隱 李崇仁의 詩世界 研究」,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25) 강혜선, 「고려말 사대부의 교유시 연구 -둔촌, 척약재, 포은, 도은, 삼봉, 양촌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2014.

26) 李楠福, 「도은 이송인 연구」, 『동의논집 24집』, 동의대학교, 1996.

27) 張在天, 「李崇仁 삶과 足跡에 대한 평가」, 『한국사상과 문화62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28) 엄연석, 「도은 이송인의 유학사상과 절의 실천」,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2012.

29) 정성식, 「도은 이송인의 역사의식」, 『동양문화연구 15집』, 영산대 동양문화 연구원, 2013.

30) 하정승, 「도은 이송인 시에 나타난 절의정신과 충절의 형상화」, 『포은학연구 제16집』, 2015.

31) 김철웅, 「이송인의 생애 자료와 활동」, 『한국민족문화 57』, 201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도은에 대한 연구는 詩와 思想 등 여러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다만 그의 시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성리학적인 측면이나 현실에서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그의 성리학적 사상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그의 사상의 기저에도 불교적 색채가 짙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는 이송인의 불교적 성향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으므로 그의 시문학의 전반을 살피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불교적 성향의 시를 따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또한 일상 속에서 의도하지 않고 지은 시는 자연스럽고 꾸밈없어 시인으로서의 순수한 정서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이송인 시의 특징인 ‘淸新’, ‘簡潔’, ‘高古’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기존의 성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된 것 이외의 시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시세계를 고찰하여 시의 미적 특징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 3. 研究 方法

앞서 본고에서 서론으로 研究目的을 밝히고, 선행 연구사를 검토하여 기존 연구의 경향을 정리하고 본고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 이송인의 時代的 背景 및 生涯와 交遊關係를 살펴보고자 한다. 時代的 背景 및 생애는 『高麗史』, 『星州李氏大同譜』, 『三賢紀年』, 『陶隱集』을 토대로 알아보고, 교유관계는 『도은집』에 실려 있는 시를 통해 이송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인물 중심으로 살피려 한다.

이송인은 자신의 문학을 보는 관점에 대해 전문적인 서술을 남기지 않았다.

---

32) 장인진, 「<도은선생집>의 版本과 文獻的 特性」, 『한국학논집 제 51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그러나 한 작가를 이해함에 있어 文學意識을 살피는 작업은 필요한 과정이므로, 3장에서는 이송인의 작품에서 산견되는 그의 관점과 제가가 이송인을 두고 남긴 評을 통하여 그의 文學意識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 해당하는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송인의 詩世界를 고찰하고자한다. 佛敎的 성향의 시, 詠物을 통해 內面을 表現한 시, 省察과 述懷를 통해 자기를 표현한 시로 나누어 그의 詩世界를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이송인의 삶과 思想, 詩人으로서의 면모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시를 분석함에 있어 그의 詩의 特徵과 시에 쓰인 修辭法을 통해 이송인의 詩的 感覺을 엿보려한다.

본고에서는 이송인의 불교적 성향의 시를 승려와의 교유시, 승려의 詩卷에 쓴 시, 사찰의 경치를 읊으며 禪趣를 드러낸 작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이송인은 불교의 교리를 천명하거나, 불교의 淸淨한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考察을 통해 이송인의 불교인식과 시 속에 함유된 불교적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이송인의 시와 삶에 불교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송인은 자신의 처지를 사물에 移入시켜 자신의 감정을 읊기도 하였고, 세태를 탄식하기도 했다. 일상적인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읊어 시인으로서의 순수한 정서적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의 영물시를 現實 認識과 克服의 의지가 드러난 시와 事物에 담은 詩人의 情緒가 드러난 詩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述懷란 자신의 懷抱를 서술하는 것이다. 어떤 주제를 설정하더라도 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는 장르이므로, 넓은 의미로 본다면 모든 시를 述懷詩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부각하고자하는 주제에 따라 이송인의 시를 불교적 성향의 시, 영물시로 나누고,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이루어진 작품을 술회시로 보았다. 이송인은 이 술회시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자신의 심사를 토로했다. 본고에서는 이들 술회시를 자기 성찰을 통한 肯定意識이 드러난 작품과 일상생활에서 閑靜한 情緒와 感興을 드러낸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이송인에 대한 諸家の 評과 앞에서의 연구한 것을 토대로 이송인 문학의 文學史的 意義를 알아보고자한다.

끝으로 본고의 서술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結論을 맺고자 한다.

陶隱 李崇仁의 文集은 1406년(태종6년)에 제일 먼저 간행되었다.<sup>33)</sup> 초간본이 나온 이후 1923년에 이르기까지 총 7종의 판본이 나왔다. 초간본은 春亭 卞季良(1369~1430)이 太宗의 명을 받고 편차하였다. 卷 1-3은 詩集, 卷4-5는 文集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詩가 337題 446首와 文이 51편 실려 있다. 그 밖에 癸未字本, 三刊本, 晉州 木活字本, 安峯影堂 刊本, 壬戌 重刊本, 安峯影堂 補活字本이 있다. 이 중에서 三刊本(15세기 중엽 간행)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만송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民族文化推進會에서 『韓國文集叢刊』으로 影印하였다. 간행된 7종 가운데 字體, 表記, 校正 등에서 비교적 완벽하다 할 수 있다.

국역본은 1981년 퇴계학연구소에서 번역한 『國譯 陶隱先生文集』, 大洋書籍에서 李漢祚가 번역한 『陶隱集』,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나온 『도은집』이 있다.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텍스트는 『韓國文集叢刊 6』에 수록된 「陶隱集」이며, 시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나온 『도은집』<sup>34)</sup>의 번역을 따르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서술의 편의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33) 장인진의 <『도은선생집』의 版本과 文獻的 特性>, 『한국학논집 제51집』,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2013.>을 참고하였다.

34) 이송인 지음, 이상현 옮김, 『도은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 II. 陶隱의 時代的 背景과 生涯 및 交遊關係

### 1. 時代的 背景 및 生涯

陶隱 李崇仁이 살았던 14세기는 恭愍王이 즉위하여 당시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폐단을 개혁하여 고려의 自主性を 회복하려고 하였던 시기이다. 공민왕의 개혁은 대외적으로는 反元政策, 대내적으로는 權門世族의 억압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sup>35)</sup> 이승인과 같은 新進士類는 親明을 주장하였다. 안향이 성리학을 들여 온 이후로 고려사회는 성리학이 신진학문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공민왕 원년에는 원의 내정간섭과 왜구의 침략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성균관도 침체 상태에 있었다. 공민왕은 교육정책에도 개혁을 시작하여 즉위 16년에는 흥건적의 침입으로 불에 탄 成均館을 重建하였다.<sup>36)</sup> 또한 교육 내용을 經學 위주로 개편하고자하여 성균관을 경학 위주로 개편하고 교관도 당대의 經學者들을 임용하여 교육하도록 하였다.<sup>37)</sup>

공민왕 16년에 성균관을 증수하고 穉으로 하여금 判開城府事로 삼고 성균관 大司成을 겸하게 하였다. 생원을 늘리고 경학에 밝은 金九容, 鄭夢周, 朴尙衷, 朴宜中, 李崇仁 등을 뽑아 他官으로써 성균관 교관을 겸하게 하였다. 이전에는 館生이 수십 명에 불과하였으나 이색이 다시 學式을 정하여 매일 明倫堂에 앉아서 經書를 나누어 교육하고, 강의를 끝나면 서로 모여 어려운 부분을 토론하고 바쁜 줄을 몰랐다. 이에 배우려는 자가 몰려들고 서로 감화되니 程朱의 성리학이 비로소 興起하였다.<sup>38)</sup>

35) 李楠福, 「도은 이승인 연구」, 『동의논집 24집』, 동의대학교, 1996, p.113.

36) 『高麗史』 권 132, 列傳 45, 辛旽.

37) 申千湜, 『牧隱 李穡의 學問과 學派』, 一潮閣, 1998, p. 265.

38) 『高麗史』 권 115, 列傳 28, 李穡.

『高麗史』 <李穡列傳>에서 보듯이 공민왕은 經學 위주의 학문을 장려하였으며, 이 때 이송인도 성균관의 교관이 되어 성리학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성균관 교관들은 經書를 교육한 후 서로 토론을 하며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성리학을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색을 중심으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후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입장을 같이하게 된다. 성균관 교관이 되어 강의를 하던 일은 <贈李生序>에서 “예전에 烏川의 鄭夢周와 仁山の 崔彪와 密陽의 朴宜中이 成均館의 교관으로 있을 적에 나도 외람되게 그 반열에 끼어서 7, 8년을 보내었다.”라고 한 것에서도 보인다.<sup>39)</sup> 이송인은 교관으로 있을 때의 나이는 21세였는데, 이른 나이부터 성균관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당대의 석학이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으로 詞章 위주의 학문적 경향에서 經學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송인의 학문적 성향이 경학위주였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공민왕이 피살되고 우왕이 즉위하자 다시 親元勢力이 득세하는 등 그들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학 위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교육 방식도 다시 詞章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 이송인이 李生에게 써준 序文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 자허가 웃으면서 “내가 진작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辭章을 위주로 하는 과거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학도가 누구는 賦에 능하고 누구는 詩에 능하다고 하여 그들에게 물려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대를 찾아오겠는가.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고 형이 아우를 가르치고 붕우가 서로 권면하는 것이 聲律과 對偶 외에는 달리 없으니, 經學에 뜻을 두는 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아, 학술이 변하는 것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나에게 학도가 없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sup>40)</sup>

39) 『도은집』 권 4 <贈李生序> p. 505, “昔者烏川鄭丈達可 仁山崔丈彥父 密陽朴丈子虛 爲教官成均 予亦猥廁其列七八年.”

40) 『도은집』 권 4 <贈李生序> p. 506, “子虛笑曰 吾固以爲與昔異矣 自辭章興 學徒以某工賦某工詩而之也 奚子之之焉 父詔子兄教弟 朋友之相勸勉 無出聲律對偶外 其有志經學者哉 嗚呼學術之變至此 無恠乎予之無徒也.”

세상 학문의 유행이 다시 詞章 위주로 回歸하여 이송인에게 오는 학도가 없음을 탄식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송인의 학문적 경향도 시류에 따라 변한 것은 아니다. 이송인은 詩에 문장을 꾸미는 것을 경계하였고, 실제로 그의 시가 경전을 바탕으로 하였고 꾸밈없이 平淡한 것으로 보아 유행에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의 내용은 이송인이 공민왕 18년(도은23세)에 進德博士가 되어 이후 7·8년 동안 성균관에 있다가 3년을 쉬고 司成으로 있을 때의 일화이다. 이때가 우왕 때이니 다시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1368년에 건국된 명나라는 고려에 철령위 설치 등 압력을 가하자 崔瑩은 禡王에게 간하여 요동정벌을 실시하였다. 우왕 14년(1388)에 崔瑩은 八道都統使가 되고 曹敏修는 左軍都統使, 李成桂는 右軍都統使가 되어 출정하였다. 이성계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回軍을 청하였으나 최영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조민수 등을 회유하여 개경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곧 위화도 회군이다.<sup>41)</sup>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세력이 커지고 마침내는 조선을 건국하기까지 이르른다. 이성계의 조선 개국으로 인하여 고려 왕조를 지키려했던 이송인은 죽음을 맞게 된다.

陶隱 李崇仁(1347~1392)은<sup>42)</sup> 본관 星州, 휘는 崇仁이고 자는 子安이며 少字는 蒙哥, 호 陶隱, 陶齋, 陶隱道人, 幘巾男子, 五十才童子이다. 증조 李百年은 종2품 密直司事에 오른 인물로 李兆年의 맏형이다. 조부 李麟起는 平壤府尹을 지냈으며 부친 稼亭 李元具는 공민왕으로부터 공신 칭호를 받고 星山君에 봉해졌다. 이송인의 어머니는 彦陽 金氏로 判府事 金敬德의 딸이다.

이송인은 1347(충목왕 3년, 丁亥)년에 星山府 龍山里(지금의 성주읍 경산동)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8세 (1354, 공민왕 3년)에 학문을 시작하였다. 이송인이 지은 <先大夫人

41) 『高麗史節要』 권 33 우왕 14년 6월.

42) 『高麗史』, 『星州李氏大同譜』, 『三賢紀年』, 『陶隱集』을 참고하여 서술하고자한다.

行狀>에 “蒙哥야 너는 이미 書生이 되었으니 마땅히 배움에 힘써야지 게을리 해서는 안되고, 普漢이는 너의 學業이 兵法이니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당연히 잘 해야 한다. 그러나 萬物의 生命을 함부로 해치는 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지니라”하고, 또 “의복은 그 몸을 따스게 하려고 입는 것이니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해서는 안되며 음식은 허기진 것을 없애려 먹는 것이므로 진미나 색다를 것을 좋아해서는 안될 것이다. 몽가는 이송인의 兒名이고 보한은 李崇文의 兒名이다.”라<sup>43)</sup> 하였으니, 이 글로 보아 이송인은 어머니의 엄격한 훈도 아래 학문에 매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세 (1361, 공민왕 10년)에 南陽洪氏 判尹 師普의 딸과 결혼하였다. 홍 건적이 침입하여 왕이 忠州로 피난을 떠나는 것을 보고, 이송인은 전쟁이 끝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松都로 돌아오라는 堦元을 담은 詩인 <辛丑仲冬大駕南狩>를 지어 어렸을 때부터 시적 재능을 보였다.

16세(1362, 공민왕 11년)에 詩賦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肅雍府 丞에 제수되었다. 얼마 후에 長興庫使가 되었다.

21세(1367, 공민왕 16년) 10월에 왕이 康安殿에서 거행한 大妃의 嘉禮에 갈 때 이송인이 호종하고 시를 지었다. 12월에 太學(成均館) 教授가 되었다. 辛丑년부터 兵禍(二次 紅巾賊)를 입은 이래로 학교도 황폐해졌다. 성균관을 창건했으나 강의할 교수 부족으로 牧隱으로 大司成을 삼고 鄭圃隱으로 博士, 도은과 思隱 文益漸을 敎官으로 삼았다. 金九容, 朴尙衷도 함께 강의했다.

23세(1369, 공민왕 18년)에 進德博士를 겸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색이 고시관이 되어 明의 制科에 응시할 鄉試를 실행하였다. 이때 그도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朴宜中, 權近, 柳伯濡, 金濤 등도 합격하였으나, 도은과 권근은 25세가 되지 않아 제과에 응시할 수 없었고, 金濤가 응시하여 급제하였다.<sup>44)</sup>

43) 『도은집』 권 5 <先大夫人行狀> p. 542, “蒙哥汝既作書生 當力學不倦 普漢汝業武 射御當善 然必戒其妄害物命 又曰 衣服取其暖體耳 不尙華侈 飲食取其無飢耳 不尙珍異 汝輩識之 蒙哥崇仁小字 普漢 崇文小字.”

44) 『牧隱文藁』 권 12, 上札讚.

명나라 태조가 사신을 보내어 천하를 차지했다고 알리니 조정에서는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기로 하고 이송인이 교지를 받들어 표문을 지었다. 사신이 표문을 바치니 明太祖가 “表文의 言辭가 지성스럽고 간절토다”라고 하였다. 이 이후 국가의 외교문서는 모두 이송인이 맡게 되었다. 6월에 李穡과 더불어 貢擧를 주관하게 되어 진사를 뽑았는데 柳伯濡 등 33인을 급제시켰다.

26세(1372, 공민왕 21년) 3월에 교지를 받들어 蜀을 평정한 것을 축하하는 <賀平蜀表>를 지어 올렸다. 왕이 密直司事 洪師範과 司成 鄭夢周를 보내 京師(북경)에 가서 축하 할 때 이송인에게 명하여 表文을 짓게 했다.

29세(1375, 우왕 원년) 정월에 <承襲表>를 지어 올렸다. 4월에 典理摠郎 曺文閣直提學을 제수 받았다. 이송인은 金九容, 鄭道傳 등과 元의 사신을 물리치라는 疏를 올렸다가 李仁任의 모함을 받아 경산부로 유배되었다. 8월 서울(개성)로부터 쫓겨나 돌아오면서 <哀秋夕辭>를 지었다. 또 공민왕이 소상을 맞이해 <九月二十三日>을 지었다.

31세(1377, 우왕 3년) 7월에 조정에 소환되어 成均司成의 직을 받았고, 얼마 후 右司議大夫로 옮겼다. 9월에 鄭圃隱이 일본으로 사절 갈 때 지인들이 시를 지어주는데 그 序文을 썼다. 겨울에 목은 이색이 <陶隱齋記>와 『도은집』에 실릴 跋文을 써 주었다.

35세(1381, 우왕 7년) 정월에 어머니 金氏가 돌아가심에 行장을 지었다.

37세(1383, 우왕 9년) 7월에 藝文館提學에 拜任되었기 때문에 교지를 받들어 <賀節日表>, <陳情表>를 지었다.

39세(1385, 우왕 11년) 9월에 교지를 받들어 <謝恩表>를 지었다. 명나라 周倬과 張溥가 각각 『도은집』의 서문과 발문을 지어주었다.

40세(1386, 우왕 12년) 7월에 賀節使가 되어 明에 다녀왔다. <若有杖歌>를 지었다. 12월 17일 <講衣冠表>를 지어 관복을 하사 받은 은혜에 대해 천자에게 올렸다.

41세(1387, 우왕 13년)에 <賀正表>, <謝恩表>를 지었다. 7일에 金川門을 나서 使命이 끝나고 돌아오며 말 위에서 <正月初七日出自金川門馬上詠懷>를 읊었다. 이 해에 <嗚呼島>를 지었다. <嗚呼島>는 漢 高祖가 천하를 통일하자 田橫과 오백여명이 섬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후에 한고조의 부름을 받고 洛陽으로 가는 도중 자결하자 섬 안의 오백여명이 모두 자살하였다는 고사를 시로 읊은 것이다. 중국 사행길에 지은 이 시는 전횡과 그의 부하들의 절의 정신을 높이 칭송하였다. 서거정의 『東人詩話』에서 목은 이색은 이송인의 이 시와 정도전의 <嗚呼島弔田橫>을 비교하여 “이것은 진짜 가작이다. 그러나 너희들도 넉넉히 할 수 있다. 도은의 시와 같은 것에 이르면 흔하게 구할 수가 없다(牧隱曰 此眞佳作 然君輩亦裕爲之 至如陶隱詩 不多得也).”라고 하여 이송인을 높이 평가하였다.

42세(1388, 우왕 14년)에 書筵에서 『大學』을 進講하였으며, 이 해에 同知司事가 되었다. 이 때를 전후하여 李仁任이 실각되는데, 그는 이인임의 族親이라하여 通州로 유배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곧 소환되어 簽書密直司事를 받고, 李牧隱과 더불어 賀節使에 充備되어 明에 다녀왔다.

43세(1389, 창왕 원년) 正月에 이송인은 牧隱과 더불어 京師(金陵)로부터 돌아와 高侍郎 巽志를 旅館을 방문했다. 고손지가 이송인의 문집의 발문을 지어주었다. 환국하여 藝文館大提學에 임명되었다. 10월에 永興君 環의 眞僞 사건에 연루되어 司憲府의 究問을 당하였다. 12월에 파직되어 京山으로 돌아왔다. 이때 창왕이 폐위됨에 兪思忠 등의 상소로 공양왕이 穡을 長湍으로 유배시키고 曷敏修를 三陟으로 귀양시키고 이송인을 파직시켜 고향으로 보냈다.

44세(1390, 공양왕 원년) 趙胖과 王昉이 京師(北平)로부터 돌아와서 尹彝와 李初가 明帝에게 訴請한 말을 여쭙자 臺諫들이 서로 잇달아 彝와 初의 무리들을 鞫問하라고 소청하여 옥사가 일어나 도은과 이색, 권근 등은 淸州獄에 갇혔으나 천둥과 비가 크게 일어나 풀려났다.

45세(1391, 공양왕 2년)에 겨울에 소환되어 實錄을 命修하였다.

46세(1392, 공양왕3년) 정월에 密直司事를 받고, 4월에 巡軍所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정몽주가 피살된 뒤, 포은의 당이라 하여 順天으로 유배되었다가 정도전의 사주를 받은 黃居正에 의해 杖殺 당했다.

이상에서 이송인의 생애를 연보에 따라 살펴보았다.

<哀秋夕辭>에서 “曩余僅免襁褓兮 動必師乎古之人(저는 강보의 유아기를 지나자마자 언행에 반드시 옛사람을 본받으며)”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송인은 일찍 학문을 시작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시적 재능이 뛰어나 15세에 지은 <辛丑仲冬大駕南狩>가 문집에 실릴 정도로 시인으로서 역량이 돋보였다. 21세 때에는 성균관 學官으로 經學을 강의하여 후학을 양성함은 물론 성리학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이송인의 시에서 경전을 전고로 하여 유교의 덕목인 忠, 孝, 信義를 주제로 한 시가 다수 보인다. 아울러 그는 지나치게 문장을 꾸미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그의 시에 대한 諸家の “清新, 高古, 簡潔”하다는 평에서 증거가 된다. 불교 신자인 어머니의 훈도 아래 자란 그는 승려와 폭 넓은 교유를 하였으며, 그의 문학 작품에서는 불교적인 색채가 드러난다.

이송인은 北元使臣을 영접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귀양을 가고, 이인임의 親戚이라는 讒訴 때문에 通州로 귀양을 가는 등 정치적으로 유배와 복직을 반복하는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다. 도읍집에 실린 시의 연대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의 시 속에서 유배 중에 고통을 읊은 시와 다시 복직 되었을 때의 감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보인다. 이러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 지은 시 가운데 禪的 취향의 시가 보이기도 하였다. 이른 나이에 벼슬길에 올라 처음에는 출세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述懷를 통해 자기의 상황을 위로, 성찰하고, 자연 속에서 한정함을 즐기는 시를 지었다. 또한 그는 일상 속에서 사물을 보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詩的 表現에 있어서 참신함이 돋보이는 시를 지어 시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 2. 交遊關係

陶隱 李崇仁이 어떤 인물들과 교유했는지 『도은집』에 실린 시를 통해서 알아보하고자한다. 한 사람의 교유관계는 그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또 같은 스승을 모신 제자들 간에 문벌이 형성되며 서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어떤 인물과 교유했는지 보면 그 사람의 정치·사회적 인 위치나 사상·학문적 경향도 알 수 있다. 먼저 이송인에게 학문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로 洪彦博(1309~1363), 柳淑(1324~1367), 李穡(1328~1396), 李齊賢(1287~1367), 白文寶(?~1374), 李仁復(1308~1374), 韓脩(1333~1384) 등이 있다. 또한 鄭夢周, 鄭道傳, 河崙, 朴尙衷, 李集, 金九容, 金齊顏, 權近, 朴宜中, 李存吾, 尹紹宗, 廉廷秀, 廉興邦, 金震陽, 宋文中<sup>45)</sup> 등과의 교유로 그 폭이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송인은 명나라 사신인 張溥, 周倬, 高巽志, 일본 사신 慶菊 등과 교유하였다. 도은과 교유한 사람들은 당시 학문적으로 뛰어난 석학이었다.

고려후기 과거에서 심사위원과 급제자 사이 즉, 知貢擧와 급제자가 곧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는데 이들은 부모와 자식 간처럼 친분이 있었다. 이송인은 공민왕 11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知貢擧는 洪彦博(1309~1363)이었고, 同知貢擧는 柳淑이었다. 이송인은 흥언박의 손녀와 혼인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座主와 門生의 관계가 단순히 지공거와 급제자 사이가 아니었고 상당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陶隱集』에 실린 柳淑(1324~1368)에 대한 시로는 <座主思菴先生乞退南歸以詩奉呈><sup>46)</sup>가 있다.

乞退淸秋出玉京    은퇴 청하고 옥경을 나가는 맑은 가을날

45) 梁鎮潮, 「陶隱 李崇仁의 詩世界 研究」,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25.

46) 『陶隱集』 권 2, <座主思菴先生乞退南歸以詩奉呈> P. 236.

子房功業子房行	자방의 공업 이루시고 자방처럼 떠나시네
卜廬地近青山好	푸른 산 가까이 좋은 곳에 터 잡은 초당
戀闕時瞻白日明	대궐 생각에 밝은 해 때때로 쳐다보시리
萬事已同尋舊夢	만사가 옛 꿈 찾는 것과 같게 된 지금
急流方可見真情	급류에서 속마음을 비로소 알 수 있지
載書甚欲從車後	책 싣고 수레 뒤를 따라가고 싶어라
旁舍須教著我生	이웃에서 목숨 붙이고 살 수 있도록

思菴은 柳淑의 호다. 이송인은 좌주인 유숙이 은퇴를 청하고 서울을 떠나는 것을 한나라의 張子房(張良)이 개국 공신이 된 뒤 속세를 떠난 것에 비유하였다. 떠나는 날이라면 당연히 하늘은 흐리고 사람의 마음도 어둡게 마련이다. 그런데 首聯에서 ‘淸秋’라 하여 이별하는 쓸쓸한 느낌보다는 스승의 정신이 드러나도록 떠나는 스승의 모습을 맑게 그려놓고 있다. 곧 가시는 곳이 맑은 곳일 것이며, 임금 그리는 충성심은 여전할 거라는 것이다. 물러나서 산 좋은 곳에 자리 잡았지만 과거에 대궐에서 임금을 뵈던 때를 그리워하며 하늘의 해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어 頸聯에서 급류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물러나 고초를 겪는 유숙의 심경을 이럴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 알 수 있다며, 스승의 忠心을 그리면서 헤아리고 있다. 이송인이 유숙에 대해 품고 있는 존경의 정도는 ‘從車後’, ‘著我生’이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유숙에 대한 만사로 <哀柳淑>이 있는데, 충직한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上宋簽書詩>에서 “제가 京都에 있을 때 목은 선생의 문하에서 노닐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sup>47)</sup>라 한 詩句에서 牧隱 李穡(1328~1396)의 훈도 아래 학문을 닦은 빈도와 깊이를 알 수 있다. <題尙州風詠亭>에 “..송인은 선생(목은)의 문객이다.”<sup>48)</sup>라는 구절에서도 목은 이색의 제자임이 드러난다. 목은 이

47) 『陶隱集』권 2 <上宋簽書詩> p. 252. “崇仁在京都 無日不遊牧隱先生之門”

48) 『陶隱集』권 2 <題尙州風詠亭> p. 169. “崇仁先生客也”

색은 儒學뿐 아니라 佛敎에도 조예가 있었고, 또 역사에도 깊은 識見이 있었다. 그의 문장은 해박하면서도 간결하였고, 典雅하였다. 당시 학자들은 그를 儒宗으로 받들었다.<sup>49)</sup> 그 당시 최고의 학자로 추앙받던 목은 이색은 도은에게 학문적·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목은 이색은 젊은 시절과 50세 이후 懶翁의 문도들과 잦은 교류를 가졌던 계기를 통하여 禪思想과 禪詩에도 깊은 관심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상당한 양의 禪的 詩와 유불조화의 시를 남겼다.<sup>50)</sup> 따라서 그의 제자인 도은에게도 영향이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송인의 시에서 禪趣가 나는 시가 다수 보이는데 본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목은 이색은 『陶隱集』의 跋文을 지었으며, 『牧隱文藁』 <陶隱齋記>에서는 “周公의 마음과 孔子의 사상을 한 몸에 갖추어서 어디서나 나타냈기 때문에 늘그막에 가서 자기의 학문을 자부하던 사람들도 즐겨 그를 찾아 자기들이 배운 바를 바로잡아 주기를 구하였다.”<sup>51)</sup>라고 하면서, 이송인의 인품의 격이 있음과 학문적인 실력이 뛰어남을 인정하였다.

益齋 李齊賢(1287~1367)은 知貢擧가 되어 목은 이색을 뽑았으며 우리나라 문학사의 한 시기를 구획하는데 중요하게 구실을 한 시인이요 문장가이다.<sup>52)</sup> 고려에 도입된 성리학을 白頤正에게 배우고 李穀, 李穡父子를 훈도했다. 이제현은 『櫟翁稗說』에서 經典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높이고, 詞章을 중시하는 사람을 폄하하였다. 이러한 문학관은 도은에게 영향을 끼쳤다. 益齋 李齊賢에 대해서는 『陶隱集』에 그에 대한 挽詞 2수<sup>53)</sup>가 있다. 그 만사에는 “曾叨半面識 更獲一言譽 (예전에 외람되게 반면식을 얻었고, 한마디 칭찬하는 말씀도 들었네)”라고 하였는데, 이제현이 이송인의 학문에 대해 칭찬

49) 申千湜, 『牧隱 李穡의 學問과 學脈』, 일조각, 1998, p.18.

50) 인권환, 「麗末鮮初 佛敎詩論 序說」, 『麗末鮮初漢文學의 再照明』, 太學社, 2003, p.129.

51) 『牧隱文藁』 권4, <陶隱齋記>.

52)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士, 1996, p.171.

53) 『陶隱集』권 2<文忠公益齋先生挽詞 二首> p.182.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도은집에 遁村 李集에게 주는 詩는 <走筆奉寄遁翁>, <寄遁村先生>, <哭遁村>, <題浩然遁村卷後>, <李浩然送唐詩以詩答之> 등이 있다.

漢山南望路透迤 북한산에서 남으로 바라보니 길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有底花時久別離 무슨 일 있기에 꽃 필 때 오래 이별하는고  
二月已過三月盡 이월은 이미 지나고 삼월도 다 가는 때  
苦吟多是憶君詩 괴롭게 읊은 것 대부분이 그대 생각하는 시

劔子傳書慰所思 자제가 서한 전하여 그리운 정 위로하고  
仍携數秩盛唐詩 이와 함께 성당의 시 수 질을 건네기에  
杜門終日高聲讀 문 닫고서 종일토록 큰 소리로 읽었더니  
人道陶齋一段奇 사람들 말이 도재가 한 단계 높아졌다나<sup>54)</sup>

遁村 李集(1327~1387)<sup>55)</sup>이 아들을 시켜 편지와 함께 盛唐의 시인 시집 서너권을 보내 온 것을 받고 지은 시이다. 길이 구불구불하다는 표현에서 친구와 헤어져 있는 마음의 거리와 위치가 요원한 것을 느낄 수 있다. 두 사람은 추위가 지나고 꽃이 피는 계절이 왔는데도 아직도 이별하고 있는 그 상태이다. 이송인이 괴로운 마음을 달래려 짓고 있는 시의 대부분이 李集을 생각하는 시라 한 것으로 보아 서로 마음이 통하는 벗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친구가 보내 준 성당시 수질을 큰 소리로 읽고 한 단계 공부가 진보되었다는 것이다. 이송인은 <送李浩然赴合浦幕序>에서 “우리 두 사람이 거의 떨어지는 때가 없이 날마다 강습과 토론을 일삼았는데 ...”<sup>56)</sup>라 한 것으로 보

54) 『陶隱集』권3 <李浩然送唐詩以詩答之> P.387.

55) 廣州李氏로 이름 元齡, 자 浩然, 호 墨巖齋, 遁村.

56) 『陶隱集』 권 4 <送李浩然赴合浦幕序> P. 488, “自是予二人者率不相離。日以講習討論爲事”.

아 서로 익힌 것을 토론하기를 빈번히 하여 학문적으로 성장하였고,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그 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不見鄭生久	정생을 오래 만나지 못한 지금
秋風又颯然	가을바람이 또 쓸쓸히 불어오네
新篇最堪誦	새로 지은 시편이 가장 암송할 만한데
狂態更誰憐	누가 나의 광태를 다시 예쁘게 봐줄까
天地容吾輩	천지가 우리들을 용납해 주어
江湖臥數年	강호에 누운 지 어느덧 몇 해
相思渺何限	아득히 그리는 마음 어찌 끝이 있으리
極目斷鴻邊	외기러기 나는 하늘가 한없이 바라보네 57)

三峯 鄭道傳(1342~1398)을 생각하며 지은 시이다. 이송인과 정도전은 비슷한 시기에 성균관 학관에 나아가 이색으로부터 학문적·사상적 영향을 받았으며, 그들의 교유가 깊었다.<sup>58)</sup> 이 시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리움을 드러낸 시이다. ‘秋風’은 헤어져있는 쓸쓸함을 더 가중시킨다. 새로 지은 시를 함께 읊으며 주고받을知音이 그리운 것이다. 그 마음을 기러기 나는 하늘을 보며 달래고 있다. 외기러기는 서로 떨어져 있는 각자의 외로운 처지를 상징하기도 한다.<sup>59)</sup>

또 <憶三峯隱者><sup>60)</sup>에서 “落落負餘子 時時思故人(고고해서 다른 이는 등을 돌려도 때때로 옛 벗님은 생각이 나네)”라 하여 다른 벗은 다 등을 돌려도 정도전만은 자기편일 것이라는 믿음이 보인다. 두 사람은 복원의 사신을 물리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유배되기도 하였고, 처음에는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三峯 鄭道傳은 스승인 목은 이색, 존경하던 선배인 정몽주가 택한, 고려왕조를 유지하려는 입장과는 과감하게 결별하면서 도은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sup>61)</sup>

57) 『陶隱集』 권 2 <憶三峯> p. 175.

58) 강혜선, 「고려말 사대부의 교유시 연구 -둔촌, 척약재, 포은, 도은, 삼봉, 양촌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2014.

59) 송준호 평석, 『韓國名家漢詩選 I』, 문헌과 해석사, 1999, p.520.

60) 『陶隱集』 권 2 <憶三峯隱者> P. 108.

이 밖에 외국인으로 명나라 사람인 周倬, 張溥 등과의 교류가 있었다. 親明反元 정책에 뜻을 둔 도은으로서는 명나라 사신과의 관계가 각별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도은집』의 서문을 써 준 周倬(이름은 倬은, 字는 雲章)은 고려에 사신으로 와서 이송인을 만났는데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논하면서 마치 평생토록 사귄 것처럼 하였으며, 단지 서로를 늦게 알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할<sup>62)</sup> 정도로 뜻이 통하였다. 이송인이 지은 시에서는 周倬을 친 형제처럼 느끼며, 학문적 교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知音을 만난 듯이 서로 늦게 알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昔與周雲章  연전에 주운장을 만났을 적에  
 情親重骨肉  친한 정이 골육처럼 중하게 느껴져서  
 把酒賞幽芳  술잔 들며 그윽한 꽃향기도 감상했고  
 論文剪紅燭  붉은 촛불 심 자르며 글도 토론하였다오  
 相逢共恨晚  늦게야 만난 것을 서로들 한탄하였는데  
 歸期何太促  돌아갈 기한은 어찌면 그토록 촉급했는지<sup>63)</sup>

<후략>

張溥는 明太祖가 禍王을 고려 국왕에 봉한다는 황제의 조서를 받들고 왔었는데 그에 대한 전송시로 <送張學錄使還京師>가 있다.<sup>64)</sup> 또한 張溥는 『도은집』의 跋文에 “자안은 덕행이 더욱 드러나고 지위가 더욱 중해지면서 功業이 더욱 높아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후세에 썩지 않고 전해질 것이 어찌 다만 詞章뿐이라고 하겠는가?”<sup>65)</sup>라고 하여 ‘三不朽’라고 일컬어지는 德行, 功業, 立言의 세

61)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론』, 지식산업사, 2002, p.135.

62) 『陶隱集』 周倬 序 p. 8, “洪武乙丑秋九月 僕奉命使高麗 得與子安接見 邂逅之頃 握手論心 若平生契 第恨相知之晚也.”

63) 『陶隱集』 권 1 <龍江舟中有懷北平周參政 名倬字雲章> p. 55.

64) 『陶隱集』 권 2 <送張學錄使還京師> p. 264.

가지를 모두 이룰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을 하였다.

이승인이 지어 준 挽詞를 통해 교유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金克平, 李平齋, 金太常, 李仁復, 趙璉, 徐渙 등이 있다. 이승인이 지는 挽詞는 19首 정도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죽음을 애도하는 挽詩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지은 사람과의 관계도 알 수 있다.

또 교유한 승려로는 木菴<sup>66)</sup>, 倫絕磻, 隱峯, 牧菴, 息谷, 潤雲, 復菴, 贊, 道生, 幻菴, 千峯, 湛 등이 있다. 이승인은 성리학자이지만 승려들과도 폭 넓게 교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불교 성향의 시에서 다시 다루어질 詩인 <題倫上人絕磻松風軒卷><sup>67)</sup>에서 倫絕磻 스님과 以心傳心으로 교유했음을 알 수 있다. 倫絕磻은 목은 이색과도 교유하여 『牧隱詩藁 권九』에 <倫絕磻公見訪三首>가 있다. <題雲上人雪岳詩卷><sup>68)</sup>에서 雲上인과 서로 시를 주고 받았음을 알 수 있다. 幻庵의 제자인 千峯과의 교유도 깊었는데 <千峯詩藁題後><sup>69)</sup>에서 千峯의 시가 오래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고 평하였다. 또한 <偶吟錄奉千峯方外契><sup>70)</sup>에서 千峯선사가 사는 곳의 경치와 詩學의 수준이 높아 서로 교유하였음을 읊었다.

이승인은 당대의 지식층이었으므로 정치적으로 명망이 높은 이들과는 물론이고, 중국의 사신들, 일본의 사신과의 폭 넓은 교유를 하였다. 목은 이색은 당대의 석학이자 스승으로서 이승인의 학문과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외적으로는 親明背元, 안으로는 고려를 지키려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다. 鄭夢周나 李集도 마찬가지로였다. 친구인 鄭道傳은 학문적으로는 함께 동문수학한 사이이지만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 끝내는 정적 관계가 되었다. 중국 사신인 張溥, 高巽志, 周倬은 사신으로 왔을 때 도은과 시를 주고 받고, 학문적인 교류가 깊었음

65) 『陶隱集』張溥 跋 “自此行益顯位益重 功業益以隆 則所以垂不朽者 豈但詞章云乎哉.”

66) 『陶隱集』 권 1 <次木菴師韻師連賦兩篇效古人體> p.32.

67) 『陶隱集』 권 1 <題倫上人絕磻松風軒卷> p.33

68) 『陶隱集』 권 3 <題雲上人雪岳詩卷> p.341.

69) 『陶隱集』 권 5 <千峯詩藁題後> p.547.

70) 『陶隱集』 권 2 <偶吟錄奉千峯方外契> p.193.

을 그들이 남긴 評이나 詩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성리학자였지만 스님들과 시를 주고 받고, 시권에 시를 써서 주기도하며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이승인의 시에서 보면 스님들의 거처의 경관을 표현하거나, 스님의 수행과정을 읊어 스님들과 같이 높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싶어했다. 자신도 속세를 벗어나고 싶은 의지를 표명했으나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 III. 陶隱의 文學意識

이 장에서는 이송인의 漢詩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작품에 녹아 있는 그의 문학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고려 말은 성리학이 고려에 유입되어 정착되는 시기였기에 대표적인 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도은에게 있어서 성리학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성리학은 安珣(1243~1306)이 忠肅王 16년(1290년)에 元나라에 가서 朱子書를 抄錄해 오고, 白頤正(1247~1323)이 10년간 元나라에 머물며 二程子(程顥·程頤)·朱子書를 배워 온 후부터 고려에 유입되었다. 이후 李穡이 成均大司成으로, 鄭夢周와 李崇仁이 學官으로 있을 때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sup>71)</sup> 따라서 이송인의 사상과 문학에 성리학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그러나 이송인은 별도로 성리학에 대한 전문 저술을 남기지 않았고 아울러 여타의 작가와는 달리 자신의 문학관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낸 작품을 찾기 쉽지 않다. 이 장에서 ‘이송인의 문학의식’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학관’이라고 하는 다분히 무게감 있는 표현으로 그의 문학에 대한 관점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그의 詩나 文에 드러난 내용과 諸家の 평을 통해 그의 문학의식의 일단을 살피고자 한다.

曩余僅免襁褓兮	저는 강보의 유아기를 지나자마자
動必師乎古之人	언행에 반드시 옛사람을 본받으며
惟仲尼之垂訓兮	중니께서 가르침을 내리신 대로
殺身以成仁	온몸 바쳐 인을 이루고자 하였고
志士不忘在溝壑兮	지사는 구학에 있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子興味夫斯言	이 말씀을 자여처럼 음미하곤 했나이다 <sup>72)</sup>

71) 李炳赫, 「려말한문학의 주자학적인 경향에 대하여 -도은 이송인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제 10집』, 1985, p. 64.

72) 『陶隱集』 권 1 <哀秋夕辭> p.22.

北元의 사신을 물리치고 명과 친선을 도모하자는 상소를 올렸다가 의견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배되었을 때 지은 <哀秋夕辭>의 일부이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옛 사람을 스승삼아 매진하였는데, 특히 공자의 仁을 실천하는데 힘을 썼다고 하였다. 이송인은 자신이 공자의 중심 사상인 仁을 실천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孟子처럼 志士의 정신을 잊지 않는 儒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문학 작품의 창작 태도 역시 孔子를 따르고자 했다.

三百篇 『詩經』은 詩家의 宗祖이다... 또 “시 삼백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시에 대한 최고의 논평이다. 그런데 詩道가 극도로 변한 가운데, 논하는 자들이 왕왕 情性에 근본하지 않고서 오직 한 구절 한 글자의 잘되고 잘못됨만을 찾게 되었으므로, 내가 이를 병통으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아, 시가 허위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어수룩한 남자를 읊은 시(氓之蚩蚩)를 보면 淫泆의 정을 숨길 수가 없고, 孟德의 短歌를 살펴보면 찬탈하려는 음모를 엿볼 수가 없다. 그러니 시가 나오는 것이 情性에 근본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속에 차 있으면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말이 참으로 그렇다고 하겠다...아, 학문에 공을 쌓아 마침내 思無邪의 경지에 이른다면, 詩는 논하고 말 것도 없을 것이다.<sup>73)</sup>

이송인이 金可行에게 준 글의 일부다. 이송인은 이 글을 통해 시의 가장 모범으로 삼을만한 것이 『詩經』이고, 공자가 언급한 ‘思無邪’에 이르게 되는 것을 시의 최고 경지로 여겼으며, 시경에 대한 공자의 논평으로 후학을 가르치려 했음은 물론 자신의 창작태도에도 반영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劉勰(465~521)은 『文心雕龍』에서 “옛날 『詩經』 안에 있는 시를 지은 시인들은 情에서 우러나와 글을 지었다...『詩經』은 마음에 품은 뜻과 깊이 쌓인 슬픔이 우러나온 것이다. 情에서 우러나와 쓴 글은 사람에게 긴요하면서도 절실하고, 쓰기 위해서 쓴 글은 수식에 치우치고 지나치다.”<sup>74)</sup>라고 하였다.

73) 『陶隱集』 권 5 p. 545. <題金可行詩藁後> “三百篇爲詩家宗祖...又曰 詩三百 一言蔽之 曰思無邪 此論詩之至也 詩道之變極 而論者往往不本於情性 惟一句一字之工拙是求 余之病此久矣 嗚呼 詩不可以僞爲也 氓之蚩蚩 不能掩淫泆之情 孟德短歌 不能掩篡奪之謀 曾謂詩之發不本於情性乎...積於中形諸外 信哉 嗚呼學問之功 卒至於思無邪 則詩不足論也.”

이승인도 역시 感情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쓰는 시가 절실한 시이며, 진정한 시라고 생각하였다. 이승인은 ‘性情’이라 하지 않고 ‘情性’이라 하여 ‘情’을 강조하였다. 情이란 느낌을 받고 생긴 것으로, 대상으로 말미암아 감화를 받은 것이다.<sup>75)</sup> 목은 이색은 이승인의 이와 같은 창작 태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의 한시를 매우 높이 평가했는데 “사람들에게 情性の 바름을 느끼게 하여 샅됨이 없는 경지로 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sup>76)</sup>라 하여, ‘情性’이라는 표현을 썼다.

劉若愚는 『중국시학』에서 “도덕가들과 개성주의자들의 또 다른 점은 시와 사람의 정(情緒)과 성(本性)과의 관계에 있다. 도덕가들은 시라는 것이 인간의性情과 관계된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관한 시의 ‘功效’를 강조한다... 개성주의자들은 이렇게 표시되는 정서와 천성이 도덕적으로 고양되든 않든 간에 시에 있어서 정과 성의 표현을 중시한다.”<sup>77)</sup>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승인은 ‘性情’이라 하지 않고 ‘情性’이라 하여 ‘情’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情性’을 기반으로 한 개성주의 문학론을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78)</sup>

아래 시에서 유가의 道를 문장보다 중시하는 이승인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전략>

典謨含元化	《서경》의 전모는 원화를 머금고 있고
雅頌諧鏗鏘	《시경》의 아송은 악성을 조화시키는데
奈何操觚子	어찌하여 이 사람은 글 좀 쓴답시고
雕篆愁腎腸	조전 따위로 마음속을 괴롭히는고 <sup>79)</sup>

<후략>

74) 「情采篇」, 前同 pp. 216~217. “昔詩人什篇 爲情而造文...蓋風雅之興 志思蓄憤而吟詠情性...故爲情者 要約而寫眞 爲文者 淫麗而煩濫.” 劉若愚 著, 李章佑 譯, 『중국시학』, 명문당, 1994, p. 131. 재인용.

75) 吳戰壘 著, 유병래 역, 『중국 시학의 이해』, 2003, 태학사, p.22.

76) 李穡, 『陶隱集』跋, “足以感人情性之正 而歸於無邪矣.”

77) 劉若愚 著, 李章佑 譯, 『中國詩學』, 명문당, 1994, p.124.

78) 梁鎮潮, 「陶隱 李崇仁의 詩世界 研究」,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39.

79) 『陶隱集』 권 1 <秋夜感懷 7> p. 41.

일찍이 李齊賢은 經典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을 ‘經明行修之士’라 하고, 詞章을 공부하는 사람을 ‘彫蟲篆刻之徒’라 폄하하였다.<sup>80)</sup> 이송인 역시 문장 공부에만 치중하는 당시의 선비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鄭道傳은 이러한 이송인의 생각을 깊이 인정하면서 “그가 저술한 詩와 文 약간 편을 보더라도 『詩經』의 比興과 『書經』의 典謨에 뿌리를 두었으며, 和順함이 안에 쌓여서 榮華로 발한 그것 역시 모두가 禮와 樂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니, 도의 경지에 깊이 들어간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sup>81)</sup>고 하였다. 한편 이송인의 작품 가운데 시경의 전고를 인용하여 엮어 내려간 시들이 많이 보인다. 이는 그가 유가 경전인 『詩經』에 침잠했으며, 자유자재로 창작에 반영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래의 글은 명나라 사신 周倬이 『도은집』에 써 준 서문의 일부다.

...그는 부귀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고서 언제나 공무를 마친 여가에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채 性情을 함양하려 노래하였다...그가 그동안 지은 시를 꺼내어 나에게 보여주기에 읽어보았더니 가슴속이 시원하게 트이는 것 같았다. 그 文辭는 모두가 화려하면서도 들뜨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촌스럽지 않았으며, 和平한 가운데에서 奇麗함을 발하고 嚴整함 이외에 優柔함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스승을 높이고 친우를 친애하는 뜻이 言外에 흘러넘치고 있었다.<sup>82)</sup>

앞서 예시한 글과 같이 이송인의 시는 끊임없는 성정함양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글이 소박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아울러 忠, 交友, 尊師 등 유교의 덕

80) 李齊賢, 『櫟翁稗說』 “...將見彫蟲篆刻之徒 盡爲經明行修之士矣.”

81) 鄭道傳, 『陶隱集』序 “所著述詩若文若干篇 本於詩之比興 書之典謨 其和順之積 英華之發 又皆自禮樂中來 非深於道者能之乎.”

82) 周倬, 『陶隱集』序 “不以富貴介其意 每公暇之餘 卷不釋手 涵泳性情 發爲詩篇 或五七言律詩 古詩 或樂府絕句 積若干首 洪武乙丑秋九月 僕奉命使高麗 得與子安接見 邂逅之頃 握手論心 若平生契 第恨相知之晚也 他日 出所作詩見示 讀之令人襟度灑然 其辭皆華而不浮 質而不俚 發奇麗於和平之中 寓優柔於嚴整之外 且忠君愛國隆師親友之意 溢於言表”

목을 중시하는 이송인의 태도를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송인이 문장 수식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위 글에 나타난 것처럼 이송인의 시는 화려하고奇麗하다고 한다. 이는 기교가 있었다는 말과 통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생각의 바탕에 儒家의 德目이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들뜨지 않았고, 소박하면서도 촌스럽지 않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천품이 영특하고 고매한 위에 학문이 또 정밀하고 박식하였으며, 濂洛의 性理學에 뿌리를 두고서 經史子集과 百家의 글에도 관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조예가 깊을뿐더러 식견이 더욱 높아 정대한 영역에 우뚝 섰으며, 佛敎와 老莊의 학설에 대해서까지도 옳고 그름을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를 펼쳐서 文辭를 지으면 高古하고 雅潔하고 卓偉하고 精緻하였으며, 古律과 併儷까지도 모두 절묘한 경지를 보여주면서 법도가 정연하였다. 그래서 韓山의 牧隱 李穡 李文靖公이 언제나 경탄하며 이르기를, “이 사람의 문장은 중국에서 찾아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많이 구할 수 없을 것이다. 海東에 文士가 있는 이래로 그와 짝할 만한 사람은 드물다”...<sup>83)</sup>

이송인의 시는 성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는 老莊의 학설까지도 두루 익혔다고 밝히고 있다. 학식이 높아서 그것을 글이나 시로 표현해 내면 그 품격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積於中 形諸外’라 하였듯이 여러 가지 사상을 두루 익혀 文으로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雅潔하다는 것은 공자가 강조한 ‘無邪’와 통한다 하겠다. 스승인 목은 이색이 ‘海東에서 제일’이라고 칭찬할 만큼 이송인의 시가 우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송인의 시에서 老莊 사상이 드러난 것은 數적으로 많지는 않다. 그러나 몇몇 시에 丹丘, 大藥, 神仙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노장의 학설도 익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3) 權近, 『陶隱集』序, pp.16~17. “星山陶隱李先生 生於高麗之季 天資英邁 學問精博 本之以濂洛性理之說 經史子集百氏之書 靡不貫穿 所造既深所見益高 卓然立乎正大之城 至於浮屠老莊之言 亦莫不研究其是否 敷於文辭 高古雅潔 卓偉精緻 以至古律併儷 皆臻其妙森然有法度 韓山牧隱李文靖公 每加歎賞曰 此子文章 求之中國 世不多得 自有海東文士以來 鮮有其此者也”

또한 이송인은 시 짓는 것을 자신의 내면에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송인의 시 중에 자신의 어려움을 시로 풀어 낸 구절을 다수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여창에서 새벽에 일어나 홀로 잔을 기울이니 얼근히 취기가 돌았다. 이에 붓을 잡고 감회를 기록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위로하려 함이었다. 그러고는 무릎을 어루만지며 길게 읊조리면서 다시 슬픔에 젖어들었다. 아, 일 년 사이에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이 몸 또한 유락하였으니, 한 세상을 통틀어서 나처럼 운명이 기박한 자가 어찌 또 있겠는가. 비록 그렇긴 하지만 칠원수는 동이를 두드렸고, 동문오는 근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굳이 옛사람의 일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내 마음을 달래보려는 뜻에서이다.<sup>84)</sup>

世貿貿莫余知兮 世상이 무지해서 나의 뜻 모르니 어떡하나  
庶憑辭以自通 노래나 한 수 읊어 답답함 혼자서 풀 수밖에 <sup>85)</sup>

長嘆復長嘆 아 한숨 쉬며 끝없이 길게 탄식하다가  
吐此辛苦辭 쓰라린 이 노래를 토해 내게 되었다오<sup>86)</sup>

那堪更牢落 허전한 이 마음 어떻게 달랠거나  
索紙且題詩 종이 찾아 시 한 수 지을 수밖에<sup>87)</sup> 삼

<哀秋夕辭>나 <效孟參謀>에서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는 세태를 비판하는데 시를 지어 현실의 상황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회포를 풀기도하였다. <十月二十七日雨>에서는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과 아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달래는 방편으로 詩作을 택하기도 하였다.

劉若愚는 『中國詩學』에서 王士禛(1634~1711)의 말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84) 『陶隱集』 권 2 <旅窓晨起 獨酌醺然 攬筆書懷 用以自怡 撫膝長吟 且復悲惋 嗚呼浹歲之間 妻亡子歿 身又流落 一世之窮 豈有如僕者哉 雖然 漆園叟鼓盆 東門吳不憂 勉思故人 亦用自寬> p. 218.

85) 『陶隱集』 권 1 <哀秋夕辭> p.24.

86) 『陶隱集』 권 2 <效孟參謀> p.45.

87) 『陶隱集』 권 2 <十月二十七日雨> p.147.

“詩作은 단순한 연구만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영감은 계기가 성숙되었을 때 얻게 된다는 것과, 단순한 모방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sup>88)</sup> 인용한 이송인의 詩句에서 드러나듯이 의도적으로 시를 지었다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시가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송인의 시 중에 이와 같이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읊은 것을 다수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생일을 축하<sup>89)</sup>하는 시라든지 백세가 된 노인에 대해 기록한<sup>90)</sup> 시를 보면 직관적, 즉흥적으로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송인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일찍 세상에 나아갔으나 정치적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유배와 복직을 반복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러한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詩作을 택한 것이다.

爲愛新晴倚草亭	맑게 갠 날 하도 좋아 초정에 올라 기뻐더니
杏花初結柳條青	살구꽃은 봉오리 맺고 버들가지는 푸릇푸릇
詩成政在無心處	시는 정녕 무심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법
枉向塵編苦乞靈	옛날 책 뒤지며 구차히 영감을 구해서야 <sup>91)</sup>

<新晴>이라는 이 작품에 대해서 金宗直은 “이 시의 뜻은 이렇다. 謝靈運의 ‘春草...’ 詩句와 陶淵明의 ‘采菊...’ 시는 모두 경물과 뜻이 부합되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지 어찌 구구하게 옛 사람들이 엮어 놓은 말에서 영감을 구걸했겠느냐는 것이다. 이 시는 공이 자부하는 작품이다.”<sup>92)</sup>라고 말하였다. 이 시에서 “無心處”에서 시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金宗직이 말한 “경물과 뜻이 부합되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은 일맥상통한다.<sup>93)</sup> 이송인은 이처럼 시를 지음에

88) 劉若愚 著, 李章佑 譯, 『중국시학』, 명문당, 1994, p.156.

89) 『陶隱集』 권 2 <自壽> p. 95.

90) 『陶隱集』 권 2 <尹憲叔來言錦之禮賢驛有龍家嫗者龍家即其子也...> p.227.

91) 『陶隱集』 권 3 <新晴> p. 369.

92) 金宗直, 『靑丘風雅』 권 7, “詩意謂 靈運春草之句 淵明采菊之詩 俱是景與意會 偶然成文爾 豈區區乞靈於古人之束語哉 此公自負之作.”

93) 송재소, 「陶隱 李崇仁의 詩文學」, 『麗末鮮初漢文學의 再照明』, 太學社, 2003, p.479.

인위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와 자연스럽게 짓는 것을 진정한 시라고 여겼다. 그런 시는 質朴하며 들뜨지 않은 시라고 할 수 있다. 轉句에서 시를 어떻게 지어야하느냐에 대한 이송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송인의 시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유학 경전을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문장을 꾸미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의 글이나 제가의 평을 통하여 볼 때 이송인의 시에 성리학적 경향이 드러나지만, 조선의 성리학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성리학적 가치를 드러내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文以載道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를 문학 작품에 엄밀하게 적용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송인은 자신의 문장력을 십분 발휘하여 외교 문서를 도맡는 등, 당대의 문장가로 명성이 있었다. 이로 본다면 이송인은 문장의 조탁에 힘을 기울이는 태도는 배척했으나, 후대의 성리학자들처럼 문장을 말기로 여기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송인은 당시의 신진학문인 성리학에 뿌리를 두고 연구하고 글을 지었지만 위의 글에서 보듯이 佛敎와 老莊의 학설도 궁구하였다. 고려는 國敎가 佛敎였으므로 性理學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였던 때였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불경소리를 듣고 자란 이송인의 內面에 佛敎思想이 자리 잡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 곳곳에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 있다.

이송인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現實에서 승려들과 교유하면서 자신도 그들과 같은 맑은 정신 경계를 갖기 원했다. 禪宗이 득세한 고려 말의 시대상의 영향으로 이송인의 시에도 불교적인 禪이 詩化된 양상이 드러난다. 성리학이라는 신진학문이 들어왔어도 이미 정신계에 깊숙이 자리한 지존의 思想이나 思惟가 일시에 극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儒者 측으로 일컬어지는 文人이나 學者들의 시론이나 작품에서 禪詩論적 측면은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sup>94)</sup> 따라서 이송인의 시 가운데 불교적 경향이 드러난 시에

는 禪趣가 드러나는 작품이 다수 있다.

순수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에 長處를 두어 “詩에는 陶隱”이라는 당대 평가를 받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

94) 인권한, 「麗末鮮初 佛教詩論 序說」, 『麗末鮮初漢文學의 再照明』, 太學社, 2003, p.114.

## IV. 陶隱의 詩世界

『陶隱集』에 실려 있는 漢詩는 卷1~3에 337題 446首이다. 五言絶句, 七言絶句, 五言律詩, 七言律詩, 六言絶句, 古詩, 辭로 이루어져 있으며, 『東文選』, 『靑丘風雅』, 『箕雅』, 『大東詩選』 등에도 실려 있다. 당대의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선두에 서 있던 李穡, 鄭道傳, 權近과 중국 명나라의 사신인 張溥, 高巽志 周倬이 序跋文을 쓴 것만 보아도 이송인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당대 최고의 시인이라 일컬어진 만큼 이송인의 시는 그동안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이송인의 시 가운데 충절을 읊은 시, 유교적 세계관을 표출한 시, 죽음을 애도한 挽詩, 누각과 정자에서 지은 樓亭詩 등은 이송인의 당시의 정치적 입장, 역경이나 상황, 교유관계 등을 잘 알 수는 있겠으나, 시인으로서의 진면목을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을까 한다.

본장에서는 첫째 불교적 성향을 띤 시, 둘째 영물을 통해 내면을 표현한 시, 셋째 자신의 회포를 풀어쓴 시로 나누어서 詩的인 美와 순수 시인으로서의 정서적인 면모와 感受性을 보려한다.

### 1. 佛敎認識과 禪趣的 경향

#### 1) 佛敎에 대한 認識

고려가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수입한 것은 13세기 말이다. 안향에 의해서 수입된 성리학은 白頤正, 權溥, 禹倬 등에 의해 초보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李齊賢에 의하여 經學, 文章學과 性理學의 會通이 이루어진다.<sup>95)</sup> 이제현, 이곡, 이인복 등의 훈도를 받은 이색, 이송인, 정몽주 등의 신진학자들이 성리학을 공부했다. 정도전과 같은 사람은 성리학을 새 시대를 여는 사상의 조류로 인식하여, 불교를 배척 하였으며, 목은 이색이나 이송인은 성리학을 수용하면서도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이와 같은 두 성향으로 당시 지식인의 불교에 대한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도은집』 <先大夫人行狀><sup>96)</sup>에 “鷄初鳴 盥櫛而坐 誦金剛般若經華嚴行願品 爲日程焉 (어머니는 새벽에 닭이 처음 울면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서 단정히 앉아 『金剛般若經』과 『華嚴經』 「行願品」을 외우는 것으로 일정을 삼곤 하셨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송인은 佛心이 깊은 어머니의 훈육을 받고 자랐으며, 자연스레 불교를 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이송인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목은 이색과 같은 문인 또한 그랬을 것이고, 불교를 배척했던 정도전이나 성리학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정몽주까지도 승려와 친분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면, 그만큼 고려 사회 전반에 불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송인은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시에 성리학과 불교의 관점을 동시에 드러내었다. 이는 아래의 <題倫上人絕磻松風軒卷><sup>97)</sup>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冷冷絶磻水    차디찬 절벽 아래 시냇물은  
 落此松風軒    떨어지네 이곳 바로 송풍헌으로  
 磻水源流活    시냇물은 근원부터 활기찬데  
 松風晝夜喧    솔바람은 밤낮으로 조용할 때 없네  
 初疑奏天樂    처음엔 천상 음악 연주하나 싶었는데

95) 金忠烈, 『高麗儒學史』,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4, p.170.

96) 『陶隱集』 권5 <先大夫人行狀> p.542.

97) 『陶隱集』 권1 <題倫上人絶磻松風軒卷> p.33.

復似韶濩音 다시 들으니 소호 음악과 비슷하기도  
 上人跏趺坐 우리 스님 가부좌 틀고 앉아서  
 和以沒絃琴 줄 없는 거문고로 화답 하시네.

倫絕磻의 송풍헌에서 윤절간의 인품을 닮은 듯한 공간의 정경을 읊은 것이다. 頷聯의 ‘磻水源流活’은 주희의 <觀書有感><sup>98</sup>에 ‘爲有源頭活水來(근원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한 구절을 연상하게 한다.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솟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면 수양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인데, 이 작품에서 그와 같은 윤절간의 모습을 비겨놓고 있다. 이어지는 구절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은 자연 현상이면서, 수양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다. 승려인 倫絕磻이나 사대부인 이송인은 다른 길을 가지만, 지향하는 바가 같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頸聯의 서술 역시 성리학과 불교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 송풍헌 절벽아래 시냇물 떨어지는 소리와 솔바람 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듯하다. 여기에서 천상의 음악을 자연의 지극한 경지로 여겨서 불교적 세계로 표현하였다. 음악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천상의 음악’은 불법의 온전한 구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송인은 이를 ‘韶濩의 음악과 비슷하다’고 하였다.韶는 순임금의 음악이며,濩는殷나라湯王의 음악이다. 두 임금 모두 유가의 이상적인 군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이송인은 이 둘을 등장시키면서 유가적 이상의 완성이 불법의 구현과 다르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다.

자신은 시를 써서 승려 윤절간의 승려로서의 면모를 읊고, 승려인 윤절간은 ‘줄 없는 거문고’로 화답한다. 以心傳心, 不立文字를 내세우는 禪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송인은 성리학과 불교에 대해 굳이 우열

98) 『宋詩鈔』 권 60 “半畝方塘一鑑開，天光雲影共徘徊。問渠那得清如許，爲有源頭活水來。”

을 두지 않고, 돌을 조화하려 하였다.

한편,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작품도 있다.

聞道旃檀木    듣건대 전단 향나무 조각 불상이  
浮來自罽賓    서역의 계빈 나라에서 떠내려 왔다고  
土風尊像教    이 땅의 풍속이 불교를 숭상하는지라  
香火化都人    향불을 피워 도성 사람들 유인했다네  
邪說誠難息    사설을 참으로 없애기 어려워서  
斯文久未伸    사문을 오래도록 펼 수 없었지  
今來閉虛殿    지금은 텅 빈 채 폐쇄된 전각  
恐是沒兵塵    아마도 병진 속에 파묻혔을 듯<sup>99)</sup>

首聯은 이송인이 전해들은 말이라고 했지만, 비판 의식 없이 불교를 맹신하는 사회 풍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怪力亂神’을 배격하는 유가적 사고 방식으로는 이러한 전설은 미신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작품 전체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 승려들은 불교의 본고장 서역에서 온 향이라는 말로 사람을 속인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이므로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 버린다. 사대부인 이송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邪說이고, 유가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것일 뿐이다.

尾聯의 서술은 이와 같은 사설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 맹목적인 믿음의 결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토록 영험이 있다면 전각은 폐쇄되지 않아야 하고, 전란에도 온전히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송인은 이 서술을 통해 불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회 전반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러한 상황은 불교 교리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도 邪說로 백성을 호도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성이 강하다. 고려 말 佛教가 이

99) 『陶隱集』 권2 <題旃檀殿 (後爲僧漫去)> p.109.

미 쇠퇴해지면서 邪說이 난무하는 세태를 지적하는 것이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儒敎, 곧 性理學으로 정신적 무장을 해야함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래의 작품도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念念循環無盡期	끝날 기약도 없이 돌리고 돌리는 염주여
茶房酒肆也相隨	차집이든 술집이든 늘상 모시고 다니누나
問師百八彌陀佛	묻노라 스님이여 일백팔 아미타불 중에
那箇彌陀解道帥	어느 아미타 부처님을 대장으로 모시는지 <sup>100)</sup>

염주는 염불을 하는 도구이며 수행의 도구로 스님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 수행에 정진해야할 스님들이 차집과 술집으로 다니고 있다. 이송인은 이 두 구를 통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당시 불교 교단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이송인이 비판한 불교는 ‘불교자체’가 아니라 자정 능력을 상실한 불교 교단이며, 맹목적으로 불교를 따르는 사회 풍조라는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불교의 긍정적인 의식은 버리지 않았으며, 그 자신 불교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송인의 불교에 대한 비판은 불교의 사회적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崧陽宮殿綵雲邊	송도의 궁전에 오색구름 영롱한데
龍象潮音振法筵	용상의 조음이 법연에 떨치도다
海藏傳將開大寶	해장을 봉헌하여 대보의 시대를 열고
琅函緋閱結良緣	불경을 열람하며 좋은 인연 맺었노라
光明普照三千界	부처의 광명은 삼천 세계를 두루 비추고
曆數相承五百年	하늘의 역수는 오백 년을 이어 왔도다
初政冀蒙方便力	처음 정사에 불보살의 방편의 힘입었는데

100) 『陶隱集』 권3 <戲賦一師念珠 百八類> p.365.

更教朝野得安眠      다시 조야가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sup>101)</sup>

우왕의 분부를 받들어 지은 시이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에 조정에서 불교를 중요시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궁전이 綵雲속에 있다고 표현하여 시각적 화려함과 참석한 승려들의 독경 소리로 청각을 자극하면서 이 법회는 매우 성스럽고 성대하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龍象’은 고승을 뜻하며, ‘潮音’은 불보살의 아름다운 음성을 뜻한다. 삼천세계는 불교의 광활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시 전체에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용어를 시어로 사용하여 고려는 佛法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 그 중에서도 국왕은 그 불법을 구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이송인의 불교를 보는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처음 고려 왕조 시작을 佛教를 국교로 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다시 부처의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듯 朝野에도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하로서 호국의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이 시는 대장경 독송을 찬미한 詩로 왕의 불교적 성향에 맞추어져 지어졌겠으나 자신의 불교적 의식도 잘 드러내면서 충성스런 신하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유불의 정신세계가 융합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하다.

桐師與巖遁    경 스님과 암둔을 말해보자면  
俱是愛名山    모두가 명산을 좋아하는 분들  
說法天花落    불법을 설하면 하늘 꽃 내려  
觀空世界閑    공으로 세계 보면 한가롭구나<sup>102)</sup>

<후략>

이 작품에서는 불교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다. 부처가 설법을 할

101) 『陶隱集』 권2 <藏經音讚詩 乙卯春奉教製> p.241.

102) 『陶隱集』 권2 <題桐師卷仍戲巖遁朴先生 朴免> p.174.

때 하늘에서 만다라화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시로 읊었으며 불교의  
 空사상을 이해하면 정신세계가 한가로와 진다는 것이다. 峒스님과 巖遁 朴免  
 先生이 佛道를 깨친 것을 칭송하면서도 이송인 자신도 불교의 묘리를 깨우쳤  
 음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다.

功德山僧號覺贊	각빈이라는 이름의 공덕산의 승려가
山中勝事說生津	산중의 멋진 일을 침 튀기며 얘기하기를
一間蘭若元非世	한 칸의 절 원래부터 세속과는 무관한데
四箇如來最是神	네 분의 여래는 어디보다 영험하다고 <sup>103)</sup>

<후략>

복을 구하려는 자들이 많이 와서 공덕산이라 불린 그 산의 큰 바위에 여  
 래상 네 개가 새겨져있다. 이 여래가 가장 영험이 있다고 한다. 승려의 말을  
 빌려 쓴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상은 이송인도 그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불  
 교의 종교적 관점에 대해서도 긍정하고 있다.

이송인은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고 벼슬을 하다가 사회적 상황에  
 의해 벼슬할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속세와 떨어져 있는 사찰을 찾게 되었  
 다. 불우한 정치적 상황을 맞이한 그는 사찰에서 세상살이에 지친 심신을 달  
 래고자 하였다. 나아가 속세를 떠나 사찰에서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  
 냈으며, 자신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지닌 입신에 대한 열망이나 물욕을 버  
 리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고려 말의 정치적 상황이 날로 복잡해지면서 이송인은 관료로서의 입지도  
 더욱 어렵게 되어 벼슬을 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불우한 상황  
 을 더 많이 겪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자연스럽게 현실 상황을 떠나 세상을  
 등지고 산사로 찾아들고 승려들과의 교유가 잦아지면서 그의 시에 불교적 색

103) 『陶隱集』 권2 <送贊上人還山> p.261.

체가 더욱 농후하게 드러난다.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송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불교에 의지하여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이송인이 유배를 갔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할 때 즈음에 지은 작품에서 현실과 절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갈등의식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갈등상황을 사찰을 찾아 스님들과 교유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도 한다.

無才堪世用 세상 쓰임 될 만한 재주 없으니  
絕意鬪年芳 고운 봄꽃 다툼 생각 전혀 없도다  
藥圃風初暖 약포엔 바람결이 처음 따습고  
書窓日漸長 서창 햇빛 점차로 길어지는데  
要僧分水石 스님 따라 노닐며 승경을 나눠 갖고  
見客置壺觴 나그네를 만나면 술자리도 갖는다오  
寫得閑居賦 閑居賦 하나 베껴 써놓고  
聊因扁草堂 그런대로 초당에 걸어놓는다<sup>104)</sup>

首聯에서는 이송인 자신이 세상의 쓰임이 될 만한 재주가 없다는 자조적 한탄으로 시작하여 고운 봄꽃을 다툼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고운 봄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벼슬, 혹은 재주 좋아 벼슬하는 젊은 혈기를 이르는 것으로 자신은 재주가 없으니 벼슬자리를 다툼 이유가 없다. ‘絕意’라고 하여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강하게 자신을 다지는 속마음이 읽혀지는 표현이다.

頷聯과 頸聯에서는 속세와 단절한 이후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봄바람이 따뜻해지며 해도 점점 길어지는 계절이 오면 스님따라

104) 『陶隱集』 권2 <山居卽事 次民望韻> p.165.

편히 유람하며 즐기고, 풀나라 潘岳이 지은 <閑居賦>를 베껴 초당에 걸어 놓고 싶다고 하였다. 속세에서는 벼슬을 중시하지만, 이곳에서는 ‘한가함’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과 자꾸 어긋나서 벼슬을 그만두고 현실과 거리를 두려는 의지는 <남악의 총 선사 방에 제>한 시에서<sup>105)</sup>와 <현암에게 봉증>한 시<sup>106)</sup>에서 각각 ‘休官便此還’, ‘何時謝簪紱, 香火共禪龕’이라 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선사의 방으로 오고 싶다고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溪上靑山山上松	시내 위엔 푸른산 산 위엔 소나무
禪師方丈最高峯	선사의 방장은 가장 높은 봉우리
天仙禮拜却歸去	바로 돌아가서 천상의 선인에게 예배하고
坐瞰人寰如蠅封	개밋둑 같은 인간 세상 앉아서 굽어보리 <sup>107)</sup>

푸른 산과 그 산 위의 사철 푸른 소나무를 통해 이해득실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속세 사람과는 다른 승려의 기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승려의 거처가 있다고 함으로써 최고의 가치는 속세에 있지 않고, 그곳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승려를 보내면서 높은 수준의 정신경계를 지닌 사람임을 칭송하고 있다.

또한 起句에서 ‘溪’, ‘靑山’, ‘松’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맑고 高古한 이미지를 더해주면서 개밋둑과 같은 속세와는 대비되는 세상을 그려 놓고 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속세는 개밋둑과 같이 보잘 것 없다. 따라서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 역시 보잘 것 없고, 부질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껏 개밋둑 속에 살고 있었음을 새삼 깨닫는다. 이송인은 이 시를 통해 승려의 높은 정신경계를 찬미하면서 자신 역시 그러한 정신세계를 지향하

105) 『陶隱集』 권2 <題南嶽聰禪師房 次林先生韻> p.129.

106) 『陶隱集』 권2 <奉贈顯菴> p.188.

107) 『陶隱集』 권3 <送僧> p.328.

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且問潤雲老 문노니, 운운 노스님  
飄然何處歸 표연히 어디로 돌아가는지?  
孤征猿鶴導 학과 원숭이 인도하는 외로운 산길  
舊隱薜蘿垂 벽라 덩굴 뒤엉킨 옛 은거지라오  
漠漠塵區隘 티끌 자욱한 비좁은 이 속세에서  
紛紛世事違 뜻대로 안 되는 분분한 세상의 일  
吾生亦淡蕩 나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인데  
只愧拂衣遲 훌훌 떨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기만<sup>108)</sup>

佛家에선 수행자들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修行의 근본으로 삼았다. 거처를 정해 머물게 되면 집착이 생긴다는 것이다. 潤雲이라는 승려도 마찬가지다. 이송인은 모였다 흩어졌다하며 흘러가는 구름 같은 운운에게 정처 없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묻는다. 답은 이어지는 頷聯에 드러난다. 3구에 등장하는 학은 고결함을 나타내며, 원숭이는 佛家에서 잡신을 쫓거나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학과 원숭이는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동물이므로, 고요한 자연 풍광을 그릴 때 사용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승려인 운운의 내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俗世에 잠시 머물다 스님은 다시 은거지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송인은 먼저 자욱하고 좁은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은 고려왕조를 부지하고 싶으나, 현실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 현실을 개선하고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고려 조정의 신하이고, 세속인이기 때문이다. 탈속을 지향하면서도 속세의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떠나는 스님의 모습과 대비시켜 잘

108) 『陶隱集』 권2 <送潤雲老上人還山> p.98.

드러내었다. 여의치 않은 현실세계를 떠나 탈속을 하고자하여 불교적 세계를 긍정하고 지향하였으되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현실화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승인은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불교를 받아들였고, 불교 교단의 폐해에 있어서는 비판하였으나, 수양의 방편으로서의 불교를 긍정하였다. 따라서 이승인은 극단적인 배불론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유불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고 문학작품 속에서 이러한 관점들이 잘 드러나 있다.

## 2) 禪趣적 경향과 淸淨의 세계

성리학을 공부한 儒學者로서의 이승인은 그 당시 社會·政治적으로 불교를 배척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불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인뿐만 아니라 親佛敎的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대부들의 시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겠으나, 그의 시 중에는 불교적 색채를 띠는 시가 많은 편이다.

이승인은 <題千峯詩藁後><sup>109)</sup>에서 禪僧의 시를 “淸하면서도 苦하지 않고, 拙하면서도 野하지는 않고, 腴하면서도 膩하지는 않아서, 오래 읽으면 읽을수록 싫증이 나지 않는다.”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맑고 꾸밈없는 세계를 그려 놓는 선승의 시세계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맑은 세계를 읽을 수 있어서일 것이다. 이에 본 단원에서는 이승인의 불교시 중에서 禪趣적 경향과 淸淨의 세계가 드러나는 작품을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고려 말기에는 禪宗이 득세했기에 이승인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교와 접했을 것이다.

架巖開數間屋            바위에 걸쳐 엮은 몇 칸의 초옥

109) 『陶隱集』 권5 <題千峯詩藁後> p.547. “淸而不至於苦 拙而不至於野 腴而不至於膩 讀之愈久而愈不知倦焉.”

面壁有一箇僧	벽을 마주하고 참선하는 한 승려
洞裏清泉白石	골짜기 안에는 맑은 물에 흰 바위
軒前古木蒼藤	정자 앞에는 고목에 푸른 등덩굴

詩思奇奇怪怪	시인의 시상은 기괴하게 펼쳐지고
宦情莫莫休休	벼슬 생각은 접은 지 이미 오래
手裏携柱杖子	손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서
尋僧直到山頭	스님 찾아 곧장 산꼭대기로 <sup>110)</sup>

첫째 수에는 암자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 바위 위에 집을 시렁처럼 얹어 놓았다고 하였으니 이 암자는 사람의 힘을 최소화한, 자연스럽게 주변과 조화되는 조출한 곳이다. 따라서 이곳엔 인위적으로 꾸민 것이 없다. 이런 곳에 앉아 한 승려가 참선을 하고 있다. 어떤 화두를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승려의 정신경계는 매우 맑고 깨끗하다. 맑은 물과 깨끗한 바위는 암자의 풍경이면서 승려의 마음 상태이기도 하다. 처마 앞에 있는 고목은 시간의 무한함을 알려주는 소재이면서 승려가 지닌 도력의 깊이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은 오랜 시간 세속과 단절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起句의 巖과 壁, 勝句의 數間과 一箇, 傳句의 洞裏와 軒前, 白石과 蒼藤이 댓구를 이루어 시의 맛을 더하고 있다. 특히 視覺的으로 맑은 물은 돌의 흰 색을 더 희게 하며, 古木은 푸른 등덩굴을 더 신선하고 푸르게 대비감을 드러내면서 淸新한 맛이 있다.

둘째 수는 이곳을 찾아온 이송인의 감회이다. ‘奇奇怪怪’라는 疊字를 사용하여 평소와는 다른 시상이 떠오름을 표현하였다. 세속과 단절된 곳에 있으니 벼슬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벼슬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보면 여전히 세속의 일에 미련이 있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轉句와 結句의

110) 『陶隱集』 권3 <題明遠菴> p. 448.

이승인의 행동은 현실과 절연하고자 하는 의지로 드러난다. ‘山頭’는 산꼭대기면서 궁극적 깨달음이 있는 높은 정신경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승인은 불교 혹은 승려에 의지해서 정신의 자유마저 얻고 싶어한 것이다.

靑山疊疊水重重	푸른 산 첩첩이요 물 굽이굽이 흐르는 곳
一箇老僧携短筇	노스님 한 분 짧은 지팡이 짚고 가네
他日相逢何處是	뒷날 서로 만날 곳이 어디냐 하면
淸風榻畔數栽松	맑은 바람 걸상 옆 소나무 서 있는 곳 <sup>111)</sup>

靑山이 겹겹이 둘러싸인 깊은 산중은 世俗의 먼지가 티끌만큼도 없는 淸淨無垢한 세계이다. ‘疊疊’과 ‘重重’ 접자의 사용은 均스님이 있는 곳이 산 깊고 물 깊은 인적 드문 곳이라는 것을 강조해준다. 노스님이라는 시어에서 수행의 깊이가 느껴진다. 장구한 시간 수행자인 스님과 이승인은 다른 곳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승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수행자가 있는 곳이다. 그 곳은 화려하게 장엄된 인위적인 장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소박하며 청정한 곳이다. 마지막 結句의 맑은 바람이 주는 상쾌한 촉각적 이미지와 걸상 옆 소나무 한그루는 참선하기 좋은 맑은 곳임을 자연 모습 그대로 簡潔하면서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 놓고 있다.

山色空庭得	빈 뜨락엔 온통 산빛뿐이고
花枝細雨香	가랑비에 꽃가지 향기로워라
客中淸興味	나그네살이 중에 맑은 이 흥치
寄傲一窓涼	서늘한 창가에서 오만함 부려보노라 <sup>112)</sup>

111) 『陶隱集』 권3 <送均師還> p. 351.  
 112) 『陶隱集』 권3 <題僧舍寓軒> P.286.

텅 비어 있는 절 마당에 인공적인 것이 전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산 빛이 가득 차있다. ‘空庭’이라 하여 텅 비어있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오히려 산빛을 짝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그 곳에 가랑비까지 내려 만물에 생기주니 꽃향기가 더욱 멀리까지 난다. 山色의 시각적 이미지에서 꽃향기가 나는 후각적 이미지로 감각이 이동하며 시 전체가 산뜻한 이미지를 준다.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풍경 속에서는 나그네조차도 맑은 흥취를 느낀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는 어쩌면 정해짐이 없는 행로에 지쳐 있다가 텅 비어 있으나 가득 차 있는 자연경관에 흥취를 느낄 수밖에 없다. 나그네도 흥취에 겨워 창가에서 교만함을 부려볼 수 있는 정도라니 얼마나 맑은 곳인지 알 수 있다. ‘寄傲’는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 (남쪽 창에 기대어 오만한 마음을 부려보니, 겨우 무릎 들여놓을 작은 방도 편안함을 알겠도다.)”에서 귀거래하여 맞는 자연과 하나 되어 느끼는 가장 자족함을 느끼는 부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여기에서 이송인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승一の 경지를 도연명처럼 느끼고 있다.

山北山南細路分	산 북쪽 산 남쪽 오솔길 나뉘는 곳
松花含雨落繽紛	송화가 비 머금고 분분히 떨어지네
道人汲井歸茅舍	도인이 물 길어 뗏집으로 돌아가니
一帶靑煙染白雲	한 가닥 푸른 연기 흰구름 물들이네 113)

許筠은 이 시를 두고 “어찌 劉長卿만 못하겠는가?”<sup>114)</sup>라고 하였다. 唐詩의 특징인 회화성이 돋보인 점을 평한 것이다. 산의 남북이 나누어지는 오솔길에 절이 있다. 속세와는 멀리 떨어진 깊은 산중에 비에 젖은 송화가 흩날리고 한 도인이 물을 길어 뗏 집으로 돌아간다. 소박하고 검소한 거처에서 한

113) 『陶隱集』 권3 <題僧舍> p.391.

114) 許筠, 『惺叟詩話』 “何減劉隨州耶”.

줄기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 ‘靑煙’은 소나무의 푸름과 연결되어 청량함을 더 해준다. 하얀 바탕의 구름에 푸른 연기가 물든다. 송화가 떨어지는 것, 도인이 돌아가는 걸음, 피어오르는 연기는 모두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경미한 움직임의 포착이 閑靜한 분위기를 더해준다는데 이 시의 묘미가 있으며, 동양화에서 이른바 여백의 미마저 느껴진다. 수도승의 맑은 일상을 그림을 그리듯이 읊고 있어서 작자가 염원하는 맑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朝來牧何處	아침에는 어디에서 소를 치시나
春草彌望煙空濛	아지랑이 아른아른 봄풀이 눈에 가득한 곳
暮來牧何處	저녁에는 어디에서 소를 치시나
斜陽遠映長林紅	지는 햇빛이 긴 수풀에 멀리 붉게 비치는 곳
朝朝暮暮牛性馴	아침마다 저녁마다 소의 성품 순화되니
鞭索終無毫髮功	채찍과 고삐를 끝내 쓰먹을 길이 없네
道人拍手笑呵呵	도인은 손뼉 치며 깔깔대고 웃으면서
笑殺三十年前事	삼십 년 전의 일을 우습게 여기시겠지만
或時落地犯苗稼	혹시 땅에 떨어져서 벼 싹을 또 망칠 경우
如今露地誰牽鼻	지금같은 노지로 누가 코 꿰어 잡아끌까 <sup>115)</sup>

尋牛圖를 연상하게 하는 시이다. 尋牛圖는 처음 禪을 닦게 된 동자가 본성에 비유되는 소를 찾기 위해 산중을 헤매다가 마침내 소를 발견하고 길들인 뒤에, 그 소를 타고 집에 돌아왔으나 다시 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속세로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16)</sup>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넣어 道를 찾아 떠나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준다. 소를 찾아 떠나는 동자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아지랑이가 아른아른하듯이

115) 『陶隱集』 권1 <題牧菴詩卷> p. 68.

116) 문동석, 『문화로 보는 우리 역사』, 상상박물관, 2008, pp.144~148.

아직은 수행자가 禪이 무엇이고 本性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시간이 경과하여 저녁이 되니 지는 햇빛이 긴 수풀에 멀리 비취 만물이 제 모습을 다 드러내듯 햇빛이 비취는 곳에 소의 발자국이 어렴풋이 보인다. 아침저녁으로 소를 길들이니 소의 성품 곧 인간의 본성이 순화된다. 三毒(貪, 嗔, 痴)의 때를 다 씻고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소를 길들이기 위한 方便이었던 채찍과 고삐는 필요가 없어진다. 도인은 손뼉 치며 깨달음을 얻은 호탕한 웃음을 곱곶곶 웃는다. 마지막 구에 ‘露地’는 ‘露地白牛’라는 말로 번뇌 망상이 없는 청정무구한 경지를 말한다.

이송인은 牧庵이라는 스님의 시권에 써준 시에서 스님의 이름을 통해서 심우도의 ‘牧牛’로 연결해서 목암 스님의 이야기로 전개해나갔다. 이제 어엿한 승려로 깨우침을 체득한 스님이 되었기에 수행과정을 심우도 그림으로 펼쳐보이고 있다. 尋牛圖를 한 폭 한 폭 따라가듯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독자 역시 번뇌에서 벗어난 느낌을 지니도록 잘 그려 놓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스님같은 분이 있어 청정무구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중생구도의 당부와 경계까지 잊지 않고 있다.

睡菴認破本來眞	수암은 본시 진면목을 깨달은 분이라서
不是尋行數墨人	언어 문자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닐 텐데
安用區區印經卷	뭣 때문에 구구하게 경전을 찍어내실꼬
止啼黃葉未爲珍	울음 달래는 황엽은 귀할 것이 없으련만

曹溪一味豈言傳	조계의 일미를 어찌 말로 전하리오
微笑拈花亦偶然	염화의 미소도 저절로 된 것일 뿐
好向武陵橋上看	무릉교 위에서 보는 경치 얼마나 좋소 <sup>117)</sup>
山光水色蔚藍天	산빛과 물빛이 쪽빛 하늘에 영겼으니 <sup>118)</sup>

117) 海印洞口 有武陵橋 (해인사 洞口에 무릉교가 있다): 시의 끝 부분에 註로 달려 있다.

수암을 두고 도를 깨친 분이라고 높이면서 은근히 놀리고 있다. 不立文字를 표방하는 禪宗의 입장에서는 教宗에서 중시하는 불경에 얽매이지 않아야 함에도 선승인 당신이 어째서 經典을 짚어 내는가하고 물음을 던졌다. ‘止啼黃葉’은 어린아이가 울 때, 부모가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속여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黃葉은 일시적인 방편이다. 禪宗에서는 부처의 8만 4천의 법문을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方便이라고 한다. 그 방편이 불자들의 깨우침을 위한 중요한 일이지 하필 해인사에서 經을 짚는 것을 黃葉에 비유하여 教宗에서 중시하는 것을 선을 하는 스님이 불필요한 일을 한다고 놀리는 것이다.

둘째 수에서 ‘曹溪’는 禪宗을, ‘一味’는 一味禪을 가리킨다. 일미선은 不立文字의 頓悟를 목표로 참선하는 것을 말한다. 참선하여 화두를 깨치는 것은 석가모니가 영산회상에서 拈花示衆했을 때 가섭이 미소 지었던 것처럼 以心傳心으로 느끼는 것이지 말이나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선적 경지를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맑은 세계로 그리면서 바로 스님 계신 해인사 그곳이 바로 그런 맑은 세계라고 스님의 정신세계를 칭송하면서 자신도 그 경지를 느껴 알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雪嶽上頭雲上人	설악산 상상봉의 우리 운 스님
江湖萬里不羈身	강호 만리 얽매이지 않으셨네
逢場作戲君家事	봉장작희야말로 스님 집안 전유물인데
故向陶齋乞句頻	뵈기 때문에 도재에게 자꾸 시구를 청하는고 <sup>119)</sup>
綠葉低簷暑氣微	푸른 잎새 처마에 드리워 더위도 약간 수긋
寺樓終日澹忘歸	절 다락서 종일토록 담연히 갈 길 잊어

118) 『陶隱集』 권3 <睡菴文長老印藏經于海印寺戲呈> P. 389.

119) 『陶隱集』 권3 <題雲上人雪岳詩卷> p. 341.

烹茶享客求題壁      차 달여 대접터니 벽에 붙일 시 지으라나  
 却笑居僧未息機      우스워라 스님도 機心 끊지 못하다니<sup>120)</sup>

위의 두 수는 승려들이 이송인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雲上人이 있는 곳은 설악산 꼭대기이다. ‘上頭’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청정한 장소이다. 그 곳에 모였다가 곧 흩어지는 구름처럼 雲上人은 어떤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 ‘逢場作戲’란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禪機를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집착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행동한다는 것은 곧 소유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스님이 이송인에게 시구를 청한다. 둘째 수에서도 스님은 차를 대접하고 도은에게 벽에 걸어 놓을 시를 지으라고 청한다. 푸른 잎이 누각 위를 덮고 있어서 그 그늘로 인해 더운 기운이 가셔진 정경이다. 그 맑은 기운에 돌아갈 자신조차 잊은 채 그런 절 누각에서 차 대접을 받으며 종일 담소를 나누고 있다. 綠葉, 寺樓, 烹茶의 단어가 연결 고리를 만들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대접하고 줄때는 받을 것을 생각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득도한 승려의 모습인데 機心을 버리지 못하고 시를 지어 달라 한다.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승려들의 세계를 먼저 그려서 그들의 면모를 보여주면서도 욕심 없는 그들에게서 시 요청을 받는 자신의 자부심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맑은 세계의 경지를 시로 그려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은연중에 자신의 詩作의 역량이 높다는 자부심도 드러내면서 이송인은 이 시들을 통해 스님이 禪으로 이룬 경지와 정신세계를 자신의 시적세계와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蘿衣百衲已忘形      칩덩굴 옷 백번 기워 진작 형체 잊으셨고  
 悟道年來輟誦經      도를 깨친 이후로는 독경 다시 안하시네

120) 『陶隱集』 권3 <題神孝寺祖師房> p. 405.

禪榻落花春寂寂      선탑에 꽃잎 지는 적적한 이 봄날에  
松風和雨生茶餅      들리나니 차 끓는 솔바람에 빗소리뿐<sup>121)</sup>

蘿衣는 침딩굴의 옷이라는 뜻으로 보통 隱者의 복장을 가리키며, 百納은 백번 꿰맨 누더기 승복을 말한다. 차림새가 누추하고 물욕을 버린 스님이다. 참선을 하여 자신을 잊은 無我의 경지에까지 올라간 스님이다. 깨달음에 이른 후에는 讀經도 않고 있다. 경을 읽는 행위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일 뿐이기 때문이다. 참선하는 걸상위에 비와 함께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하게 한다. 자연 경관을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듯 표현한 것에서 이승인의 시인적 면모가 돋보인다. 독경이 끊어진 적막감 속에 차 끓는 소리와 솔바람에 빗소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들린다. 꽃이 지는 봄날에 비바람마저 고요하게 느껴지는 스님의 선방에서 느끼는 禪趣를 자연의 청정세계로 그려 놓는 작가적 능력으로 자신의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 2. 詠物을 통한 內面 表現

詠物詩는 사물의 吟詠을 통해 작가의 정서를 表出한 한시를 가리킨다. 영물시는 나무, 꽃, 새 같은 동식물에서부터 일상 속의 사물, 벌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연물들이 창작의 소재로 쓰인다. 시인은 영물시 창작을 통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도 하고, 사물의 특징이나 본질을 상징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sup>122)</sup>

사물이 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事物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感情을 드러내는 경우와 事物의 특징을 노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경

121) 『陶隱集』 권3 <題神孝寺湛師房> p.355.

122) 김재욱, 『목은 이색의 영물시』, 도서출판 다운샘, 2009, p.12.

우로 구분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사물을 읊었다는 점에서는 영물시라고 볼 수 있다. 시인이라면 누구나 사물을 소재로 하여 시를 읊어 자신의 감정을 의탁하거나 사물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를 짓는다. 이송인은 사물을 대하는데 예사روی 넘기지 않고 시인으로서의 감수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관찰하여 시로 표현하였다.

이송인의 시 337題 446首 중에 詠物詩는 24題 34首이다. 영물시의 범주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대해서는 1861년 劉在建의 『古今詠物近體詩』가 참고가 된다.<sup>123)</sup> 이 책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작가의 작품을 싣고, 사물을 409類로 나누었다. 이 책에서는 사물의 범주를 사람에게까지 포함하여 僧, 道士도 넣었으나 사람을 넣으면 대부분의 작품이 詠物詩에 속하게 되어 범위가 모호해지므로 본고에서는 사람을 빼고 사물에 국한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이송인의 영물시의 수는 많은 편이 아니나, 시로 당대에 명성을 떨친 이송인이었기에 고려 말 한시의 격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 시인으로서의 이송인의 감성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송인의 영물시를 살펴보는 일은 그의 한시작품의 전모를 드러냄에 있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거처하는 ‘觀物齋’에서 지은 시를 봄으로써 그가 사물을 보는 방식의 일면을 살펴보고 한다.

<題所居觀物齋 二首>

禽中有鳳獸中麟	새 중엔 봉황 있고 짐승 중엔 기린 있어
鳳是嘉祥麟是仁	봉황은 상스럽고 기린은 어질다네
莫道從來爲異類	원래 부류가 다르다고 말하지 마오
分明畢竟勝如人	필경 빼어남이 사람과 분명 똑같으니

123) 劉在建, 『古今詠物近體詩』, 亞細亞文化社, 1861.

有生元自共吾天	생명있음 원래 하늘로부터 함께 받은 것
到得相形始判然	형체를 얻으면서 비로소 판연히 나뉜진다오
取譬一言眞妙訣	비유 취해 한마디 말 진정 묘한 비결이니
聖人端爲後人傳	성인은 참으로 후세 위해 전하시는 분 <sup>124)</sup>

봉황은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오면 이에 응하여 나타난다고 한다. 『孟子』〈公孫丑上〉<sup>125)</sup>에 “麒麟之於走獸 鳳凰之於飛鳥 泰山之於丘垤 河海之於行潦 類也 聖人之於民 亦類也 出於其類 拔乎其萃 自生民以來 未有盛於孔子也 (달리는 짐승 중의 기린과 나는 새 중의 봉황새와 언덕·개미독 중의 태산과 길바닥에 고인 장마물 중의 河海와 똑같은 것이며, 일반백성 중의 성인도 이와 같은 것이다. 종류 중에서 빼어나며, 모인 것에서 높이 솟아났으나 生民이 있는 이래로 공자보다 더 훌륭하신 분은 계시지 않다.)”라는 말이 나온다. 맹자 구절의 봉황과 기린을 인용하여 신비스럽고 상서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봉황과 기린을 등장시킨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원래 근원은 같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인과 일반인은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물의 종류와 가치에 상관없이 미물에게서라도 취할 점을 취하고 미물 안에도 ‘진리’가 있다고 보았다. 觀物이란 조용한 가운데 만물의 현상을 살펴 천지자연의 이치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의 觀物은 ‘以理觀物’이 아니라 物마다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에 따라 구별됨을 읊은 것으로써 사람 중에도 봉황이나 기린 같은 존재가 있음을 읊은 시이다. 곧 성인(공자)이 바로 인간 중의 봉황이나 기린임을 드러낸 것이다. 자신의 거처에 지은 시로 ‘觀物齋’에 거하는 사람인 자신도 성인을 닮아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살펴볼 이송인의 詠物詩에서도 사물을 있는 그 자체로 읊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볼 수 있다. 이 시를 통해서 이송인의 사물을

124) 『陶隱集』 권 3 <題所居觀物齋 二首> p. 336.

125) 『孟子』, 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1996.

대하는 태도나 관점의 한 면을 알 수 있다.

이승인이 읊은 사물의 소재는 오동나무, 서향화, 모란, 앵두, 석류, 포도, 茶, 지팡이, 염주, 사군자, 소나무, 구름, 비, 안개, 꾀꼬리, 파리 등이다. 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일상적 소재이면서 이승인의 순수정서를 볼 수 있다. 이런 소재를 통해 읊은 시를 현실 인식과 극복의 의지가 드러난 시와 事物에 담은 시인의 情緒가 드러난 시로 나누어 보았다.

### 1) 現實 認識과 克服의 意志

시인이 事物을 막연히 보아 넘기지 않고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보낼 때 그 사물은 점점 그 주변의 다른 사물들과 구별되어 詩人과의 특수한 認識關係에 들어가게 된다. 人間은 자기에게 주어진 무의미한 사물의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더 폭 넓은 세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sup>126)</sup> 이승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事物에 의탁하여 표현하였다. 이승인의 영물시는 현실갈등과 좌절이나 은둔을 읊고 있는 여타의 시<sup>127)</sup>에 반해 비교적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 현실이야기를 직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현실에의 克服意志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感興>

嶧陽有孤桐 역산 남쪽 한 그루 오동나무  
托根千丈岡 천길 되는 산등성이에 뿌리 내렸네  
生成自太古 태고부터 싹 틔우고 자라나면서

126) 丘仁煥 · 丘昌煥 共著, 『新稿 文學概論』, 三知院, 2000, p.69.

127) <哀秋夕辭>, <行路難>, <重九有感> 등.

淅瀝凌風霜    쓸쓸하게 온갖 풍상 이겨 냈다오  
 安得一往取    어떡하면 한번 가서 오동 가져다  
 被以朱絲繩    거문고 붉은 줄을 엮어 만들어  
 薦我君子堂    임금님 계신 곳에 갖다바쳐서  
 鼓之聲鏗鏗    거문고 타는 소리 쟁그랑 울릴 수 있을까  
 薰風阜民財    훈풍에 백성들 부유해져서  
 六幕歌時康    온 세상이 태평성대 노래하련만<sup>128)</sup>

<感興>이라는 이 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대로 느끼는 감정을 읊고 있는데, 대상물은 오동나무(역양고동)이다. 1구에서 4구까지는 오동나무가 갖은 풍상을 견디며 자랐기 때문에 쓰임에 적합하다는 것을 읊었다. ‘千’이라는 숫자를 써서 뿌리내린 곳이 아주 높은 곳이며 사람의 손이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특별 공간을 설정하고, ‘太古’라는 시어로 아주 오랜 세월 자란 나무라고 특화하고 있다. 오동나무는 가볍고 연하여 가공하기 쉬우며 잘 뒤틀어지지 않아 가구나 악기를 만드는데 많이 쓰인다. 거문고나 가야금을 만드는데, 특히 ‘嶧陽孤桐’은 가장 유명해서 거문고를 만들기에 최고이다. 嶧陽孤桐은 『書經』 「禹貢」에 보이는데, 특산물로 바치는 공물 가운데 역양의 고동이 있다. 그만큼 역양의 고동이 품질이 좋다는 것이다.

『詩經』 “..樹之榛栗 椅桐梓漆 爰伐琴瑟”에서도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들었던 전고가 보인다.<sup>129)</sup>

5구에서는 붉은 줄을 걸어 만든 거문고를 임금님 계신 곳에 바치고 싶다는 것이다. 앞에서 오동의 생태를 적어 자신의 내적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오동을 어떻게 하면 임금 계신 곳 가까이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대

128) 『陶隱集』 권 1 <感興> p. 25.

129) 『詩經』 「鄘風」 <定之方中>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래나무와 오동나무 잣나무와 율나무를 심으니 이것을 베어 거문고와 비파를 만들도다.”

목이다. 거문고가 바쳐지면 임금은 그 거문고로 연주한다. 舜임금이 五絃琴을 만들어 <南風歌><sup>130)</sup>를 불러 백성이 부유해지를 얻었던 것처럼 온 세상이 태평성대를 노래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중국 역산에 홀로 서 있는 오동나무의 고독한 처지가 이송인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겼다. 오동나무의 뿌리가 깊듯이 자신의 충성심과 학문은 깊는데 쓰임없이 홀로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태고부터 바람과 서리를 견뎌내며 자란 오동나무처럼 자신도 오랜 세월 정치적으로 시련을 겪고 이겨내고 있어서 역양고동처럼 쓸모있게 쓰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전라도 염사 이 총랑을 전송하며 쓴 시 구절<sup>131)</sup> ‘荒政宜時務 仁聲及遠封 (황정을 마땅히 지금 당장 시행하여 인성이 먼 지방까지 미치게 해야지)’에서 이송인의 정치관을 볼 수 있다. 자신이 등용되면 거문고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듯 깨끗한 정치를 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맑은 소리는 곧 仁聲과 통한다. 오동나무를 자신에 비유하여 오동나무가 거문고 만들기에 적합한 것처럼 이송인도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얻으면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자신이 쓰이지 못하는 아쉬움과 등용되어 쓰이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蠅>

終日營營几案前	책상 앞 하루 종일 뽕뽕거리며
飛來飛去勢飄然	날아왔다 날아갔다 날렵하기만
家童未用麾機拂	아이야! 파리채 휘두를 것 없이
留與清霜九月天	된서리 내리는 구월까지 그냥 놔두렴 <sup>132)</sup>

130) 『禮記 樂記』“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남쪽 바람 훈훈하니, 우리 백성의 수심이 풀어질 수 있으리. 남쪽 바람 제때에 불어오니, 우리 백성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으리.)”

131) 『陶隱集』 권 2 <送全羅道廉使李摠郎> p. 141.

132) 『陶隱集』 권 3 <蠅> p.447.

『詩經』 「小雅」 <青蠅>에 ‘營營青蠅 止于樊 豈弟君子 無信讒言(엇엇거리  
는 靑蠅이여 울타리에 앉았도다 화락한 군자는 참소하는 말을 믿지 말지어다)  
라 하여 참언을 파리에 비유하였다. 害蟲인 파리가 책상 앞에 하루 종일 뽕뽕  
거리며 시끄럽게 날아다니며 책 보는 것을 방해한다. 책상 앞에서라는 것은  
아주 지척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리의 모습은 마치 간신들이 임금 앞에  
서 갖은 아첨과 감언으로 임금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과 흡사하며 이송인  
주위에서 이송인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연상케 한다. 承句에 ‘飛’를 반복해 넣  
음으로서 앞에서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모양을 강조하였다. 그런 파리를 두고  
파리채 휘두르지 말고 서리 내리는 9월까지 그냥 두라고한다. 여기서 이송인  
의 대응방식이 엇보인다. 언뜻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참기만 하는 것  
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파리의 생태를 파악하여 잠깐 동안 극성  
을 부리다가 말 것임을 알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事必歸正이라 파  
리는 서리를 맞으면 죽는 것처럼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믿음이 바탕에 깔  
려있다. 된서리 내리는 때는 그릇된 일이 바로 잡히는 때라서 앞으로 그때가  
오면 자신이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은연중에 드러나 있다.

<癸丑閏十一月十四日霧>

久怪冬寒薄 겨울 추위 시시해서 한동안 이상했는데  
今驚曉霧新 오늘 놀랍게도 새벽안개까지  
轉頭迷去路 고개 돌려도 가야 할 길 보이지 않고  
舉目失比隣 눈 들어도 이웃 과연 어디 있는지  
似雨難生物 비 같긴 하지만 만물을 살리기 어렵고  
如塵祇汚人 먼지 닮아 사람 오염시키는구나  
五侯封既遠 五侯를 봉함은 벌써 오래 전의 일인데  
三里術何神 三里 술법 어쩜 이리 신통한지

變理知誰責    섭리하는 일을 누가 책임지고 있기에  
 薰蒸入鼻辛    훈증이 코에 맵게 들어오게 하시고  
 吾身要自愛    내 몸은 내가 알아 아끼려하니  
 且飲一杯醇    또한 진한 술 한 잔 마셔줘야지<sup>133)</sup>

계축년은 1373(공민왕22)년 이 해에 이송인은 成均直講이 된다. 2년 후에 원의 사신을 물리치라는 상소로 귀양을 가게 된다.

겨울 안개가 낀 날에 쓴 시로 때 아닌 겨울 안개를 통하여 불길함과 앞날의 불분명함을 그려 놓고 있다. 안개와 비는 주는 느낌이 흡사해 보이는데, 비는 만물을 소생하게 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주지만 반면 안개는 앞을 흐리게 하므로 시련을 연상하게 한다. 윤 11월은 겨울이니 당연히 추워야할 터인데 춥지 않으니 불길한 조짐이 들고, 거기다가 새벽안개까지 뿌옇게 끼어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진다. 3·4구에 고개를 돌려도 가야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안개 낀 상황을 통해 자신이 갈 길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토로한다. 또 눈을 들어보아도 이웃집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을 지경인데, 여기서 이웃은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동지일 것이다. 7·8구는 고사를 인용하여 五侯가 권력을 부리며 안개처럼 독기를 피운 것과 멋대로 술법을 써서 안개를 피우던 옛일이 오래전 일인데 오늘 지금 이렇게 안개가 끼어 앞을 흐리게 하니 五侯의 독기가 되살아난 것 같다는 것이다. 9구에서 다스리는 일을 맡은 자의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만든 당사자가 누구길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 원망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결국 겨울 안개에 휩싸인 상황을 당대의 정치 상황으로 풀어내면서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대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부분에서 자신의 처지가 매운 시련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몸을 아껴야한다는 것은 그 역경을 피하려는 뜻이 아니라 우선 진한 술 한

133) 『陶隱集』 권 2 <癸丑閏十一月十四日霧> pp.216~217.

잔 마시면서 자신을 다독이며 한발 물러나 때를 기다리려는 의지가 보인다.

<十一月初四日雨連夜不止>

仲冬初四日 동짓달 초나흘날인데도  
雨足亂如絲 빗발이 실처럼 얽히듯 내려  
細細纔飄瓦 가늘게 기와에 흩뿌리나 싶더니  
濛濛已濕衣 자욱하게 어느새 옷 축축해지네  
靑燈悲遠客 등잔불가 먼 길 손님 서글퍼지고  
幽室泣孤嫠 깊은 방에 외론 여인 흐느끼는 듯  
天道終難料 천도의 옳고 그름 끝내 알 수 없는데  
經生妄是非 경전 선비 시비논의 헛된 일일세<sup>134)</sup>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겨울비가 내리는 날에 지은 시이다. 동짓달은 눈이 와야 하는 계절인데 비가 오니 겨울비를 통해 그 당시의 현실 상황을 그려 놓고 있다. 首聯에 비가 내리는 모습이 실이 어지러이 엉겨있는 듯 하다고 표현하였다. 가느다란 비가 기와에 뿌리니 별거 아닌 듯 하였으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내리는 비가 시간이 흐르니 옷이 축축해진다.

등잔불과 어두운 방은 위태로움과 불안함을 의미하고, 나그네와 과부는 괴롭고 슬픈 처지를 의미하는 시어로 그 상황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천지자연의 도리는 알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알아서 바로 잡아야 하는 선비들은 망녕되이 시비만 논하고 있다. 2구 ‘亂’이라는 표현에서 이송인의 마음속이 어지럽다는 것을 비치고 있다. 조금씩 내리는 비가 옷을 다 적시듯 도은에게 다가온 시련의 무게도 그만큼 무겁게 느껴진다. 그 무게를 떨쳐 낼만한 힘이 지금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자신을 비롯한 학자들의

134) 『陶隱集』 권 2 <十一月初四日雨連夜不止> p.130.

역할을 알고는 있으나 제대로 해내지 못함을 안타까와하고 있지만 세상은 비에 젖듯이 젖어 있고 현실의 상황은 여인이 흐느끼는 듯 슬픈데, 경전 읽은 書生들은 현실은 타개할 생각은 않고 시비만 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좌절하여 불우함을 한탄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직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南山雲一片 남산의 구름 한 조각  
 無心時卷舒 무심히 때로 폼다 다시 말리네  
 開窓靜相對 창문 열고 조용히 바라보다가  
 俯首愧不如 구름만 못해 부끄러워 고개 숙였소<sup>135)</sup>

구름이 무심히 모여 뭉쳤다가 퍼기를 반복한다. 구름은 바람에 의해 움직이면서 무심하니 뭉쳤다가 폼다하며 바람에 몸을 맡기는 모습이 참 편안하고 여유로와 보인다. 좀 더 선명하게 보려고 창을 열어 말없이 바라보다가 자신이 구름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인다. 이 시는 이송인이 귀양지에서 지은 絶句 二十首 중의 한 수이다. 벼슬길에 있는 동안 스스로 돌아보 건대 이루어 놓은 일도 없이 귀양 온 신세가 되고 보니 무심하게 자유로이 떠다니는 구름만도 못한 자신에 대한 회한이 일어난다. 시의 내용과 형식 모두 단순하지만 구름을 보고 느끼는 내면세계를 간결하게 잘 표현하였다.

<春雲>

春雲如獸復如禽 봄 구름 길짐승 같더니 다시 날짐승으로  
 點綴晴空乍欲陰 맑은 하늘에 온통 덮혀 금세 어두워질 듯  
 不礙吾詩無態度 내 시는 변화무쌍하니 상관이 없어  
 偶然乘興卽長吟 우연히 흥이 나면 길게 읊조린다네<sup>136)</sup>

135) 『陶隱集』 권 3 <絶句二十首用唐詩分字爲韻寄呈民望待制> p.289.

136) 『陶隱集』 권 3 <春雲> p. 330.

흘러가는 구름의 모양은 시시각각 다른 모양으로 변한다. 구름이 뭉쳐 있는 모습이 길짐승 같더니 금새 다시 펼쳐져서 날짐승으로 변하였다. 맑은 하늘을 뒤덮어서 금방 킁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변덕스런 세상인정과 세상사를 보여주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송인의 시는 그 변덕에 걸맞게 변화무쌍하고 막힘이 없다. ‘不礙吾詩’라 표현한 것은 구름이 변화무쌍하듯이 이송인의 시도 그에 걸맞게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드러내어 시적능력의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다. 結句에서 흥이 나면 길게 읊조린다고 하여 시련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구름의 ‘無心時卷舒’하는 생태를 표현하면서 앞에 인용한 絶句에서 ‘俯首’라고 이 시에서는 ‘不礙吾詩’라 한 것을 보면 구름을 볼 때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내면세계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梅花 五首>

折得梅花一兩枝	꽃핀 매화 한두가지 꺾어다가
膽罨斜插轉清奇	담병에 <sup>137)</sup> 비껴 꽂으니 더욱 맑고 기이해
騷人只解吟秋菊	시인 그저 가을 국화 읊을 줄만 알았지
未見參橫月落時	삼성 뜨고 달이 질 때 매화보듯 볼 수 없을 걸
暖日晴窓始吐葩	따스한 날 갠 창가에 막 터뜨린 꽃망을
相看胸次自無邪	바라봐도 가슴속에 절로 샅뽀 없어지네
多生結習從今盡	전생에 맺은 번뇌 이로부터 해소되어
髣髴毗耶長者家	毗耶離 장자의 가풍과 방불해지리 <sup>138)</sup>
一自江湖有此花	강호에 이 꽃이 한번 피었던 일 있는 후로
古人題詠幾相誇	고인이 시 지어 읊으며 얼마나 빼겼던가

137) 담병: 목이 길고 배가 볼록한 병.

138) 비야리 장자: 維摩居士

暗香疎影眞佳語      그윽한 향 성근모습 정말 멋진 묘사이니  
試信逋仙是大家      임포신선이 대가인 줄 참으로 믿겠도다<sup>139)</sup>

漂泊曾游海上村      바닷가 마을 떠돌다가 노닐었을 그 당시에  
婆娑千樹月黃昏      무성한 나무 숲에 황혼녘 달 비쳤지  
卽今京國仍爲客      지금은 도성에서 그대로 나그네 신세  
一詠幽姿一斷魂      그윽한 자태 읊을 때면 한 번씩 애끓는 듯

坤陰用事政難禁      곤음이 위세 부리는 걸 참으로 막기 어려운 때  
萬彙歸根未易尋      만물기운 뿌리로 돌아가서 찾기 쉽지 않는데  
昨夜南枝生一白      지난밤 남쪽 가지에서 흰 꽃 한 송이 피었기에  
焚香端坐見天心      향 피우고 단정히 앉아 하늘 마음 바라본다<sup>140)</sup>

梅花는 봄을 알리는 전령이라 한다. 암울한 시기를 청산하고 광명의 세상을 희구하는 시인들이 매화를 즐겨 문학 속에 표현하였던 것은 매화의 이런 상징성을 바탕으로 한다.<sup>141)</sup> 국화나 매화가 모두 사군자라 불려지는 꽃이어서 동질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陶淵明이 국화를 읊은 이후 고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가을서리 내린 청명한 날 울타리 가에 심겨진 노란 국화의 화사하면서도 담박한 모습에 비해 겨울을 견딘 매화는 어두울 때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져서 후각을 자극한다. 그래서 매화 향기를 ‘暗香’이라한다. 이제 막 피어서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찍 핀 매화 한 두 가지를 꺾어 가까이에 두고 싶어서 병에 꽂았다.

매화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렸다. 매화가 막 피어났다는 것은 미망을

139) 逋仙: 北宋의 隱士인 林逋이다. 西湖의 孤山에 초막을 짓고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숨어 살았으므로 ‘梅妻鶴子’라고 일컬어졌다.

140) 『陶隱集』 권 3 <梅花 五首> pp. 385~386.

141) 尹浩鎭, 『漢詩의 意味構造』, 法仁文化社, p.55.

혜매다가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다. ‘多生’이란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을 의미하며, ‘贅’이란 윤회하는 전생 동안에 쌓인 번뇌를 의미한다. 매화가 한번 툭 터진 것을 보고 한번에 깨달아 전생 동안 쌓여 있던 번뇌를 단번에 없애버린 것이다. 이것은 禪佛敎에서 말하는 ‘頓悟’인 것이다. 유마힐은 출가하지 않고 부처의 가르침을 따른 제자이다. 승려가 아니면서도 부처의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준 유마힐처럼 이송인 자신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자부심이 은근히 드러나 보인다. 梅花詩는 주로 향기를 부각시켜 후각적 이미지를 자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시에서는 매화의 터지는 動的인 모양에 주안점을 두고 ‘시청각’을 통해 자신의 심사를 드러냈다는 특징이 있다. 이송인은 성리학자인데 매화를 불교와 연결한 면에서 불교적 취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꽃을 한번 보게 된 이후로 옛 사람들이 시를 읊었다는 것은 梅妻鶴子로 불리는 임포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송인은 林逋의 〈山園小梅〉 시에 나오는 “疎影橫斜水清淺 暗香浮動月黃昏 (맑고 얇은 물 위에 성긴 그림자 가로 비끼고, 황혼 녘 달빛 속에 은은한 향기 떠도누나.)”라는 한 구절을 인용하여 매화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 낸 임포처럼 매화를 사랑해서 잘 읊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었다.

넷째 수에서 이송인은 바닷가 마을에 ‘漂泊’하여 황혼 무렵에 매화 숲을 걸었을 때를 생각하며 매화시를 읊었다. 이 시의 지어진 연대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은 도성에서 나그네살이 한다는 것이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방황하는 나그네는 바로 이송인 자신이다. 그 나그네는 추위를 이기며 꽃을 피운 매화를 시로 읊을 때마다 그 당시가 그리워지고, 추위를 이기고 피는 매화꽃의 성질이 자신과 동일하다는 생각에 애끊는듯하다.

겨울은 易學的 사고로는 坤陰의 힘이 강해 만물이 생장을 정지하는 죽음의 계절이다. 그러나 남쪽으로 뻗은 매화가지에 맺힌 한 송이의 흰 매화꽃은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천지의 양기 회복을 알리게 된다. 우주 생기의 발현이 시작되는 그 하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다.<sup>142)</sup> 흑독한 시련을 참고 어렵게 핀 꽃 한송이를 ‘一白’이라 표현하였다. 매화를 ‘一白’이라 한 시는 정도전의 “燕坐軒窓讀周易 枝頭一白見天心(창을 달아매고 편안히 앉아 주역을 읽노라니, 가지 끝에 흰 것 하나 하늘의 뜻을 보이네)”<sup>143)</sup>에서도 보인다. 이송인은 향불을 피우고 단정히 앉아 ‘天心’을 본다. 자연의 섭리를 觀하는 것이다.

이 다섯 수의 시는 이송인의 심정을 매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첫째 수는 도입부로 매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읊고, 둘째·셋째 수에서는 유마힐이나 임포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다. 곧 자신의 정신경계를 드러냈다. 넷째 수에서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담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수는 매화가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우듯이 자신도 역시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다. 평정심을 찾아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시라고 하겠다.

이송인은 오동나무(역양고동)를 통해 쓸모 있는 인재로 쓰이기를 원한다고 읊었으며, 파리같은 해충의 생태를 표현해서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때에 맞지 않는 겨울 안개와 비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음을 드러냈고, 작가 심리 상태에 따라 같은 사물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구름을 소재로 한 시에서 알 수 있었다. 매화를 통해서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 2) 事物에 담은 詩人의 情緒

조선의 영물시선집인 『古今詠物近體詩』에서는 “작가의 정서를 살필 수 있는 것은 詠物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sup>144)</sup> 아울러 동일한 제재라 하더라도

142)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넥서스, 1998, p. 50.

143) 鄭道傳, 『三峰集』 권2 <梅雪軒圖>

시인의 사물인식 방향에 따라 그 형상화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난다.<sup>145)</sup>

이승인의 영물시를 보면 詠物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사물에 移入시켜 자신의 감정을 읊기도 하였고, 일상적인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읊어 시인으로서의 순수한 정서적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李氏園中松竹梅蘭四詠 次陽村韻>

來自千岩表    어디서 왔나 천 길 바위 꼭대기  
生才一寸長    태어날 땐 겨우 키가 한치였다오  
相看餘霧露    바라보니 안개 이슬 듬뿍 머금고  
所貴傲風霜    고귀한건 바람서리 이겨내서지  
榻靜侵疏影    고요한 탁상엔 성긴 그림자 기웃거리고  
窓虛納小涼    텅 빈 창엔 서늘한 기운 들어오네  
直須麾俗物    곧바로 속물 손 내저어서  
莫使近渠傍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지

平生酷愛竹    평소에 너무나 대를 사랑해  
相對座之隅    자리 옆에 두고서 마주한다오  
固節無多子    고절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고  
眞心有是夫    진심은 바로 여기에만 있는 것  
風來微淅瀝    바람 불면 가느다랗게 우수수 소리  
月照稍扶蘇    달 비치면 얼핏 부소같기도<sup>146)</sup>  
蒲柳政安用    갯버들은 정녕 어디 쓰겠는가  
望秋難自扶    가을 맞아 홀로 지탱 못하는 걸

144) 劉在建, 『古今詠物近體詩』 「兼山堂詠物近體詩」, 1861, “情思可觀者 莫如詠物”.

145) 윤호진, 「한시의 의미구조」, 법민문화사, 1996, p.49.

146) 扶蘇 : 兵車 위에 줄지어 세워서 좌우를 엄폐하여 보호하던 방패.

一室淨如掃    씻은 듯 정결한 하나의 서실  
 明窓晝不開    밝은 창문 낮에도 열리지 않더니  
 忽聞佳客至    홀연히 객이 이르러와서  
 爲賞早梅來    일찍 핀 매화 감상하시겠다고  
 玉艷嬌先坼    먼저 터뜨린 건 옥처럼 고운 꽃잎  
 金鬚弱欲摧    부러질 듯 가냘픈 건 황금빛 꽃술  
 參橫仍月落    삼성이 비끼고 달 질 때까지  
 淸興尙徘徊    맑은 흥치 못 잊어 배회하노라

步繞蘭坡下    난초 언덕 아래를 거니노라면  
 揚揚一掬香    바람결에 실려 오는 한 움큼 향기  
 栽培已得所    자라기는 적당한 곳 이미 얻으니  
 荊棘亦何傷    가시나무 또한 어찌 다치게 하랴  
 花自春秋異    꽃은 봄과 가을로 다르게 피고  
 芽從雨露長    싹은 비와 이슬 맞고 자라네  
 薰陶知有益    훈도하는 유익한 벗인 줄 알겠노니  
 泰宇發天光    器宇 태평하여 천광을 발하도다 147)

소나무는 늘 그 푸르름과 청정한 기상으로 하여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절개와 눈, 바람, 서리를 이겨 내는 지조를 찬양하며 읊은 것이 많다.<sup>148)</sup> 이 시에서도 바람과 서리를 이겨낸 소나무의 성질을 부각시켜 시련의 극복과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소나무가 온 곳이 천 길 바위 꼭대기라 하였다. ‘千’이라는 숫자를 써서 아무도 손닿지 않는 곳에 있어서 高古하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처음에 얼마 안되는 크기지만 자연이 주는 역경엔 끄덕없이 견디

147) 『陶隱集』 권 2 <李氏園中松竹梅蘭四詠 次陽村韻> pp. 142~144.

148)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넥서스, 1998, 463.

는 고고한 품격을 지니고 있다. 고요한 탐상에 소나무의 성긴 그림자가 드리우니 텅 빈 봉창은 소나무의 기상이 넘치는 기운을 받아들인다. 속물은 소나무에게 근접하려하지만 소나무는 손을 휘둘러 俗物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한다. 소나무를 통하여 시련 속에서 굴하지 않고 속물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이송인의 속내가 드러난다. 고요한 탐상은 속세를 벗어난 장소이다. 이송인시의 품격이 高古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엿 볼 수 있다.

둘째 수는 대나무에 대하여 읊은 시이다. 『詩經』 「衛風」 <淇奥>에 “瞻彼淇奥 綠竹猗猗 有匪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sup>149)</sup>라고 하여 대나무를 군자에 비유한 것이 보인다. 대나무가 군자에 비유된 것은 대나무의 본성이 유교적 윤리 도덕의 완성체인 君子와 그 관념적 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sup>150)</sup> 대나무는 곧은 마디에 속이 비어 있어 선비들의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선비는 의례 대나무 몇 그루 째은 울타리 안에 심어두고 자신의 경계로 삼았다. 선비 중에 지조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겉으로는 그럴듯하여도 진심으로 절개가 있기는 쉽지 않다. 대나무가 바람에 부딪히면 그 소리는 무섭기도하고 쓸쓸한 느낌이 나기도한다. 마지막 구에서는 쫄의 顧悅之가 簡文帝와 동갑이었는데도 이른 나이에 머리칼이 하얗게 세자 황제가 이유를 묻자 “蒲柳之姿 望秋而落 (신은 갯버들 같은 체질이라서 가을이 가까워지기만 해도 벌써 낙엽이 지고 맙니다.)”라고 대답한 고사를 인용하였다. 대나무와 기질이 대조가 되는 힘없는 가을 버들이 쓰임이 없다는 것을 읊음으로써 대나무의 곧음을 더욱 강조하였다.

‘저 대나무도 하나의 식물이다. 식물이 霜露를 만나면 급격하게 변해서 가지가 꺾여 부러지고 낙엽 쩌 떨어져서 더 이상 생기가 없어지고 만다.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우고 있는 식물 모두가 이러한데도 오직 대나무만은 가지도 여전하고 잎도 여전

149) 『詩經』 「衛風」 <淇奥> “저 淇水 벵랑을 보니 푸른 대나무 야들야들하도다. 문채나는 군자여 잘라놓은 듯 다듬어 놓은 듯 쪼아놓은 듯 갈아놓은 듯하도다.”

150) 이상희, 앞의 책, p.500.

한 가운데 홀로 우뚝 서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예로부터 운치 있는 사람들과 절개 있는 선비들 거의 대부분이 대나무를 사랑하였으며, 심지어는 此君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아, 사람의 속성을 살펴보건대, 눈으로 色을 취하고 코로 냄새를 취하고 귀로 성음을 취하고 입으로 滋味를 취하고 四支로 안일을 취하는 과정에서, 저 양심을 해치게 되는 것들이 어찌 식물이 상로를 만나는 정도로만 그칠 뿐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서 이에 대해 피할 줄 아는 자는 드물기만 하다.’<sup>151)</sup>

이승인은 <霜竹軒記>에서 대나무에 대한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상의 보통 식물들은 서리를 만나면 쓰러지는데 대나무는 홀로 우뚝 서서 향기를 발하니 선비들이 대나무를 절개의 상징으로 여기며 사랑하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 수는 梅花詩이다. 李氏의 집에 정갈한 방이 하나 있다. 환한 낮에도 열리지 않는 방에 손님이 왔다. 佳客이 일찍 핀 매화를 감상하러 와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頸聯에 먼저 핀 매화의 모습을 ‘玉艷’, ‘金鬚’ 이라 하여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매화꽃 고운 모습을 ‘玉’, ‘金’을 첨가함으로서 매화꽃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였다. 시인으로서 섬세함을 드러내 보이는 구절이다. 이 佳客은 새벽녘이 될 때까지 매화 향에 취해서 잠 못 이루고 정원을 배회하고 있다. 곧 자신을 가객이라 표현함으로써 매화꽃과 동일시 하고자 하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넷째 수는 난초 주위를 걷다가 바람결에 실려 오는 蘭香의 그윽함에 취해 읊은 시이다. 『花下漫筆』에 “난은 꽃이 적고 향기가 많으니 ‘香聞十里’라고 함이 반드시 턱없는 漢文式의 과장만은 아니다. 蘭花를 香祖라 또는 第一香이라 이름함이 어찌 이유가 없음이라.”<sup>152)</sup>라고 한 것에서 보이듯이 蘭香은

151) 『陶隱集』 권 4 <霜竹軒記> p.460. “夫竹一植物耳 植物之遭霜露 其爲變烈矣 摧折隕墜 無復生氣 盈兩間之間者皆是 而竹也不改柯易葉 挺然獨秀焉 是以 古之韻人節士率多愛之 至有以此君目之者焉 噫 人之爲物也 色之於目 臭之於鼻 聲音之於耳 滋味之於口 安佚之於四支 其所以戕賊夫良心者 何趨植物之霜露哉 人於是乎知免者鮮矣.”

152) 文一平, 『花下漫筆』, 三星文化財團, 1974, p. 100.

멀리까지 은근히 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一掬’은 후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형체가 없는 향기를 마치 손으로 잡은 듯이 표현하였다. 후각적 이미지를 촉각적 이미지로 전환하여 蘭香의 느낌을 더욱 살린 것에서 시인으로서의 능력이 드러난다.

난초는 친구간의 사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周易』〈繫辭傳上〉에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쇠도 자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서는 난초 향기가 풍겨 나온다.)”라는 말이 나온다. 난초는 알맞은 조건의 장소가 아니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곳에서 잘 재배하여야한다. 주위에 난초를 해칠만한 식물이 없는 곳으로 잘 택해 심었다. 난초는 비와 이슬을 먹고 자라니 참 깨끗하고 정갈하다. 그런 정갈한 성품을 지닌 난초는 사람을 훈도하는 벼이 되어 天光을 발한다. 이씨와 자신과의 友情을 난초에 빗대어 말하여 두 사람이 절친한 친구이며 정신 세계의 경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雨中看牡丹>

嬌嬈無力任支撐	애교만 부릴 뿐 몸을 가눌 힘도 없이
笑臉初開尙宿醒	웃는 뺨은 아직 술이 덜 깬 듯
雨濕紅粧終不管	붉은 화장 빗방울에 젖거나 말거나
憐渠元自大慙生	워낙 철없이 천진해서 어여쁘기만 <sup>153)</sup>

비가 오는 날 모란을 보고 읊은 것이다. 『古文眞寶』의 周惇頤 <愛蓮說>에 “牡丹 花之富貴者也(모란은 꽃 중에 부귀한 자이다)<sup>154)</sup>에 보이듯이, 모란은 부귀를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모란은 꽃이 화려하고 豐艷하려 위

153) 『陶隱集』 권 3 <雨中看牡丹> p. 374.

154) 성백효 역주, 『古文眞寶』 <愛蓮說>, 전통문화연구회, 1999.

엄과 품위를 갖추고 있는 꽃이다. 그래서 富貴花라고 하기도 하고 또 花中王이라고 하기도 한다.<sup>155)</sup> 모란의 이러한 기존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 시에서는 모란을 가련하고 어여쁜 여자의 모습으로 의인화하였다. 모란은 꽃잎이 큰데다가 비에 젖으니 축축 휘늘어진다. 그 힘없는 모습이 교태스런 여인같다. 붉은 색 뺨을 술에 덜 깬 듯하다고 표현함으로써 화려하면서도 여린 모습이 더해진다. 꽃을 두고 ‘嬌嬈’라 하여 교태스런 여자를 표현하고 ‘笑臉’이라 하여, 마치 예쁜 여자를 앞에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정밀하고 洗鍊된 느낌을 자아내었다.

모란은 선비들이 좋아하기 보다는 대개 富貴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 벽에 걸어두고 富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모란은 꽃의 크기가 커서 화려하여서 가련하다는 이미지와 동떨어진 꽃이다. 이송인은 선비임에도 모란을 가까이서 보고 비에 젖은 모란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옳은 것에서 사물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보다는 순간에 보여지는 흥취를 그려내려는 시인으로서의 眞面目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櫻桃>

粲爛朱櫻熟 빨강게 익은 앵두 열매 반짝반짝  
團圓湛露濡 동글동글 이슬 함초롬히 머금었네  
摘來盤上看 따다가 소반 위에 올려놓고 보니  
箇箇是明珠 날날이 투명한 진주 구슬이로다<sup>156)</sup>

앵두를 사실 그대로 묘사하였다. 화자는 빨간색을 띠면서 아주 잘 익은 모습을 찬란히 빛이 날 정도라고 찬탄하였다. 완전히 익은 그렇게 붉은 앵두에 동글동글한 이슬이 그 위에 맺히니 붉은 색은 더 선명하고 둥근 앵두의

155) 이상희, 앞의 책, p. 183.  
156) 『陶隱集』 권 3 <櫻桃> p. 285.

모양이 더욱 둥글게 보인다. 따다가 소반 위에 올려 놓고 보니 따기 전 나무에 달려 있던 때보다 더욱 둥글고 붉은 것이 밝은 진주같다. 앵두의 익은 빛을 ‘粲爛’라 표현하여 빨간 색을 더 강조한 것이나, 앵두를 ‘明珠’라 하여 구슬에 비유하여 둥그란 모양을 강조하여 묘사한 것에서 시인으로서의 감수성이 돋보인다. 앵두의 맛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미각을 자극하여 먹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한다. 이송인의 스승인 목은 이색도 앵두에 대해 읊은 “的的圓珠滿漆盤/赤光相射走難安/天公購物真奇巧/既帶微甘又帶酸(빛나는 둥근 구슬 검은 소반에 가득한데/붉은 빛 서로 쏘며 어지러이 굴러다녀/하늘이 사물에 부여한 품성 참으로 기묘하구나/조금 단 맛에 신 맛까지 띠게 하다니)”<sup>157)</sup>가 있다. 목은 이색의 시에 앵두를 표현하는데 ‘圓’, ‘珠’를 공통적으로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목은은 앵두의 단맛과 신맛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그에 반해 이송인은 앵두의 맛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맛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의 묘를 살린 점이 바로 이송인의 시인으로서 역량이 돋보이는 점이다. 五言絶句의 짧은 문장 속에서 앵두 모양을 簡潔하게 표현하였다.

<詠可遠宅瑞香>

明窓烏木机 밝은 창 그리고 검은 색 궤안  
 宴坐樂幽獨 홀로 그윽한 경지 즐긴다  
 斯人對此花 이 사람이 이 꽃을 대할 때마다  
 直須冠佩觀 꼭 의관을 정제하고 바라본다네 <sup>158)</sup>

이 시는 권근의 집에 있는 서향화에 대해서 읊은 시인데 서향화의 상세한 모습을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시를 읽으면 서향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느끼게 한다. 瑞香花는 이름 그대로 상서로운 향기가 나는 꽃이다. 조선의 문

157) 『牧隱詩藁』 권 16 <詠櫻挑>

158) 『陶隱集』 권 3 <詠可遠宅瑞香> p. 282.

인인 姜希顔은 서향화에 대해 “一萼纔綻 清香滿庭(꽃 받침 하나가 겨우 터지게 되면 맑은 향기가 뜰에 가득해지고)”<sup>159)</sup>라 하였고, 목은 이색은 “窻中開遍 瑞香花, 擊出清明香滿家(서향화가 움 속에서 흐드러지게 피었기에 청명일에 받들고 나오니 향기가 집안 가득)”라는 詩句를 남겼다. 서향화는 습기를 싫어하고 햇빛을 두려워한다. 기르기가 쉽지는 않으나 향기는 멀리에서도 맡을 수 있다. 향기가 천리 간다고 하여 千里香이라고도한다. 밝은 창에 검은 색의 궤안이 있는 조촐한 선비의 방에 해가 밝게 비취니 검은색이 더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궤안에 편히 기대어 홀로 그윽한 경지를 즐기고 있다. 이러한 경지에서 대하는 서향화는 꽃 모습을 그려 놓지 않아도 꽃을 대하는 남다른 모습에서 그 꽃의 귀하고 아름다움을 상상하게 한다. 마치 사람을 대하듯 의관을 정제하고 꽃을 대하고 있다. 서향화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원 권근의 성품을 알 수 있다.

<再呈尹判書求瑞香 (靑葉紫花最香譜云)>

床頭置易淨無塵	책상에 놓인 주역은 먼지 없이 깨끗하고
日色烘窓暖似春	창을 데우는 햇볕은 따스하기 봄 같아라
靑葉紫花香可愛	푸른 잎 보라색 꽃 그 향기 사랑스러우니
煩公擔送伴幽人	화분 보내 은자와 벗하게 해 달라고 <sup>160)</sup>

이 시도 역시 서향화에 대해 읊은 시이다. 췌나라 王湛이 주역에 능했는데 그의 책상에는 항상 『周易』이 놓여져 있었다. 『주역』을 항상 읽고 있으니 먼지가 덮힐 사이가 없을 만큼 주역을 가까이하고 易學에 대해 실력도 있다는 것이다. 이송인도 王湛처럼 주역에 능함을 빗대었다. 서향화는 겨울과 봄

159) 權鼈, 『海東雜錄』 「姜希顔」 권2, 김재욱, 『목은 이색의 영물시』, 도서출판 다운샘, 2009, p.77. 재인용.

160) 『陶隱集』 권 3 <再呈尹判書求瑞香 (靑葉紫花最香譜云)> P.384.

사이에 꽃이 핀다. 따스한 햇볕이 봄별같음을 느끼며 꽃 필 시기가 된 서향화를 보고 싶은 생각이 난다. 으레 그 계절이 되면 그 계절에 맞는 꽃이나 음식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특히 보라색 꽃의 향기가 짙다고 하니 화분을 갖고 싶은 마음에 윤판서에게 서향화를 보내달라고 쓴 시이다. 자신을 은자라고 하여 속세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인품을 지녔다는 자부심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題神孝寺息師蒲萄軒 與達可敬之諸公同賦>

息師方丈儘清幽	식 스님의 방장은 정말 맑고 그윽하고
樓外蒲萄一架秋	누대 밖의 포도는 한 시렁 가을이로세
最好滿盤堆馬乳	가장 좋은 것은 소반 가득 쌓인 마유
何須作酒博涼州	술 만들어 涼州 얻을 필요나 있으리오 <sup>161)</sup>

식 스님의 방장은 맑고 한적한 곳에 있다. 거처하는 곳에 따라 사람의 성품도 닮아가듯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사는 식 스님의 정신세계 역시 맑다는 것이다. 식 스님의 거처 이름이 葡萄軒인 것으로 보아 주변에 포도나무가 많다는 짐작이 간다. 때는 가을이라 방장이 있는 樓의 밖에 잘 익은 馬乳(포도의 품종)가 있다. 소반 가득히 따 놓은 포도의 풍성함에서 그 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넉넉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後漢때 張讓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바치고 涼州 땅을 얻은 맹타의 고사를 들었다. 소반 가득한 포도만으로 더 바랄 것이 없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若有杖歌>

有杖兮從何來	그대 지팡이여 어디에서 왔는고
會同館中初見之	회동관 안에서 그뎨 처음 보았지

161) 『陶隱集』 권 3 <題神孝寺息師蒲萄軒 與達可敬之諸公同賦> p. 348.

不短不長尺度足  
匪雕匪刻形狀奇  
有時微呵香液生  
觸以爪甲鏗然鳴  
通事老鄭持見惠  
既得奚啻錫百朋

京都酒樓與歌市  
江淮青兗數千里  
八仙祠下海連天  
華表柱邊道如砥

我或昂首吟高低  
我或帶醉迷東西  
或上孤舟破巨浪  
或降野丘登山蹊  
苟非此物早扶我  
半塗定是顛躋者  
從來會遇豈在天  
論功不必居人下  
陶翁托爾比弟兄  
寸心耿耿神明通  
胡爲一日忽不見  
茫然四顧尋無蹤  
嗚呼吾固知爾之爲龍

길지도 짧지도 않게 길이가 적당했고  
조각도 하지 않았건만 형상이 기이했네  
이따금 살짝 불면 향액이 스며 나왔고  
손톱으로 튕기면 째하고 맑게 울렸지  
정 통사 노인의 배려 얼마나 고마운지  
백봉의 선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네

경도의 酒樓에서 함께 마시며 노래했고  
장강과 회하, 청주와 연주 수천 리 길 동행했지  
팔선사 아래 바다와 하늘 맞 닿은 곳에 갔었고  
화표주 주변의 길은 숫돌처럼 평탄했지

내가 고개 쳐들고 높고 낮게 읊조릴 때  
내가 취기 띤 채 동서를 분간 못할 적에  
외로운 배에 올라 거대한 파도를 헤쳐 갈 때  
들 언덕을 내려오고 산길을 오를 때도  
진실로 그대가 나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길가에서 분명히 엎어져 쓰러졌겠지  
어쩌면 하늘의 뜻 있어서 만났을지도  
그대의 공 논한다면 사람 아래 있지 않으리  
도옹이 그대 의지하며 형제에 비할 정도고  
속마음에 못 잊어서 신명 통했으련마는  
어찌하여 어느 날 홀연히 보이지않아  
아무리 찾아도 종적을 몰라 아득하네  
오호라 내 진정 알겠도다 그대가 용이 된 것을

嗚呼吾固知爾之爲龍 오호라 내 진정 알겠도다 그대가 용이 된 것을<sup>162)</sup>

작자가 지팡이를 소재로 읊은 이 작품은 시의 序에 설명이 되었듯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會同館에 머물렀을 때 다리가 아파 걷기가 어렵게 되자 通事 鄭連이 선물로 준 지팡이에 대한 시이다. 자신을 오래 동안 부축해준 지팡이를 잃어버리고 읊은 시인데 微物에게조차 고마움을 가지는 이송인의 성정을 알 수 있다.

첫째 수는 지팡이의 모양을 그대로 묘사하였다. 지팡이의 길이가 길지도 짧지도 않아 이송인이 쓰기에 딱 적당한 길이다. 선물한 사람인 정통사의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애써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 기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형상이 기이했다는 것으로 보아 신선이나 도인이 짚고 다니는 독특하게 굽어져있는 모양인 듯하다. 살짝 불면 향기도 나고 손톱으로 튕기면 맑은 소리도 나니 시각, 후각, 청각적으로 어디하나 손색이 없는 멋진 지팡이다. 여러 가지로 딱 알맞은 것을 받았으니 다른 어떤 선물보다 귀하게 여겼다. 『詩經』 「小雅」 <菁菁者莪>의 “既見君子 錫我百朋 (군자를 만나 뵈 이 기쁨이여, 마치 寶貨를 나에게 내려주신 듯하도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지팡이의 가치가 百朋보다 높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수는 七言絶句로 지팡이와 동행한 장소에 대해 읊었다. 저자거리, 장강, 청주, 연주, 팔선사 등 이송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한 몸처럼 지니고 다녔다. 華表柱는 교량이나 궁전, 성문 앞에 장식용으로 세우던 거대한 돌기둥이다. 華表柱 주변의 길은 가파르고 힘든 길일텐데 지팡이 덕에 숫돌처럼 평탄히 느낄 정도로 잘 다닐 수 있었다. 비록 미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지탱해준 지팡이는 고마운 존재이다.

셋째 수는 온갖 일상을 함께해 준 지팡이의 도움이 얼마나 편했는지를 적었다. 술에 취하여 동서를 분간 못할 적에 지팡이가 나침반 역할을 했다는 것

162) 『陶隱集』 권 1 <若有杖歌> pp. 88~90.

으로 과장해서 표현한 것은 그만큼 도움이 컸다는 말이다. 특별히 ‘외로운 배’라고 함은 외로울 때 지팡이가 친구처럼 의지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배에 올라 거대한 파도를 헤칠 적에, 산길을 오를 적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지탱하게 해 주었다. 이 지팡이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일 것이다. 이렇게 한 몸으로 지니고 다니던 수족같은 친구인 지팡이를 잃어버렸으니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팡이가 도은에게 끼친 공은 형제나 절친한 친구에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서 찾아봐도 찾아봐도 자취를 모르는 지팡이에 대한 마음은 신명에 까지 닿았을 것인데도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하다. 지팡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팡이가 龍이 되었을 거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달래고 있다.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도 불우하게 마무리 하지 않고 신선 호공이 즐겨 쓰던 지팡이가 용이 되어 날아갔듯이 자신의 지팡이도 용이 되어 날아갔을 것이라는 다독임은 이송인의 긍정적인 정신세계를 볼 수 있다.

이송인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가령 소나무와 대나무는 절개를 상징한다든지 하는 것에서는 그 사물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모란에서처럼 통념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와 다른 각도로 사물을 보기도하였다. 지팡이를 소재로 한 시에서 무생물에 생명력을 불러 넣어 의인화하여 한 편의 이야기로 전개하여 시인의 정서를 담아냈다.

### 3. 省察과 述懷의 自己 表現

述懷란 자신의 懷抱를 풀어 서술하는 것이다. 시에서 어떤 주제를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表出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시를 述懷詩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불교적 색채를 띤 시를 불교시, 대상 사물을 읊

은 시를 영물시라 분류하면서 순수하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심정을 토로한 시를 술회시로 보았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거나 한탄하지 않고 자기 省察을 통해 肯定的으로 자신의 정감을 풀어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소재들로 한정된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며 시적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

### 1) 省察을 통한 肯定意識 表出

自訟復自訟    나 자신을 꾸짖고 또다시 꾸짖나니  
 予胡不自惜    어찌하여 내가 조심하지 않았나  
 余生免襁褓    태어나서 강보 신세 면하자마자  
 汲汲事經籍    경전 공부 하느라고 겨를이 없었고  
 結交盡豪英    교분 맺은 이들 모두 영웅호걸뿐  
 秉心尙強直    마음가짐 역시 강직함을 숭상하였네  
 猜嫌滿人胸    사람들 가슴에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건만  
 不逆仍不億    미리 의심하지 않고 헤아리지 못해<sup>163)</sup>  
 忽嬰縲紲間    갑자기 오랏줄에 묶인 신세 되었으니  
 倚伏頗難測    화복의 인연관계<sup>164)</sup> 실로 예측 어려워라

遂同二三子    마침내 여러 동지 함께하며  
 埃罪天南極    남쪽 끝서 임금님 처분 기다리는데

163) 『논어』 「憲問」에 “不逆詐 不億不信 (속임수라고 미리 의심하지도 말고,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억측하지도 말라).”라는 말이 나온다.

164) 『老子』 58장의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화 속에 복이 기대어 있고, 복 속에 화가 었드려 있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自顧無寸鐵 돌아보니 작은 무기 하나도 없이  
何緣鑄此錯 어째서 이런 착오 빚어냈는지

尙賴君相明 되려 임금 재상이 밝은 덕택에  
幽微無不燭 소소한 일까지 환히 살펴 주셨네  
非久蒙寬恩 오래잡아 관대한 은사를 받고  
歸隱故山麓 고향 산골 돌아와 숨어 살게 되었네  
麾手謝時人 이젠 세상 사람들 손 저어 사절하고  
息機友麋鹿 機心 내려놓고 사슴과 벗하리  
歌予自訟篇 자신을 꾸짖는 시 노래하면서  
聊當紫芝曲 그런대로 자지곡에 대신 하노라<sup>165)</sup>

陶隱은 네 번의 유배와 복직을 반복하는 등 정치여정이 순탄치 않았다.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이 시는 몇 번째 유배 후에 쓰여 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 도입부에서부터 ‘自訟’을 반복 사용하여 자신을 꾸짖는 강도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일생을 이야기하듯 서술형식을 취하였다. 태어나서 강보를 벗어나자마자 경전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하여 책 속의 인물들과 교분을 맺었다. 儒家의 기본서인 四書五經을 비롯하여 다방면의 책을 읽었다. 그는 <秋夜感懷>에서 ‘典謨含元化 雅頌諧鏗鏘... (『서경』의 전모는 원화를 머금고 『시경』의 아송은 악성을 조화시키는데...)’<sup>166)</sup>라 읊었고, 여러 편의 시 중에서 시경의 편명을 직접 인용한 것이 다수 보이는 점에서 시경을 즐겨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또 詩속에서 불교 서적도 애독하였음은 <楞嚴經>, <楞伽經>을 인용한 것에서 드러난다. 책을 통하여 지식을 얻어 지혜롭고자 하였고 책 속의 영웅호걸들처럼 강직함을 숭상하였다. 이렇게 자신을 닮는 데만 열중

165) 『陶隱集』 권1 <自訟> p. 51.

166) 『陶隱集』 권1 <秋夜感懷> p.41.

하느라 주변을 살피며 돌아볼 줄 몰랐음을 자책하고 있다. 자신의 강직함도 중요하지만 신하로서 어떤 대비함도 없었다고 스스로를 깨우치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출세를 위해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이 승인은 미리 의심하지 않고 안일하게 있다가 갑자기 모함에 빠져 곤란을 당하게 되었다.

여러 동지들과 귀양 가는 신세가 된 후에야 스스로 돌아보니 아주 작은 무기도 없으면서 태연히 있다가 당하였음을 깨달았다. 첫 번째·두 번째 시에서 귀양 가게 된 경위를 서술하였고 세 번째 시에서 복귀된 소감을 읊었다. 자신의 억울했던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明’, ‘燭’, ‘寬恩’을 써서 임금의 德을 칭송함으로써 忠節을 드러내었다. 임금이 살려준 은혜로 풀려나서 고향에 隱居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시의 4句까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들을 나열식으로 엮었고, 마지막 4구절은 앞으로의 소망을 읊었다. 돌아보고 돌아본 결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도 손 저어 사절하고 出世에 대한 마음을 접고서 시나 지으면서 지내고 싶다는 것이다.

시 전체에서 ‘自訟’을 세 번 반복하고, ‘自惜’, ‘自顧’의 표현으로 자기성찰의 모습으로 시작하여 끝은 ‘紫芝曲’을 인용해 고향에 돌아와서 유유자적할 수 있음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秦나라 말기에 東園公, 綺里季, 夏黃公, 甬里先生 등 이른바 四皓가 폭정을 피해 商山에 들어가서 紫芝를 캐며 부른 노래 가사에 “富貴之畏人 不如貧賤之肆志(부귀해서 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천해도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낫다)”는 시구절의 내용이 바로 이 승인의 현재의 마음이다. 인위적으로 문장을 꾸미지 않고 平淡하게 자신의 감회를 써 내려간 것이 이 시의 특징이다.

河縣黎明發 하현을 떠난 것은 동트는 새벽  
 梨山向夕行 이산을 걸을 때는 어스름 저녁  
 衆峯龍虎擲 뭇 산들은 용과 범이 싸우는 형세  
 陰壑籟簫鳴 어두운 계곡에선 피리 소리 울리네  
 僵僂人疑老 바짝 구부리니 노인된 듯 느껴지고  
 凌兢馬若驚 벌벌 떠는 것을 보니 말도 놀란 듯  
 何須憂此險 이 길이 험하다고 하필 걱정하라  
 世路亦崢嶸 세상길도 가파르긴 마찬가지로<sup>167)</sup>

하현에서 출발할 때는 새벽이었는데 이산을 걸을 때는 저녁이다. 이 시간의 흐름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작자의 인생여정의 새벽과 저녁을 이야기한다. 자신이 걷고 있는 주변의 산세는 용과 범이 싸우는 형세로 아주 험난하다. 설상가상으로 어두운 계곡에서 음산한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음까지 오싹해 진다. 外物에 흔들려 몸을 잔뜩 구부리니 마치 자신이 노인이 된 듯하다. 내가 움츠리니 말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이 떨고 있지만 걱정만 하고 휘둘릴 수는 없다. 尾聯에 산길의 험난함은 바로 세상길,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산의 형세가 용과 범이 싸우는 형세로 보여지는 것, 자연의 소리가 스산한 피리 소리로 들리는 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정치 상황, 세상 풍파의 험난함을 암시는 것으로, 尾聯의 ‘世路亦崢嶸’과 잘 호응되게 그려 놓았다. 여정 중에 느끼는 감회를 읊어 자신의 마음을 복돋우고 있다.

天末秋廻尙未歸      하늘 끝에 가을 다시 왔건만 아직 못 가니  
 孤城落照不勝悲      외로운 성 지는 해에 슬픔 누를 수 없네

167) 『陶隱集』 권2 <自河濱過梨嶺> p. 152.

曾陪鵷鷺趨文陛<sup>168)</sup> 전엔 백관 모시고 조정 출입하였는데  
 今向江湖理釣絲 지금은 강호에 와 낚싯줄을 드리우네  
 骨自罹讒成大瘦 몸은 참소 당한 뒤로 매우 수척해졌어도  
 詩因放意有新奇 시는 거리낌 없어져서 신기한 것 얻는다네  
 明珠薏苡終須辨 명주인지 울무인지 언젠가는 알겠지만  
 只恐難調長者兒 큰 귀족 자제들과 어울리기 힘든 것이 걱정될 뿐<sup>169)</sup>

이 시는 유배 중에 쓴 시로써 계절은 변화 되었지만 자신의 처지는 그대로임을 탄식한 시이다. 세월이 흐르면 자신도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지냈는데 현실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首聯의 하늘 끝이라 표현함은 단순히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末’에서 자신이 있는 곳이 세상과는 멀다는 거리·공간적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며, ‘尙’에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孤城’에 빗대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落照’에 비유하였다. 頷聯은 예전에는 백관의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낙향하여 낚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포부를 펴야하는데 낚시를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읊었다. 頸聯에서는 자신의 몸은 많이 수척해졌지만 詩心은 오히려 활달해진 마음 때문에 더 새롭고 참신해진다는 것이다.

후한의 馬援이 交趾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薏苡를 싣고 왔는데, 그의 死後 明珠를 싣고 왔었다고 참소 당한 고사를 인용하여 오해는 언젠가는 풀릴거라는 것을 말하였다. 또 馬援이 蠻夷를 정벌하러 가면서 권세가들의 자제와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는 고사를 인용하여, 이송인 자신에 대한 오해가 언젠가는 풀려서 관직에 나아간다 해도 권세가의 후예들과 같등을 빗게 될 것이 염려된다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168) 원추새와 백로: 두 새는 모습이 閑雅하고 질서가 있다 하여 조정 반열에 들어선 백관을 비유하는 말로 곧잘 쓰인다.

169) 『陶隱集』 권2 <秋迴> p. 250.

리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시이지만,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시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을 다독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斜陽猶在樹    저녁 햇빛 아직 나무에 걸려 있는 때  
立馬問人家    말 세우고 인가를 물어 보네  
春草生墟巷    봄풀은 황량한 거리에 돌아 나오고  
江舫閣岸沙    강가의 배는 모래 언덕에 걸려 있네  
地窮山趾斷    궁벽한 땅엔 산기슭 끊어져있고  
天豁路歧賒    툇 트인 하늘아래 갈림길 멀다  
明日又明日    내일 그리고 계속해서 또 내일  
行行老奈何    길 위에서 이 노인네 어떻게 하나

深山寂寞境    깊은 산골 적막한 동네  
春雨連朝昏    연일 자욱이 봄비는 내리는데  
千里未歸客    천리 먼 길 돌아가지 못하는 길손  
多情獨倚門    정이 많아 홀로 문에 기대어 있네  
此時新鷺到    이 시절 새로 찾은 제비한테도  
何地舊巢存    어딘가에 옛 둥지가 있으련마는  
可惜含泥處    애석해라 진흙 물고 날아가는 곳  
都非去歲村    모두 작년 지낸 마을 아니로구나

蒼茫歲暮天    아스라이 한해 저문 하늘 아래는  
新雪遍山川    첫눈이 산천을 뒤덮었는데  
鳥失山中木    산새는 산속의 나무를 잃고

僧尋石上泉 스님은 돌 위의 샘을 찾누나  
 飢鳥號野外 들 밖에는 우짖는 굶주린 까마귀  
 凍柳臥溪邊 냇가엔 누워 있는 얼어붙은 버들  
 何處人家在 어딘가에 인가가 있는것인지  
 遠林生白煙 먼 숲에 흰 연기가 피어나누나<sup>170)</sup>

계절은 봄이요 시간적 배경은 해질 무렵의 저녁이다. 저녁은 나그네에게는 쉬어갈 곳을 찾아야하는 절박한 시간이다. 말을 세우고 人家를 물어보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고, 황량한 거리에 봄풀은 계절의 변화를 알리며 돌아나고 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데도 작자의 심정과 맞물려 오히려 처량함을 자아낸다. 모래 언덕에 배도 멈추어있으며 막힌 길에 산기슭도 끊어지는데다가 저 멀리 툭 트인 하늘 아래 갈 길은 멀다. ‘斷, 餘’에서 주위의 풍경이 작자의 현재 상황과 맞물리며 더 없이 쓸쓸함을 고조시키고 있다. 힘겨운 여정 속에 하루하루 걸어가야 하는 나그네 신세의 괴로움을 읊었다. ‘明日’을 반복 사용하여 과거의 많은 날들에서부터 계속해서 다가올 앞으로의 고난을 예측할 수 없음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 ‘老奈何’라고 탄식을 쏟아낸다.

이어 둘째 수에서도 나그네의 외로운 심경을 읊었다. 首聯의 풍경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深’, ‘寂寞’에서 외로운 심정이 한층 더해진다. 연일 내리는 봄비에 가는 길이 순조롭지 않다. 돌아가지 못한 길손은 작자 자신으로 ‘獨倚門’은 떠나간 사람을 기다리는 형상이지만 돌아가고 싶은 나그네의 마음을 逆으로 강조하고 있다. 봄, 제비라는 단어는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希望을 상징한다. 그러나 새로 찾아온 제비는 옛 둥지를 찾지 못하고 진흙을 묻고 새 둥지를 짓는다. 작자는 제비가 이렇게 옛 둥지를 찾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나그네로 갈 곳 잃고 서성거리

170) 『陶隱集』 권2 <失題> p. 201.

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였다

이 세 편의 시는 『韓國文集叢刊』 『도은집』에는 제목이 유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종직이 撰한 『靑丘風雅』에서 세 번째 수의 제목이 <新雪>로 되어 있다. 첫눈이 산천을 덮어서 새들은 앉아야 할 나뭇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시에서 눈은 앞길을 가리는 매체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으며 새는 작자 자신이기도 하다. 가야할 길에 고난이 덮고 있어 가지 못하는 자신을 비유하였다. ‘飢鳥’와 凍柳’ 모두 어려운 주변 환경이다. 尾聯에서 먼 숲에서 피어나는 흰 연기는 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또한 역경을 딛고 찾아가야 하는 미래이기도 하다. 시 전반에서 드러나는 좌절과 탄식의 기운을 걷어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獨坐山村夜 산골 마을에서 밤중에 홀로 앉아  
長更復短更 길고 짧은 更鼓를<sup>171)</sup> 모두 듣노라  
屏搖孤燭影 병풍에 흔들리는 외로운 촛불 그림자  
窓撼一溪聲 창문을 울리는 한 줄기 시냇물 소리  
歲律行將盡 한 해 십이 율이 다하려 하는 지금  
羈懷動輒驚 나그네 마음 걸핏하면 놀라곤 하네  
還思九街上 돌이켜 생각건대 도성의 넓은 거리에는  
塵土漲崢嶸 흙먼지 자욱이 일어 산처럼 뒤덮였으리<sup>172)</sup>

이 시는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벼슬에서 물러나 落鄉하여 지낼 무렵의 시이다. 그래서 산촌에 홀로 앉아 밤중의 시각을 알리는 경고 소리를 모두 듣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혀 잠들지 못하고 있다. 병풍에 촛불 그림자가 흔들리듯이 나그네의 마음도 따라 흔들리고 있다.

171) 밤중에 시각을 알리기 위해 치는 북소리.

172) 『陶隱集』 권2 <夜坐 次民望韻> p. 155.

‘搖’라는 시어에서 안정되지 못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首聯 ‘獨坐’에 이어 다시 頷聯의 ‘孤燭’, ‘獨’을 반복함으로써 외로운 심경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냇물 소리도 ‘一溪聲’이라 하여 주위의 경치마저도 외로운 심사를 더해 주고 있다. 하루의 마지막 즈음인 밤이나 한해의 마지막에는 자신을 성찰하는 때이다. 뜻하는 무엇이라도 성취된 것이 있어야하는데 여전히 안정되지 못한 상태 그대로이다. 예전에 관직에 있을 때는 곁에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롭고 문득 놀라는 마음만 가득하다. 고독 속에서 조용히 돌이켜 보면 도성의 거리에는 먼지가 산처럼 덮고 있을 듯하다. 먼지는 간신의 득세, 백성들의 곤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곳 산 중도 외롭지만 어지러운 도성에 있는 것보다는 어쩌면 자신의 상황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한다. 한편 자신이 뭔가 역할을 해야할텐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까지 슬며시 담아놓고 있다.

阿堵昏花未易醫	흐릿한 꽃 어른어른 쉽게 낫지 않으니
彼蒼嗔我好看詩	시 보기를 좋아한다 하늘이 나를 혼내나봐
逢人豈作嗣宗白	사람 만나 완적의 백안시 어찌하리
視物眞成老子夷 <sup>173)</sup>	물건 보면 노자의 이(夷)경지 진정 이룬다네
翻覆多時尤有味	번복 많은 시절이라 더욱 묘미 느끼겠고
妍媸擾處竟無知	곱다 추하다 떠들어도 아예 알지 못하겠네
閉門塊坐蒲團上	문 닫고 방석 위에 흙덩이처럼 앉았나니
遮莫兒曹笑大癡	천치 바보라고 아이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sup>174)</sup>

‘阿堵’는 육조 시대의 구어로 ‘이것’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눈’의 의미로도 쓰는 글자여서 여기서 눈은 가리킨다. 눈병이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

173) 老子, 『道德經』 14장. “視之不見 名曰夷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라고 한다.)”.  
 174) 『陶隱集』 권3 <眼疾> p.232.

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다. 너무 시를 좋아하여 열심인 자신에게 하늘이 눈병을 나게 했다는 것이다. 額聯에서 고사를 끌어다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운데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道の 경지에 대해 읊었다. 魏나라의 阮籍이 속된 사람을 만나면 白眼을 했는데 지금 이송인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도 눈병이 나서 눈을 흘겨 볼 수가 없다. 눈병이 나서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니 마음의 눈은 더욱 밝아져서 노자가 말한 ‘夷’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夷’는 형체가 없는 도를 유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세상사 번복이 많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느끼니 더욱 묘미가 있고, 시각이 불편하여 是非를 판별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무심해진 속에서 마치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간 것 같다. 이참에 문 닫고 흠뻑이처럼 앉아 미동하지 않으니 아이들조차 바보라고 비웃을지라도 상관없다. 이 시는 눈병에 걸렸지만 마음의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타인의 이목에 상관하지 않게 되어 역경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는 긍정적 의식을 보여준다.

每年逢夏月    해마다 여름철이 되기만 하면  
 移病掩柴門    병가를 내고서 사립문 달네  
 藥物新陳雜    약물은 새것 묵은 것이 뒤섞여 있고  
 方書左右紛    처방전은 좌우에 널려있는데  
 眇庭柯正密    뜰을 보니 나무들 우거져있고  
 藉逕草還蕃    길은 다시 잡초로 무성구나  
 盡日聒音絕    종일토록 발자국 소리 없으니  
 幽懷亦自欣    그윽한 회포 또한 절로 즐거워<sup>175)</sup>

이 시는 자신의 日常生活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해마다 여름철에

175) 『陶隱集』 권2 <病中> p. 97.

병가를 냈다는 것으로 보아 이승인은 더위에 약했던 모양이다. 아픈 사람이 있는 집안 풍경을 그대로 묘사해놓았다. 이 시는 마치 현재의 우리 주변의 일상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것저것 정리가 안 되어 약과 처방전이 이리저리 흩어져있고 정원에 나뭇가지도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여 뻑뻑한 채 그대로이다. 여름에는 하루만 잡초를 뽑지 않아도 풀이 금방 무성해지는데 잡초를 뽑지 못하여 길을 가릴 정도가 되었다. 사립문도 닫아 놓았으니 종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좋지 않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오히려 조용한 시간을 홀로 즐기고 있다. 특별한 미사여구 없이 평이하게 쓰여진 시이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한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병약함 중에도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데서 묘미가 있다. 아픈 사람의 행색이지만 자유로움을 즐기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써 내려간 평담하고 간결함이 돋보이는 시이면서 긍정적 의식이 드러나 보인다.

이승인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험난한 길에 맞닥뜨렸을 때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려는 긍정의식이 詩에 나타난다. 나그네의 신세에 있을 때도 자신을 살펴보며 역경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눈병이 걸리거나 病中에 있을 때도 그 고통을 逆으로 이용하여 한 단계 성숙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시에 드러난다.

## 2) 日常 속의 閑靜과 感興

病裏春歸大劇忙	병중에 떠나는 봄 어찌 그리 바쁜지
蔥蔥綠葉露華光	우거진 푸른 잎새 이슬방울 반짝이네
東風可是無情思	봄바람은 이토록 사람 마음 몰라주나

吹送餘花過短牆

남은 꽃잎마저 담 너머 날려 보내다니<sup>176)</sup>

病中에 떠나는 봄을 아쉬워하면서 읊은 것이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데 이송인은 병을 떨치지 못한 채 그냥 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외물의 변화는 그 사람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따라서 약해지기 마련이니 눈앞에 보이는 사물도 여느 때와 다르게 보이고 계절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진다. 劇忙에 ‘太’를 더하여 떠나는 봄에 대한 체감 정도가 빠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늦봄이라 꽃잎은 거의 다 떨어지고 그 자리에 잎이 돌아난 모습을 承句에서 볼 수 있다. 녹음이 점점 우거진 잎에 이슬방울이 반짝이고 있고, 꽃이 거의 떨어지고 남아 있는 몇 송이에서 아직도 계절이 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그런데 봄바람은 무정하게도 떠나는 봄을 아쉬워하는 작자의 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꽃잎마저 날려버린다. ‘餘花’에서 이송인이 남아있는 봄을 아쉬워하면서 즐기는 마음을 알 수 있다. ‘吹送’을 써서 봄바람을 의인화하여 때가 되어 저절로 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야속한 바람이 때문이라 원망이 섞인 어조로 표현하였다. 마지막 꽃잎과 함께 봄이 담 너머로 가는 듯한 結句의 표현은 해학적인 표현으로 산뜻하면서 세련미 넘치는 이송인의 시적 감수성을 엿 볼 수 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과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태도를 담담하게 서술하였다.

手談相對小窓間

작은 창가 마주 앉아 손으로 대화하는데

簷雨蕭蕭映碧山

낙숫물 쓸쓸한데 어리비치는 푸른 산

勝負固應關一下

승부 진정 한 수에 판가름 날터인데

機深却似十分閑

機心은 깊으련만 되려 한가한 듯<sup>177)</sup>

176) 『陶隱集』 권3 <春歸> p.345.

177) 『陶隱集』 권3 <觀人圍棋> p.352.

말없이 바둑을 두는 것을 ‘手談’ 즉, 손으로 이야기한다고 표현한 것에서 시인으로서의 멋스러움을 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 동시에 대화를 듣는 것이 된다. 起句와 承句에 청각과 시각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짧은 絶句이지만 단조롭지 않다. 작은 창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간이 크지는 않을 것이어서 더더욱 세 사람의 교감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안이 고요하니 처마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고, 부슬부슬 오는 비에 티끌조차 씻겨 산색은 더욱 푸르다. 낙숫물 사이로 보이는 푸른 산을 배경으로 두고 작은 창에 비치는 세 사람은 마치 신선의 세계를 연상케하는 한 폭의 그림같은 풍경이다. 두 사람이 한 수 한 수 두는 것을 이송인은 마치 심판관이 된 듯 지켜보고 있다. 모든 사물이나 일이 한 발 물러나면 더 객관적으로 넓게 보이는 법이니 관객은 이미 승패를 알고 있는듯하다. 승패가 있는 바둑을 두는 데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두 사람 모두 깊겠지만 겉으로 그 수를 읽히지 않고자 태연자약한 척 한다. 마음속의 고민과는 달리 마치 한가한 듯 보여지는 모습을 재치 있게 표현 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마음을 ‘深’을 통해 드러낸 것은 이미 구경하고 있는 도은도 이 수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둑은 내면의 대화이다. 관찰자로서 그들의 고심을 잘 파악하여 승부가 판가름 나기 전의 긴장감을 깔끔하게 표현하였다.

御溝清淺柳陰間	버들 그늘 사이 도랑은 맑고 얇은데
繞檻緣階碧玉寒	난간 감고 섬돌 따라 벽옥처럼 차가워라
地禁何曾春鳥管	봄 새들 연주 언제 금한적 있나?
一聲啼破午眠閑	한 소리로 울어제껴 한가로운 낮잠을 깨우네 <sup>178)</sup>

이송인이 당직을 서고 있는 궁궐의 풍경이 한 눈에 드러나는 시이다. 도

178) 『陶隱集』 권3 <直廬晝眠> p. 353.

랑물이 작자가 있는 곳의 건물을 둘러싸고 흐르고 있다. 도랑에 버들그늘 드리워진 사이로 투명하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 건물의 난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물은 옥을 처음 만졌을 때처럼 차다. ‘淸’과 ‘寒’을 통해 궁궐의 엄중하고 맑은 기운을 표현한 것이다. 버들이 길게 드리워있고 시원한 곳에서 잠시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봄새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지저귀고 있다. 시각, 촉각, 청각으로 감각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한가로운 봄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낮잠을 깨었지만 그래도 한적함이 느껴지는 시이다. 궁궐시답게 맑고 화려하면서 봄새 소리의 그윽함이 더해진 시다. 버드나무 흐드러지게 늘어진 속에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에서 봄의 감흥이 일어난다.

軒窓蒸鬱汗翻漿	창문은 폭폭 찌고 물 붓듯 땀 흐르는데
赤日彤雲晝刻長	붉은 태양 붉은 구름 낮 시각 길기도 해
賴有寸心能似水	되려 마음 물과 같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却於炎處作清涼	무더운 곳에서도 서늘한 생각 가져본다 <sup>179)</sup>

한 여름 일상의 일기이다. 창문을 통해 뜨거운 기운이 들이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하니 더위의 심한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苦熱’이란 제목에서 더위의 체감정도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다. ‘赤’, ‘彤’의 붉다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뜨거운 강도를 더했다. 해가 ‘붉다’라고 한 것은 평범한 詩語 사용이라 할 수 있으나, 구름을 ‘붉다’고 표현한데에서 이송인의 시적 감수성의 뛰어남을 엿볼 수 있다. ‘長’에서 낮 시간이 긴 夏至 무렵임을 알 수 있으며 이렇게 덥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더위를 이길 수 있다. 시원한 생각을 하여 더위를 식히니 마음속은 고요한 물처럼 되어 오히려 한적함을 느끼게 한다. 짧은 七言 絶句에서 더위의 강렬함과 그 더위를 견디는 지

179) 『陶隱集』 권3 <苦熱> p.305.

혜를 含蓄的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十載邯鄲夢裏身      십 년 동안 한단의 꿈속을 헤매던 몸이  
歸來喜見故山春      돌아와 고향의 봄을 맞으니 기쁘도다  
松醪酒熟無人過      송화주도 익었건만 찾아오는 사람 없어  
醉向花陰脫却巾      두건 벗고 꽃그늘 아래 술에 취하네

水聲松韻有誰爭      물소리 솔바람 소리 다툴 자 누구랴  
占斷他時更野情      옛날부터 독차지하니 한가로운 들판 정취  
大地烘爐人自苦      대지가 용광로라 사람들 괴로운데  
山中盡日嫩涼生      산중은 하루 종일 바람 불어 선들선들

小溪東畔兩三家      작은 시내 동쪽 가에 인가가 두세 채 뿐  
梨栗今秋結轉加      배와 밤이 올가을엔 훨씬 많이 달려있어  
收拾不拘山遠近      먼 산까지 멀다않고 다니면서 거두느라  
日斜歸路伴林鴉      저물녘 숲 속 까마귀 친구하며 돌아오네

爐紅氈暖睡方濃      화롯불에 따스한 담요 잠이 마구 쏟아져서  
不省紛紛雪滿峯      어지러이 눈이 산을 덮는 줄도 몰랐는데  
清興曉來開戶出      맑은 새벽 흥취 일어 문을 열고 나가보니  
玉壺  銀界沒人蹤      옥호 속의 은빛세계 사람 자취 전혀없네<sup>180)</sup>

산중감흥 4수는 사계절을 차례로 읊어 고향의 정취를 드러낸 시이다. 1연에서 盧生이 도사 呂翁의 베개를 베고 한 평생의 부귀영화를 누린 꿈을 꾸었

180) 『陶隱集』 권3 <山中感興 四首> p.370.

던 것처럼 도은도 지난 세월의 영욕을 반복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봄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다. 松花酒가 익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영욕을 반복한 후의 일이라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유배 후 귀향하였을 때의 일인 듯하다. 머리에 쓴 두건을 벗고 송화주에 취해 꽃그늘 아래에서 즐기는 모습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헛된 꿈에서 벗어나 심신이 자유로운 경지에 있음을 느끼게 한다.

둘째 수에서 물소리와 바람소리를 다룰 자 없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승인 자신이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水聲’, ‘松韻’이 轉句에 나오는 ‘烘爐’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름이라 대지는 뜨겁기가 용광로 같은데 자신은 시원한 곳에서 즐기고 있다. 이 용광로는 지난날 자신이 몸 담고 있던 속세의 세계이다. 첫째 수에서 벼슬길에 있었던 지난 세월을 한단몽에 비유하여 덧없음을 읊고, 둘째 수에서는 정치적으로 힘겨웠던 지난날을 대지가 용광로 같이 뜨거운 여름의 날씨에 비유하였다. 속세를 벗어나 유유자적함에 만족하는 이승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수에서 사람이 사는 집이 두어 채라는 것에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적으니 거두는 열매의 양은 더욱 많아진다. 배와 밤의 결실이 작년보다 많다는 것은 物質的으로도 풍성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여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수의 한단의 꿈에서 깨어나 이제는 여유를 찾은 모습이 이어지는 시에 연결되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뜨거운 여름,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나 조용하고 한가한 겨울로 계절의 변화를 읊었다. ‘紅爐’, ‘氈’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촉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편안한 느낌을 준다. 잠이 들어 밖에 내리는 눈이 산봉우리를 덮는 것도 알지 못하였지만 독자에게는 눈 내리는 경치가 눈에 가득하도록 표현의 효과를 드러낸다. 후한의 術士 費長房이 약을 파는 신선 壺公을 따라 그의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더니, 신선 세계가 펼쳐

져 있었다고 한다. 淸興이 일어 밖을 보니 신선 壺公의 호리병 속의 은세계 같은 경치가 펼쳐져있다. 사람의 발자국조차 흔적 없이 덮여 온 세상이 깨끗하고 적막감이 도는 모습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이다. 사람의 발자국이란 속세의 찌든 때, 세속의 영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작자의 심리상태도 눈과 같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淸新한 느낌을 주고 있다.

네 수의 시는 각 계절의 상황에 맞추어 감흥을 읊은 시로 시인으로서의 순수한 감성을 잘 드러내었으며 시 전체에서 한가롭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誰道村居僻 시골집 궁벽하다 그 누가 말하는가  
眞成適我情 참말이지 내 취향에 아주 맞는걸  
雲閑身覺懶 구름이 한가하니 몸도 절로 게으르고  
山好眼增明 산 좋으니 눈도 훨씬 더 밝아지네  
詩稿吟餘改 써 놓은 시 읊조리다 고쳐도보고  
茶甌飯後傾 찻잔은 밥 먹은 후 기울여 마신다.  
從來知此味 이전부터 이런 맛을 알았으면서  
更別策功名 다시 따로 공명 추구 꾀하였다니 181)

이송인은 16세의 나이에 詩賦로 급제하여 이른 나이에 관료에 나섰으나 政爭에 휘말려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시골집에 거처하게 되었다. 시골집에 살아보니 궁벽하다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나름의 운치가 있어서 오히려 자신의 정서와 부합함을 발견하여 安分知足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각을 바꾸고 보니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에도 한가해 저서 한가한 구름 따라 작자도 자연과 하나가 되어 생활도 한 박자 느리게 된다. 주변 산이 좋으니 볼 것이 많아 눈도 따라 더욱 밝아진다. 출세를 지향하여 바쁘게 살 때는 차

181) 『陶隱集』 권2 <次民望韻> p.157.

한 잔 할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찻잔을 기울이며 그 맛을 음미해 보기도 한다. ‘雲,’ ‘山,’ ‘茶’의 詩語는 俗塵을 씻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시는 속세를 벗어나 작자가 현재의 자신의 처지를 즐기면서 유유자적 하는 모습을 읊었다. 공명을 추구하는 일이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실천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제대로 즐기게 되었다는 것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雪壓村村樹 마을마다 나무 위에 수북 쌓인 눈  
技技總作花 가지마다 온통 꽃을 피워 놓았네  
山童爭報道 산촌의 아이들이 다뒹 전하길  
嘉景酒堪餘 술 사서 마실 만큼 좋은 경치라네

赤葉明村逕 단풍잎은 시골길을 붉게 밝히고  
清泉漱石根 맑은 샘물 돌 뿌리를 씻어주는데  
地偏車馬少 땅이 외져 거마 소리 드문 곳이라  
山氣自黃昏 산기운 저 혼자서 황혼 맞는다

林靜鳥聲盡 고요한 숲 새소리도 다 끊어지고  
潭空天影閑 텅 빈 못 물 하늘 그림자 한가롭구나  
因思陶靖節 불현듯 정절선생<sup>182)</sup> 생각나기에  
籬下見南山 울 아래서 남산을<sup>183)</sup> 바라보노라<sup>184)</sup>

제목이 없는 五言絶句의 세 수의 시는 첫째 수는 겨울을 둘째 수는 가을

182) 靖節은 도연명의 私諡이다.

183) 도연명의 <음주 20수> 중 다섯 번째 시에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동쪽 울 아래에서 국화 꽃을 따면서,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노라.)”라는 구가 나온다.

184) 『陶隱集』 권3 <失題> p.302.

을 읊었는데 셋째 수와 연결이 된다. 첫째 수에는 눈이 많이 내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었다. 수북이 쌓인 눈에서 소리 없는 고요함이 느껴진다. 아직 철없는 아이들조차 술 사서 마시기 좋은 경치라고 알려 줄 정도이니 눈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불만하다.

둘째 수는 단풍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에 지은 시이다. 떨어진 낙엽이 길을 밝혀 주며 맑은 샘물이 돌부리를 씻어준다. 赤色이 明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고, ‘淸’은 ‘漱’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 드러나도록 표현한 것에서 이송인의 시인으로서 역량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2연에서 車馬가 적게 다니는 외진 곳이라는 표현은 陶淵明의 〈飲酒 20수〉 중 다섯 번째 시에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내 집이 사람 사는 동네에 있어도, 그런데도 시끄러운 거마 소리 들리지 않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마음이 멀면 땅은 절로 외져서라오.)”라는 구절의 의미를 차용하였다. 세속 사람들은 이 자연을 감상할 줄 모르지만 자신만은 그 속에서 자연과 동화된 깨끗하고 고요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즐거움이 言外에 스며있다.<sup>185)</sup> 고요하고 청정한 세계를 묘사하여 청신함이 느껴진다.

시 전체에서 고요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새 소리도 나지 않는 고요한 숲 속에서 연못도 텅 비어있다. ‘空’은 고요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며 한적한 시골에서 거하며 사리사욕을 버린 마음 상태도 함께 드러내준다. 2연에서 도연명의 시를 차용하고 다시 3연에서 陶靖節을 생각하며 남산을 바라본다고 한 것에서 도연명의 시와 사상을 좋아함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계절의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인의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여 한적한 정서를 읊고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

述懷를 통해 자기를 표현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실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內面을 성찰하거나 安分知足하는 모습을 드러냈

185) 송준호 평석, 『韓國名家漢詩選 1』, 문헌과 해석사, 1999, p.512.

다. 또한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소재와 감회로 자기의 내면세계를 표출하였으며, 자연묘사를 통해 한가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세련된 감각으로 잘 표현하여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한껏 드러내고 있다.

## V. 文學史的 意義

고려 말은 性理學이 元나라에 와서 고려에 전래되기 시작함으로써 文學作品 속에서도 이러한 思想의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고려 말은 선진유학과 성리학이 混在하던 사상적 과도기로 볼 수 있다.<sup>186)</sup> 한 사람의 생애와 사상은 그 시대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정치적, 사상적으로 과도기에 살았던 이송인의 삶과 문학에도 여러 가지 사상이 혼재한다. 『도은집』 서문에 權近이 이송인을 “濂洛의 性理學에 뿌리를 두고서 經史子集과 百家의 글에도 관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sup>187)</sup>라고 하였다. 이송인은 성균관 學官으로 강의를 하면서 성리학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이송인은 불교 국가인 고려에 유입된 성리학을 정착 시키는데 주춧돌이 된 사람이다. 『陶隱集』 序에 鄭道傳은 우리나라 儒者들의 계보를 나열하면서 益齋 李齊賢이 古文의 학설을 제창하고 牧隱 李穡이 이어받아 鄭夢周, 李崇仁, 權近, 鄭道傳 자신 등에 이어졌다고 하였다.<sup>188)</sup> 이송인은 星州李氏의 家學을 이어받아 학문에 능통하였고, 특히 문장에 능하였다. 그의 가문은 이조년을 비롯하여 이인복이 학문을 빛내었고, 이들은 성균관 교관과 과거의 고시관을 맡아 많은 門生과 門徒를 배출하였다.<sup>189)</sup> 조선의 太宗이 이송인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吉再와 卞季良도 이송인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의 학문적 역량이 조선에까지 이어졌다고 하겠다.

『圃隱集』 <次遁村韻呈四君子-右東窓>에서 “獨擅文章斷牧翁(홀로 문장을

186) 金相洪 · 梁光錫 · 申用浩 編, 『韓國文學思想史』, 계명문화사, 1991, p.37.

187) 『陶隱集』 序 “本之以濂洛性理之說 經史子集百氏之書 靡不貫穿.”

188) 『도은집』 序, 鄭道傳, “吾東方雖在海外 世慕華風 文學之儒前後相望 在句高麗 曰乙支文德 在新羅 曰崔致遠 入本國 曰金侍中富軾 李學士奎報其尤者也 近世大儒有若雞林益齋李公 始以古文之學倡焉 韓山稼亭李公 京山樵隱李公從而和之 今牧隱李先生蚤承家庭之訓 北學中原得師友淵源之正 窮性命道德之說 既東還 延引諸生 其見而興起者 烏川鄭公達可 京山李公子安 晉陽河公大臨 潘陽朴公誠夫 永嘉金公敬之 密陽朴公子虛 永嘉權公可遠 茂松尹公紹宗 雖以予之不肖 亦獲廁於數君子之列.”

189) 申千湜, 『牧隱 李穡의 學問과 學脈』, 일조각, 1998, p. 298.

떨쳐 牧隱선생을 이으시니)”라고 하였으니, 이송인 문장의 우수성과 스승 목은 이색을 이었음을 鄭夢周의 시에서 알 수 있다.

고려 말에는 北宋의 道學과 性理學이 도입됨으로써 조선조 전기에 비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문학사상으로서의 유학사상이 당대의 문학을 載道的 文學으로 특징짓는데 기여했다고 하겠다.<sup>190)</sup> 이송인의 시에는 성리학적인 측면 이외에 불교의 색채를 지니거나 도교의 흔적이 보이는 등 여러 사상이 혼재하고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송인의 문학이 완전히 성리학적 경향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나 고려 초 詞章중심 경향으로 이어 오던 문학의 흐름을 고려 말에 이르러 經典 위주의 문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一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송인은 일찍부터 학문적 성취 면에서 이름을 떨쳤다.

송인은 天資가 영오하고 문사가 전아하여, 李穡이 매양 탄상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의 문장은 중국에서 구하여도 세상에 많이 얻지 못하리라. 해동에 문사가 있는 이래로 그와 비할 자가 드물다.”고 하였다. 明太祖도 이송인이 지은 表文을 보고는, “表辭는 진실로 절실하다.”고 하였고, 중국의 사대부가 그의 저술을 보고는 탄복 아니하지 못하였다.<sup>191)</sup>

위의 『高麗史』 列傳의 이송인조의 내용으로 보아 이송인이 어려서부터 영민하여 그의 문장력이 아주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이미 학문의 단계가 높아 16세에 詩賦로 문과에 급제하고, 25세 때 명나라 과거응시자로 뽑혔으나 나이가 되지 않아 파견되지 못하였으나 그의 문장력에 明太祖도 탄복하였다고 한다. 『태조실록』 태조1년(1332년) 8월 23일 條 이송인 卒記에 “直講에서 判書에 이르기까지 모두 製敎를 兼務하여, 이색이 병들고 난 뒤에는 중국과의 외교에 관계되는 文字는 모두 그 손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였으니

190) 박성규, 「高麗朝의 文學思想」, 『韓國文學思想史』, 계명문화사, 1991, p.43.

191) 『高麗史』 卷115 <列傳> 卷28 <李崇仁> “崇仁 天資英銳文辭典雅 穡每歎曰 此子文章 求之中國 世不多得高皇帝嘗覽崇仁所撰表嘉之曰 ‘表辭誠切’ 中原士大夫觀其著述 亦莫不歎服.”

그의 문장이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오직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섬긴 이래로 表箋과 詞命이 대부분 崇仁의 손에서 나왔는데 공민왕의 諡號를 얻음과 上王이 爵을 이음도 모두 송인의 문장이 그 힘이 되었고, 해마다 金, 馬, 布의 공납을 면제받은 것도 崇仁의 힘이었습니다. 황제가 자주 문장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우리나라에 인재가 있다고 한 것도 역시 崇仁의 공입니다. 송인의 문장은 간결하고 高古하여 세상에 그 이름을 떨쳤고 이는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sup>192)</sup>

위의 글은 공양왕 때 탄핵을 받았을 때 權近이 올린 상소문이다. 여기에서도 貢納을 면제 받을 정도로 이송인의 글이 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고려에서 文名이 최고의 위치에 있음은 물론 중국에까지도 이름을 떨쳤다. 이송인의 序跋文을 당시의 석학인 李穡, 鄭道傳, 權近과 중국의 사신인 張溥, 高巽志, 周倬이 쓴 것만 보아도 그 당시 이송인의 학문적 위치를 알 수 있다.

崔岬이 ‘당대 詩는 도은’이라 評한 것처럼 이송인의 시가 우수함을 諸家の 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현한 어휘가 渾然히 이루어진 가운데 精確하였고, 말하려고 하는 뜻이 평범하고 담담한 가운데 深遠해서 무척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왕왕 唐나라 시인의 기풍과 매우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으나, 唐詩의 膏澤에 몸을 적시고서 잘 달게 이를 모방하려고만 하는 자들과 비교한다면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안과 같은 경우는 자질이 순수한 데다가 부지런히 학문에 힘쓴 결과 壯年에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단지 詞人の 聲律을 가지고 가슴속에 쌓인 和順한 내용을 토로한 것일 뿐이었다<sup>193)</sup>

192) 『高麗史』 권 115, 列傳28, 李崇仁, “惟我國家, 臣事大明以來, 表箋詞命, 多出崇仁之手. 恭愍得諡, 上王襲爵, 皆崇仁文章之力也. 得免歲貢金銀馬布, 亦崇仁之力也. 皇帝屢稱文章之美, 謂我國有人物者, 亦是崇仁之功也. 崇仁文章, 簡潔高古, 閒世挺生, 中國罕有.”

193) 張溥, 『도은집』 跋, “愛其吐辭精確於渾成之中 命意深遠於雅淡之際 往往絕類唐人 視彼之嚮巧膏澤 規規摹倣者 不可同日語矣 若子安之粹姿敏學 壯年掇巍科 躋膺仕 持以詞人聲律 寫其

張溥가 쓴 도은집의 跋文은 이송인의 시세계를 정확히 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송인의 시를 분석해 본 결과 불교적 성향의 시에서도 속세를 떠난 곳을 동경하며 맑고 高古한 느낌을 주는 시를 지었다. 이송인은 문장의 인위적인 彫琢을 꺼려하여 簡潔하고 淡泊한 시를 썼다. 평범한 일상에서 주제를 택하여 있는 그대로 質樸하게 짓거나, 유교적인 內容을 쓰더라도 읽혀지기 쉽게 평범하게 써 내려갔다. 또한 시인으로서의 섬세함과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 詩를 지음에 회화성을 띤 작품들이 눈에 띈다. 이로 인해 唐詩의 풍격을 지녔다고 평가 받기도 하였으나 周倬의 평에서도 알 수 있듯이 唐詩를 그대로 모방만 하려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송인은 학문적인 蘊蓄으로 늘 淸新하고 세련된 시를 지었다. 표현법에 있어서는 오감각의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시의 순수 서정을 잘 드러내었다. 고려시대의 문학적 흐름은 고려시대를 관통했던 詞章의 경향이 고려말 성리학의 사상적 영향과 唐風의 영향 속에서도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 대상사물을 그리거나 일상의 심회를 읊조려서 순수문학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함으로써 고려 말 “詩는 陶隱”이라는 평가를 이끌어 낸 이송인의 문학사적 의미는 재평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魯中之所蓋耳 自此行益顯位益重 功業益以隆 則所以垂不朽者 豈但詞章云乎哉.”

## VI. 結論

고려 말은 대외적으로 元明의 교체기, 국내에서는 왜구의 침입과 고려왕조의 몰락과 조선이 건국되는 혼란기였다. 陶隱 李崇仁은 충목왕 3년(1347년)에 星山府 龍山里에서 태어나서 이른 나이에 학문을 시작하였다. 15세 때 흥건적이 침입하여 왕이 피난하는 것을 보고 시를 지어 일찍이 시적 재능을 드러내었다. 21세에는 成均館의 教授가 되어 강의를 하였으며 성리학이 정착의 礎石의 역할을 하였다. 29세 때에 北元의 사신을 물리치기를 주장하다가 유배를 가게 된 후로 3차례나 유배와 복직을 반복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46세의 나이로 杖殺당한 비운의 인물이다. 이런 까닭으로 이송인이 남긴 시의 수는 337제 446수로 그리 많지는 않다. 또한 여타의 작가들처럼 문학에 대한 이론서를 남기지는 않았으나 『도은집』에 실린 시를 통해 그의 문학의식에 대해 살펴 볼 수가 있었다.

이송인은 詩의 가장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을 『詩經』으로 여겼고, 孔子가 언급한 ‘思無邪’에 이르는 것을 시의 최고의 경지로 여겼다. 鄭道傳의 評대로 『詩經』의 比興과 『書經』의 典謨에 뿌리를 두었으며, 文章을 지나치게 꾸미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송인의 시 작품 중에 經典의 文句를 인용한 것이 다수 보이며, 그의 시가 소박하며 들뜨지 않음에서 문학의식을 볼 수 있다. 또한 성리학자였지만 그의 思想의 기저에는 불교가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시에서도 불교취가 나는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며, 詩作을 자신의 내면에 쌓인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다. 시를 짓는데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을 최고로 여겼다.

陶隱은 高麗 末의 지식인으로서 新進學問인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당연한 귀결로 그의 시는 性理學的 世界觀에 입각한 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는 성리학 관점에서 연구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방향으로 연구된 논문들이 다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송인의 시세계를 불교적 성향이 드러난 시, 詠物을 통한 내면 표현한 시, 述懷를 통한 자기표현을 한 시로 나누어 고찰하여 그의 시세계의 전모를 파악해 보려는 목표를 지니고 서술하였다.

불교는 고려의 政治·社會·文化 등 전 분야에 걸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성리학이 유입되었으나, 여전히 당시 사대부의 삶과 문학에 불교의 영향이 지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사대부 문학의 중심에 있는 이송인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시문을 창작했다.

이송인은 성리학을 공부했으나, 독실한 불교신자인 모친의 훈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접했고, 이 영향으로 성리학에 경도된 여타 사대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배불론을 펼치지 않았으며, 시종 불교에 호의적인 관점을 지녔다. 이송인이 남긴 70여수의 불교적 성향의 시는 이러한 그의 태도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이송인의 문학에 대한 연구에서 불교는 소외되거나 부분적으로만 다뤄져 왔다. 본고는 이러한 경향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송인의 시 중에 불교적 성향이 드러난 시를 살핌으로써 그의 삶과 시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서술의 목적을 두었다.

우선 이송인의 불교적 성향의 시를 고찰하기 전에 그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교에 호의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시어 속에 불가의 언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송인은 불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양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불교를 비판한 작품도 있었는데 이는 불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닌,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교단에 대한 비판과 불교의 哲理에 침잠하기보다 맹목적 신앙에 주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비판한 것에 그치고 있었다.

이송인은 높은 정신경계에 노니는 승려들과 交遊하면서 자신 역시 그러하고자 했다. 한편 불교적 성향이 드러난 시에는 현실과의 갈등, 불교의 哲理, 禪적인 精神境界 등 다양한 주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였다. 李

崇仁은 승려와의 교유시와 자연시를 통해 당시 고려 말 사상계의 주류를 이루었던 禪宗의 思想을 드러내었다. 以心傳心, 不立文字를 표방하는 선종의 사상과 청정한 정신경계를 수행하는 승려의 모습을 깨끗한 자연 풍광으로 묘사해 냈다. 탈속적인 모습이나 수행하는 스님의 精神世界를 묘사함에는 주로 맑고 깨끗한 자연물을 소재로 한 것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송인 시의 특징인 清新함과 高古한 風格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山寺의 모습이 한 폭의 水墨畫를 연상하게 하여 시인으로서의 기량을 한껏 발휘했다.

이렇게 보면 이송인은 고려 말 조선 초 사대부의 문학작품에서 산견되는 ‘外儒內佛’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겉으로 성리학을 전공했고, 유학적 가치로 세상을 경륜하려 하면서도 내면에는 불교적 이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佛敎的 理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우선 일반적으로 알려진 ‘禪’이라고 표현했는데, 보다 자세한 논의는 지면을 달리하여 서술해야 할 것으로 본다.

詠物詩는 事物의 吟詠을 통해서 자신의 感懷를 드러내기도 하고 사물을 그대로 읊어 사물의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송인 역시 영물시로 자신의 심사를 드러냈다. ‘觀物齋’에서도 볼 수 있었던듯이 이송인은 사물을 봄에 있어서 사물의 종류와 가치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고 있다. 사물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에서 영물시 속에 이송인의 사상이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송인의 영물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영물시를 통해 ‘現實 認識과 克服의 意志’가 드러난 작품을 보았는데, 이송인의 다른 작품과는 달리 현실 갈등을 직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며 좌절이나 은둔하려고 하지 않았다. 특히 <感興>에서 ‘오동나무’를 자신에게 빗대어 읊었다. 현재 쓰이고 있지 않지만 장차 벼슬길로 나아가고 싶다는 것을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심사나 의지를 드러냈다. 이 역시 이송인이 시인으로서의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蠅>에서도 파리를 간신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대응방

식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도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事物에 시인의 情緒를 담은 시를 보았는데 시인답게 조그만 사물에도 주목해서 이를 훌륭한 시로 표현해 내었다. <牡丹>에서 비를 맞은 모란을 보고 원래 지니고 있던 모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표현함도 시인으로서의 사물을 보는 예리함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李氏園中松竹梅蘭四詠 次陽村韻>에서 시를 따라 읽어 내려가면 이씨의 정원 풍경을 그림으로 보는 듯하다. 특히 <若有杖歌>에서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를 의인화하여 함께 하였던 때부터 잃어버렸을 때까지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서술한 것에서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볼 수 있다. 이송인은 사물의 특징을 잘 포착하여 간결하고 세련되게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이 이송인 詠物詩가 지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신의 懷抱를 풀어 쓴 述懷詩에서는 자기 성찰을 통해 긍정의 모습이 드러난 시와 일상 속에서 한정된 정서와 感興을 읊은 시로 나누었다. 술회시에 나타난 이송인의 순수한 정서적 취향이나 特徵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추출해 내고자 하였다. 술회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 <自訟>에서는 현실의 어려움에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돌아보고 있다. <眼疾>은 눈병이 걸려 아픈 것으로만 지나칠 수 있는 일을 오히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 떠나는 봄을 아쉬워하면서 지은 <春歸>의 결구 “吹送餘花過短牆”에서 마지막 꽃잎과 함께 봄이 담 너머로 가는 듯한 해학적인 표현에서 이송인의 시적 감수성을 엿 볼 수 있었다. 바둑 두는 모습을 소재로 한 <觀人圍棋>에서 바둑 두는 것을 ‘手談’으로 표현하여 시인으로서의 감수성이 돋보였으며, 관찰자로서 바둑 두는 사람의 심정을 잘 파악하였다. <山中感興 四首>에서는 사계절을 차례로 읊어 고향의 정취를 드러낸 시로 한가롭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述懷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을 꾸밈없이 그대로 서술하여 平淡하게 썼으며, 어려운 정치 현실 속에 있었지만 성찰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거나 한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풀어냈다. 또한 일상에서 일

어나는 사소한 일도 지나치지 않고 시로 읊어 한정한 정서를 드러냈다.

陶隱 李崇仁은 고려 말 政治的 · 思想的으로 과도기에 살았던 인물로 그의 文學에서도 성리학과 불교 사상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國敎가 佛敎였던 까닭으로 그의 시는 불교적 성향의 시도 있었으며, 성균관 학관을 지내면서 후학들을 교육하여 性理學이 정착되는데 주춧돌의 역할을 하였다. 이제 현에서 이색, 도은으로 학맥이 이어져 조선의 학자들까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당시의 外交文書를 도맡을 정도로 文章이 뛰어났으며 국내에서는 물론 중국에 까지도 이름을 떨쳤다.

그의 시를 분석한 결과 자연친화적이며 俗氣를 벗어난 것으로 徐居正의 『東人詩話』에서 “이송인은 淸新하고 高古하다”라고 한 말이 증명된다. 또한 타고난 섬세한 감각으로 문장에 인위적인 조탁없이 자연스럽고 簡潔하게 써 내려가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었다.

본고에서는 이송인의 시를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다. 다만 이송인이 동류와 교제하며 남긴 작품에 대해서 소략하게 서술한 감이 없지 않고, 한시를 중심으로 다룬 나머지 그가 남긴 산문을 통하여 시를 해석하는 시도를 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해 본다.

## 參 考 文 獻

### 【자료】

『簡易集』

『古今詠物近體詩』,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아세아문화사, 1981.

『高麗史』, 아세아문화사, 1972.

『高麗史節要』, 아세아문화사, 1973.

『국역 동문선』, 민족문화추진회, 1967.

『箕雅』

『老子』

『論語』

『櫟翁稗說』

『孟子』

『孟子』

『牧隱文藁』

『三賢紀年』, 李楨相 編, 星州李氏安山世德祠, 1920.

『惺叟詩話』

『靑丘風雅』, 金宗直, 아세아문화사, 1977.

『太祖實錄』, 國사편찬위원회, 1979.

『韓國文集叢刊 6』 「陶隱集」

徐居正(張鴻在 譯), 『東人詩話』, 學友社, 1980.

張志淵, 『大東詩選』, 亞細亞文化社, 1977.

鄭夢周, 『圃隱集』, 高麗名賢集3,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1973.

鄭珉·李鐘殷 共編, 『韓國歷代詩話類編』, 亞細亞文化社, 1988.

## 【단행본】

- 丘仁煥 · 丘昌煥 共著, 『新稿 文學概論』, 三知院, 2000.
- 金相洪 · 梁光錫 · 申用浩 編, 『韓國文學思想史』, 계명문화사, 1991.
- 김여주,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김재욱, 『牧隱 李穡의 詠物詩』, 도서출판 다운샘, 2009.
- 金忠烈, 『高麗儒學史』,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4.
- 劉若愚 著, 李章佑 譯, 『中國詩學』, 명문당, 1994.
- 李炳赫, 『麗末鮮初漢文學의 再照明』, 太學社, 2003.
- 李鐘燦, 『韓國禪詩의 이론과 실제』, 이화문화출판사, 2001.
- 文一平, 『花下漫筆』, 三星文化財團, 1974.
-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士, 1996.
- 민족문화 추진회, 『국역 동문선』, 경인문화사, 1977.
- 박성규, 『고려 후기 사대부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成百曉, 『譯註 古文眞寶』, 傳統文化硏究會, 2006.
- 송준호 평석, 『韓國名家漢詩選 I』, 문헌과 해석사, 1999.
- 申千湜, 『牧隱 李穡의 學問과 學脈』, 일조각, 1998.
- 吳戰壘 著, 유병례 역, 『중국 시학의 이해』, 태학사, 2003.
- 윤호진, 「한시의 의미구조」, 법인문화사, 1996.
- 이가원, 『조선문학사』, 태학사, 1995.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넥서스, 1998.
- 이승인 지음, 이상현 옮김, 『도은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 鄭堯一, 『漢文學 批評論』, 集文堂, 1994.
-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2002.
- 趙明濟, 『高麗後期 看話禪 硏究』, 혜안, 2004.
- 車柱環, 『中國詩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 一潮閣, 1996.
-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97.
- 호응린 지음, 기태완 외 역주, 『호응린의 역대한시 비평』,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 연구』, 혜안, 2003.

## 【논문류】

- 강혜선, 「고려 말 사대부의 교유시 연구 -둔촌, 척약재, 포은, 도은, 삼봉, 양촌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2014.
- 金京美, 「陶隱 李崇仁의 佛教詩 一考察」, 『한문고전연구 32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 김동욱, 「도은 이승인의 생애와 문학세계」, 『어문학연구 제8집』, 상명대학교어문학연구소, 1999.
- 金聖基, 「李崇仁論」, 『韓國漢詩作家研究 2』, 太學社, 1996.
- 김재욱(제 1저자), 송혁기(교신저자), 「도은 이승인의 佛教詩 연구-승려와의 교유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제 38집』, 근역한문학회 2014.
- 김재욱, 「牧隱 李穡의 詠物詩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金正熙, 「陶隱 詩文學 研究」, 『복현한문학 2집』, 경북대, 1984.
- 김철웅, 「이승인의 생애 자료와 활동」, 『한국민족문화 57』, 2015.
- 金賢珠, 『도은 이승인의 시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李楠福, 「도은 이승인 연구」, 『동의논집 24집』, 동의대학교, 1996.
- 李性燦, 『도은 이승인의 문학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朴性奎, 「陶隱 李崇仁論-그의 시세계를 중심으로-」, 『東洋學 제2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1.
- 朴宰完, 『도은 이송인의 시문학론』,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박찬근, 「이송인의 생애와 문학」,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朴天圭, 「三隱과 麗末 漢文學」, 『동양학 9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9.
- 송재소, 「도은 이송인의 시」, 『한시한마당11』, 시와시학사, 2003.
- 梁鎭潮, 「陶隱 李崇仁의 詩世界 研究」,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魚江石, 「도은 이송인의 삶과 시문학의 특징」, 『청계논총 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엄연석, 「도은 이송인의 유학사상과 절의 실천」,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2012.
- 원주용, 「이송인 산문의 文藝的 특징」, 『한문학보 16집』, 우리한문학회, 2007.
- 柳浩珍, 「陶隱 詩에 나타난 人格美 및 生活理想」, 『국어국문학 125호』, 국어국문학회, 1999.
- 이병혁, 「도은 문학교」, 『한국 문학 총론』, 한국한문학회, 1978.
- 李炳赫, 「려말한문학의 주자학적인 경향에 대하여 -도은 이송인을 중심으로-」, 『石堂論叢제10집』, 1985.
- 이정화, 「도은 이송인의 樓亭詩연구」, 『한국사상와 문화 제3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 이준희, 「도은 이송인의 시문학 연구」 『한문고전연구 제12집』, 2006.
- 林鍾旭, 「도은 이송인의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연구 11권』, 동국대 한문학연구소, 1988.
- 장인진, 「『도은선생집』의 版本과 文獻的 특성」, 『한국학논집 제51집』,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2013.
- 張在天, 「李崇仁 삶과 足跡에 대한 평가」, 『한국사상과 문화62권』, 한국사상

- 문화학회, 2012.
- 全秀燕, 『이승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정성식, 「도은 이승인의 역사의식」, 『동양문화연구 15집』,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13.
- 鄭載喆, 「목은 이색 시의 연구-그 사상적 지향의 탐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 鄭載喆, 「이승인 시의 사상적 지향과 風格 연구」, 『태동고전연구15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88.
- 정종대, 「李崇仁의 漢詩에 대하여」, 『선정어문36』, 서울대국어교육과, 2009.
- 趙載億, 「이승인의 시와 隱逸性」, 『한문학논집』, 단국한문학회, 1988.
- 車溶柱, 「李齊賢 研究」, 『韓國 漢文學 作家 研究』, 景仁文化社, 1996.
- 崔光範, 「고려 말 한시 풍격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崔光範, 「도은 이승인의 시의 風格-清新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4』, 민족어문학회, 2001.
- 하정승, 「도은 이승인 시에 나타난 節義精神과 忠節의 형상화」, 『포은학 연구 제16집』, 2015.
- 河政承, 「도은 이승인 시의 意象과 美意識의 表出樣相」, 『동방한문학 제 27집』, 동방한문학회, 2004.
- 하정승, 「도은 이승인의 시의 品格연구」, 『한국한시연구8』, 태학사, 2001.
- 하정승, 「이승인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특질」, 『한국한시연구 21집』, 한국한시학회, 2013.

#### 4. 인터넷 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Abstract

### A Study on Doeun(陶隱) Lee Soong-in's(李崇仁) Poetry World

Kim, Keong mi  
Departmen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Doeun Lee Soong-in (1347, King Chungmok Year 3~ 1392, King Gongyang Year 4) is a Confucian scholar, politician and poet in the late Goryeo period. Lee was intelligent since childhood and memorized everything he read, and also did not ask the same thing twice after a lecture. Despite his outstanding talent, he was caught up in the chaotic era of the late Goryeo period, and was exiled and reinstated four times. After the transfer of power to Lee Seong-gye, Lee Soong-in was killed at the age of 46 by Hwang Geo-jeong sent by his friend Jeong Do-jeon, and thus not many of his poems remain. However, Lee Soong-in was an excellent poet, representing the prose and poetry of the time.

Lee Soong-in's collection of works, *Doenjip*, contains 337 pieces and 446 poems in Volumes 1-3, and 51 pieces of prose in Volumes 4-5.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covered the life of Lee Soong-in while also analyzing his world of poetry in terms of Neo-Confucianism. Studies in terms of Neo-Confucianism contain many conflicts or narrative contents about loyalty, filial duty and political

reality. Thus, it is not relatively easy to discover Lee's poetic skills or innocence as a poet. Being considered the best poet of the time, he must be studied with focus on poetry.

This study first examined Lee's poetry that revealed Buddhist disposition. Since the state religion of Goryeo was Buddhism, it was a time when Buddhism had a great influence over all areas of the society. This is why, even though Lee was a nobleman who studied Confucianism, his works are based on Buddhist ideas. By separately examining his poems with strong Buddhist disposition, this study will reveal the outlook on the world and direction of life that he aimed and pursued in reality of the time. First, by tracing the perception on Buddhism in Lee's poems, it could be found that his Buddhist poetry consisted of poems aiming at absence of vulgarity and poems seeking the Ch'an taste (禪趣). Lee intended to live a life away from the painful reality through Buddhism, and to reach the level of Buddhist monks hovering over the boundaries of high spirit.

Second, this study examined yeongmulsi (poetry on objects) that reveals Lee's emotions through objects. His imagery as a poet is considered to be conveyed well in yeongmulsi, through which Lee's poetic features can be examined in terms of emotion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his yeongmulsi is mainly divided into poems that revealed his perception on reality and will to overcome, and his emotions as a poet in the objects. Compared to Lee's other works that recite the conflicts, frustrations or seclusion in reality in an intense tone, his yeongmulsi is relatively written in a calm tone.

Third, this study examined Lee Soong-in as a natural man living his daily life by unburdening himself with sulhoesi (poetry on recollection). As he recalled his thoughts, there were signs of introspection in various parts of the poetry, which

are divided into cases that revealed positive consciousness and cases that revealed limited emotions and inspirations of daily life. Works classified as *sulhoesi* mostly showed Lee reflecting on himself or trying to be content with the tough reality, and they also revealed the events of his daily life like a diary.

In general, Lee's poetry has a strong Buddhist disposition while also showing signs of Neo-Confucian influence in various parts. Even though his poetry did not actively reveal Neo-Confucian ideas like the Neo-Confucian scholars in Joseon, it could be found that Lee sensitively responded to the trend in the history of ideas in the late Goryeo period that is changing due to the inflow of Neo-Confucianism. Lee wrote his poems as a means to release his resentful emotions, and also described conflicts with reality in a relatively frank manner.

Lee was also renowned as a fine writer of the time, being in charge of writing diplomatic documents with his writing skills. But Lee refused to concentrate his energy on elaboration of sentences.

This study examined Lee's poetry classified into three items. The contents are as mentioned above. However, this study tends to just roughly describe the works he composed while interacting with the same school, and also failed to attempt at interpreting poetry through the prose he had written as it focused only on Chinese poetry. Follow-up research is anticipated for additional examination of these limitations.